

ETHER LIBRARY 0012

군주론

Il Principe

니콜로 마키아벨리
Niccolò Machiavelli · 1532

철학 · 종교

군주론

Il Principe

니콜로 마키아벨리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Il Principe (라틴어 제목 De Principatibus)

지은이 니콜로 마키아벨리(1469~1527)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집필 1513년, 피렌체 교외 산탄드레아의 은거지에서. 초판 1532년, 로마의 안토니오 블라도와 피렌체의 베르나르도 준티가 각각 펴냈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Il Principe)》을 이탈리아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루이지 피르포가 엮고 페데리코 샤보가 서문과 주를 붙인 에이나우디판(토리노, 1972)을 바탕으로 한 이탈리아 리베르 리베르(Liber Liber)의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편집자의 서문과 주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W. K. 마리어트의 영어 번역(1908)과 루이지 리치의 영어 번역(1909)은 뜻을 확인하는 대조에만 썼습니다. 두 영어 번역이 저본과 다르게 읽은 자리에서는 저본을 따랐습니다.

헌사와 26장, 원문 129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피르포판은 문단이 길어서 한 문단이 몇 쪽에 이르기도 합니다. 문단을 나누지 않고, 문단 안의 문장으로 숨을 쉬게 했습니다.

15장 둘째 문단

저본 전자 텍스트에는 15장의 둘째 문단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군주가 듣는 칭찬과 비난을 「하나는 너그럽고 하나는 인색하다」 처럼 짝지어 늘어놓는 유명한 대목입니다. 이 문단만은 1814년 이탈리아에서 나온 판본(위키문헌 공개본)으로 채워 옮겼고, 그 자리에 각주로 밝혔습니다. 그 판본은 철자가 조금 현대식이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장 제목

마키아벨리는 장 제목을 라틴어로 붙였습니다. 「 De principatibus hereditariis(세습 군주국에 대하여)」 같은 것입니다. 제목은 라틴어 원문을 우리말로 옮겨 적었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1장부터 25장까지는 「-다」로 끝나는 하다체로 옮겼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독자 앞에서 단정하고 논증하는 목소리입니다. **헌사와 26장은 합쇼체**로 옮겼습니다. 두 곳은 마키아벨리가 로렌초 데 메디치에게 직접 바치고 호소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로렌초를 부르는 Vostra Magnificenzia는 「 전하 」 로 옮겼습니다.

한 가지로만 옮긴 말

책 전체를 꿰는 말은 한 가지로만 옮겼습니다. 처음 나오는 자리에는 이탈리아어를 괄호 안에 적었습니다.

virtù는 역량, **fortuna는 운명**입니다.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짝입니다. virtù가 악덕(vizio)과 짝을 이루는 도덕적 뜻일 때만 「 미덕 」 으로 옮겼습니다. 25장의 「운명은 여자다」도 같은 「운명」입니다.

stato는 **국가**입니다. 다만 「권력을 지키다」, 「나라를 잃다」처럼 군주가 쥔 지배와 영토를 가리킬 때는 문맥에 맞게 옮겼습니다.

principato는 **군주국**, popolo는 **인민**, grandi는 **귀족**, sudditi는 **신민**입니다.

군대는 armi proprie를 **자국군**, mercenarie를 **용병**, ausiliarie를 **원군**(남의 군주가 보내 준 군대), miste를 **혼성군**으로 옮겼습니다.

prudenza는 **분별**, verità effettuale는 **실제의 진실**입니다.

그 밖에

각주 119개는 모두 옮긴이가 붙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당대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과 인물을 이름만 대고 넘어가므로, 처음 나오는 자리에 누구이고 언제 일인지를 짧게 적었습니다. 라틴어 인용과 시구는 우리말로 옮겨 본문에 넣고, 라틴어 원문과 출처는 각주에 적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기억에 기대 잘못 적은 몇 곳(사람 이름, 햇수)은 본문은 그대로 두고 각주에서 바로잡았습니다. 해석이나 평가는 달지 않았습니다.

교황 이름은 한국 가톨릭의 표기(알렉산데르 6세, 율리오 2세, 레오 10세)를 따랐습니다. 체사레 보르자는 당대에 불리던 대로 「발렌티노 공작」으로도 적었습니다.

원문의 줄표와 긴 괄호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습니다.

차례

헌사 —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 전하께 9

1장 — 군주국에는 몇 가지가 있으며, 어떻게 얻는가 11

2장 — 세습 군주국에 대하여 12

3장 — 혼합 군주국에 대하여 14

4장 —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다리우스 왕국은 왜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에도 후계자들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는가 24

5장 — 정복되기 전에 제 법을 따라 살던 도시나 군주국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28

6장 — 자기 군대와 역량으로 얻은 신생 군주국에 대하여 30

7장 — 남의 군대와 운명으로 얻은 신생 군주국에 대하여 34

8장 — 악행으로 군주 자리에 오른 자들에 대하여 43

9장 — 시민 군주국에 대하여 48

10장 — 모든 군주국의 힘은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가 52

11장 — 교회 군주국에 대하여 55

12장 — 군대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그리고 용병에 대하여 58

13장 — 원군, 혼성군, 자국군에 대하여 64

14장 — 군주는 군사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69

15장 — 사람들이, 특히 군주가 칭찬받거나 비난받는 일들에 대하여 72

16장 — 너그러움과 인색함에 대하여 74

17장 — 잔인함과 자비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을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가 77

18장 — 군주는 신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81

19장 — 경멸과 미움을 피하는 일에 대하여 84

20장 — 요새를 비롯해 군주들이 흔히 하는 많은 일은 이로운가, 해로운가 95

21장 — 군주가 명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101

22장 — 군주가 곁에 두는 측근들에 대하여 106

23장 — 아첨꾼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108

24장 — 이탈리아의 군주들은 왜 나라를 잃었는가 111

25장 — 운명은 인간사에 얼마나 힘을 쓰며,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113

26장 — 이탈리아를 되찾아 야만족에게서 해방하라는 권고 117

헌사 —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위대한 로렌초 데 메디치 전하께

군주의 총애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대개 자기 물건 가운데 가장 아끼는 것이나 군주가 가장 기뻐하리라 여기는 것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군주들이 말과 무기, 금실로 짠 비단, 보석, 그 밖에 그 위엄에 어울리는 갖가지 장식품을 선물로 받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전하[1]를 섬기는 제 마음의 증표를 하나 들고 전하 앞에 나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 세간을 아무리 뒤져 보아도, 오늘날의 일을 오래 겪고 옛일을 쉼 없이 읽으며 배운 위인들의 행적에 관한 앎보다 더 아끼거나 그만큼 귀히 여기는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공들여 궁리하고 따져 보았으며, 이제 작은 책 한 권으로 엮어 전하께 보내 드립니다. 이 책이 전하 앞에 내놓기에 모자라다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너그러우신 전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제가 그 오랜 세월 숱한 고초와 위험을 겪으며 깨친 모든 것을 전하께서 아주 짧은 시간에 헤아리실 수 있게 해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을 제가 드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책을 길게 늘어진 문장이나 과장되고 거창한 낱말로 채우지 않았고, 많은 이들이 자기 글을 쓰고 꾸밀 때 흔히 덧붙이는, 환심을 사려는 겉치레나 바깥에서 덧댄 꾸밈도 달지 않았습니다. 이 책이 아무것으로도 꾸며지지 않거나, 다만 다룬 일의 다채로움과 주제의 무게만으로 환영받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또한 낮고 미천한 신분의 사람이 감히

군주의 통치를 논하고 그 법도를 세우려 든다고 해서 주제넘다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풍경을 그리는 화가가 산과 높은 곳의 생김새를 살피려면 낮은 들판에 자리를 잡고 낮은 곳의 생김새를 살피려면 산 위 높은 곳에 올라서듯이, 인민의 본성을 잘 알려면 군주여야 하고 군주의 본성을 잘 알려면 인민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하, 제가 보내 드리는 마음 그대로 이 작은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전하께서 이 책을 찬찬히 살피며 읽으신다면, 운명과 전하의 다른 자질들이 약속하는 그 위대함에 전하께서 이르시기를 바라는 저의 간절한 소망을 그 안에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그 높은 자리 꼭대기에서 이따금 이 낮은 곳으로 눈길을 돌리신다면, 제가 운명의 크고 끈질긴 악의[2]를 얼마나 부당하게 견디고 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

1. 로렌초 데 메디치(1492~1519). 로렌초 일 마니피코의 손자로, 1513년부터 피렌체를 실제로 다스렸고 1516년 우르비노 공작이 되었다.

2. 1512년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로 돌아오자 마키아벨리는 공직에서 쫓겨났고, 이듬해 초 반메디치 음모에 연루된 혐의로 투옥과 고문을 겪은 뒤 시골 농장으로 물러나 이 책을 썼다.

1장 — 군주국에는 몇 가지가 있으며, 어떻게 얻는가

사람들을 다스려 왔고 지금도 다스리는 모든 국가, 모든 통치권은 공화국 아니면 군주국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군주국은 그 군주의 혈통이 오랫동안 군주 자리를 이어 온 세습 군주국이거나, 새로 생긴 신생 군주국이다. 신생 군주국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1]에게 밀라노가 그랬듯이 송두리째 새로운 것이거나, 스페인 왕[2]에게 나폴리 왕국이 그렇듯이 그것을 얻은 군주의 세습 국가에 팔다리처럼 덧붙은 것이다. 이렇게 얻은 영토는 한 군주 밑에서 사는 데 익숙하거나, 자유롭게 사는 데 익숙하다. 그리고 그 영토를 얻는 길은 남의 군대냐 자기 군대냐, 운명(fortuna)이냐 역량(virtù)이냐로 갈린다.

---

1. 프란체스코 스포르차(1401~1466). 용병대장 출신으로 1450년 밀라노 공작이 되었다.

2.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1452~1516). 1504년 프랑스를 몰아내고 나폴리 왕국을 차지했다.

2장 — 세습 군주국에 대하여

공화국에 관해서는 다른 곳에서 길게 논한 적이 있으니[1] 여기서는 접어 두겠다. 이제 군주국만 살피려 한다. 앞에서 걸어 둔 날실에 씨실을 엮어 가듯 논의를 짜 나가면서, 이런 군주국을 어떻게 다스리고 지켜 낼 수 있는지 따져 보겠다.

그러니 내 말은 이렇다. 군주의 혈통에 길든 세습 국가는 신생 국가보다 지키기가 훨씬 덜 어렵다. 선대가 세운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그다음에는 닥쳐오는 일에 맞춰 때를 보아 가며 대처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군주는 웬만한 수완만 있어도, 유별나고 엄청난 힘이 권력을 앗아 가지 않는 한 언제나 그 권력을 지킬 것이며, 설령 빼앗기더라도 빼앗은 자에게 조금이라도 탈이 나면 곧 되찾는다.

이탈리아에서 예를 들자면 페라라 공작[2]이 있다. 그가 1484년 베네치아인의 공격을, 1510년 교황 율리오의 공격을 견뎌 낸 것도 다른 까닭이 아니라 오로지 그 가문이 오래전부터 그 땅을 다스려 왔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본래의 군주(principe naturale)는 남을 해칠 까닭도 필요도 적다. 그래서 더 사랑받기 마련이고, 유별난 악덕으로 미움을 사지 않는 한 제 신민에게 저절로 호감을 사는 것이 이치에 맞다. 또 통치가 오래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동안 변혁의 기억도, 변혁을 부를 까닭도 사그라든다. 변화는 하나가 일어날 때마다 다음 변화를 이어 쌓을 자리를 남겨 두기 마련이니까.

1. 『리비우스 논고』(『티투스 리비우스의 첫 열 권에 관한 논고』)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2. 마키아벨리는 두 공작을 한 사람처럼 묶어 말한다. 1482~1484년 베네치아와 싸운 에르콜레 1세 데스테(재위 1471~1505)와, 1510년 교황 율리오 2세(재위 1503~1513)의 공격을 받은 그 아들 알폰소 1세(재위 1505~1534)다.

3장 — 혼합 군주국에 대하여

그러나 어려움은 신생 군주국에 있다. 우선 송두리째 새롭지 않고 팔다리처럼 덧붙은 군주국이라면, 그리하여 전체를 합쳐 혼합 군주국이라 부를 만한 나라라면, 그 변란은 무엇보다 모든 신생 군주국에 깃든 자연스러운 어려움에서 생겨난다. 사람들은 형편이 나아지리라 믿고 기꺼이 영주를 바꾼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지금의 영주에게 맞서 무기를 들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나중에 겪어 보고서야 형편이 오히려 나빠졌음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형편이 나빠지는 것은 또 다른 자연스럽고 흔한 필연 때문이다. 새 군주가 되면 그 다스림을 받게 된 사람들을 언제나 해칠 수밖에 없다. 군대를 들여보내서도 그렇고, 새로 얻은 땅에 으레 따라붙는 숱한 다른 침해로도 그렇다. 그래서 새 군주는 그 군주국을 차지하면서 해친 사람들을 모두 적으로 두게 되고,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 준 사람들과도 친구로 지낼 수 없다.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 채워 줄 수도 없고, 그들에게 빚을 졌으니 독한 처방을 쓸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기야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거느린 자라도 한 지역에 들어가려면 언제나 그 지역 사람들의 호의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이런 까닭에 프랑스 왕 루이 12세[1]는 밀라노를 단숨에 차지했다가 단숨에 잃었다. 처음 그에게서 밀라노를 빼앗는 데는 루도비코[,2] 혼자 힘으로도 충분했다. 루이에게 성문을 열어 준 인민이 자기들의 생각과 기대했던 앞날의 이익에 속았음을 알고 나자 새 군주가 끼치는 성가심을 견디지 못했으니까.

물론 반란을 일으킨 땅을 두 번째로 얻으면 그때는 쉽게 잃지 않는다. 영주가 반란을 구실로 삼아 죄지은 자를 벌하고 의심 가는 자를 가려내며 가장 약한 곳을 보강해 제 자리를 굳히는 데 거리낌이 덜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루도비코 공작이 국경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만으로도 프랑스가 밀라노를 잃었지만, 두 번째로 잃게 하려면 온 세상이 프랑스에 맞서고 그 군대가 이탈리아에서 궤멸하거나 쫓겨나야 했다.[3] 이는 앞에서 말한 까닭에서 비롯했다. 그런데도 프랑스는 처음에도 두 번째에도 밀라노를 빼앗겼다. 첫 번째 상실의 일반적인 까닭은 이미 논했다. 이제 남은 일은 두 번째 상실의 까닭을 말하고, 프랑스 왕에게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 또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이라면 프랑스보다 정복지를 더 잘 지키려고 어떤 대책을 쓸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정복으로 얻어 정복자의 오래된 국가에 덧붙는 국가는 같은 지역에 있고 같은 언어를 쓰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같은 지역, 같은 언어라면 지키기가 아주 쉽다. 그곳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 본 적이 없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 국가를 안전하게 차지하려면 그곳을 다스리던 군주의 혈통을 끊어 버리기만 하면 된다. 다른 일에서는 예전 형편이 그대로 유지되고 풍습도 다르지 않으니 사람들이 조용히 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프랑스에 속해 온 부르고뉴, 브르타뉴, 가스코뉴, 노르망디에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 이들 사이에는 언어가 조금 다르더라도 풍습이 비슷해서 서로 쉽게 어울려 지낼 수 있다. 이런 땅을 얻어 지키려는 자는 두 가지를 유념해야 한다. 하나는 옛 군주의 혈통을 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곳의 법도 세금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새 땅은 옛 군주국과 한 몸이 된다.

그러나 언어와 풍습과 제도가 다른 지역에서 국가를 얻으면 바로 거기서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국가를 지키려면 운명이 크게 도와야

하고 수완도 뛰어나야 한다. 가장 확실하고 효과가 큰 대책 하나는 정복자가 몸소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 그 땅을 더 안전하게, 더 오래 차지할 수 있다. 튀르크 술탄이 그리스에서 그렇게 했다. 그가 그 국가를 지키려고 다른 온갖 제도를 다 갖추었다 해도, 몸소 그곳에 옮겨 가 살지 않았다면 결코 지킬 수 없었을 것이다. 그곳에 머물면 혼란이 싹트는 것을 보고 곧바로 손쓸 수 있지만, 머물지 않으면 혼란이 커진 뒤에야 소식을 듣게 되고 그때는 이미 손쓸 길이 없다. 게다가 군주의 관리들이 그 지역을 털어 가지 못하고, 신민은 가까이 있는 군주에게 곧장 호소할 수 있어 흡족해하니, 착하게 살려는 신민은 군주를 사랑할 까닭이, 달리 살려는 신민은 군주를 두려워할 까닭이 더 많아진다. 바깥 세력 가운데 그 국가를 치려는 자가 있어도 더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니 군주가 그곳에 사는 한, 그 국가를 잃기란 매우 어렵다.

또 하나의 더 나은 대책은 그 국가의 족쇄라 할 만한 한두 곳에 식민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병과 보병을 많이 주둔시키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하니까. 식민지에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다. 군주는 비용을 들이지 않거나 조금만 들이고도 식민지를 보내 유지할 수 있다. 군주가 해치는 사람은 새 주민에게 내주려고 밭과 집을 거둬들인 이들뿐인데, 그들은 그 국가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해를 입은 이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난하게 지내니 결코 군주를 해칠 수 없다.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한편으로는 해를 입지 않았으니 잠잠히 지낼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빼앗긴 이들과 같은 일을 당할까 두려워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 조심할 것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런 식민지는 비용이 들지 않고 더 충실하며 해를 덜 끼친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해를 입은 자들은 가난하고 흩어져 있어서 해코지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어루만져 주거나 아예 없애

버려야 한다는 점을 새겨 두어야 한다. 사람은 가벼운 해에는 복수하지만 무거운 해에는 복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 남에게 해를 입힐 때는 복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입혀야 한다. 그러나 식민지 대신 군대를 두면 돈이 훨씬 많이 든다. 그 국가에서 거두는 수입을 모조리 수비에 쏟아부어야 하니, 얻은 것이 오히려 손실로 돌아온다. 해도 훨씬 많이 끼친다. 군대를 이곳저곳 옮겨 가며 숙영시키느라 그 국가 전체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 고통은 누구나 겪게 되어 모두가 군주의 적이 된다. 그들은 짓밟혔어도 제 집에 그대로 남아 있으니, 군주를 해칠 수 있는 적이다. 그러니 어느 모로 보나, 식민지로 지키는 일이 쓸모 있는 만큼 군대로 지키는 일은 쓸모가 없다.

또한 앞서 말한 대로 이질적인 지역에 들어선 자는 이웃의 힘 약한 세력에게 우두머리이자 보호자가 되어 주고, 그 지역의 강한 세력은 약하게 만들려고 애써야 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만큼 강한 외세가 그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그런 외세는 언제나 그 지역에서 지나친 야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끌어들이기 마련이다. 일찍이 아이톨리아인이 로마인을 그리스로 끌어들였고[4], 로마인이 들어간 다른 모든 지역에서도 그곳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들였다. 일의 이치는 이렇다. 강한 외세가 어떤 지역에 들어오자마자, 그곳의 힘 약한 자들은 모두 그에게 붙는다. 자기들 위에서 힘을 부려 온 자를 시기해 온 탓이다. 그러니 외세는 이 약한 자들을 제 편으로 만드는 데 아무 수고도 들일 필요가 없다. 그들이 곧바로 다 함께 그가 그곳에서 얻은 국가와 한 덩어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이 지나치게 큰 힘과 권위를 쥐지 않도록 마음 쓰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제 힘과 그들의 지지로 강한 자들을 손쉽게 끌어내리고, 그 지역을 온전히 좌지우지하는 자로 남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얻은 것을 곧 잃을 것이고, 지키는 동안에도 그 안에서 끝없는 어려움과 골칫거리에 시달릴 것이다.

로마인은 자기들이 차지한 지역에서 이 원칙을 잘 지켰다. 식민지를 보냈고, 힘 약한 자들은 힘을 키워 주지 않으면서 잘 구슬려 두었으며, 강한 자들은 끌어내렸고, 강한 외세가 그곳에서 명성을 얻지 못하게 했다. 예로는 그리스 지역 하나만 들어도 충분하겠다. 로마인은 아카이아인과 아이톨리아인을 구슬려 두었고, 마케도니아 왕국을 끌어내렸으며, 안티오코스를 몰아냈다. 그러면서도 아카이아인이나 아이톨리아인이 아무리 공을 세워도 그들이 영토를 조금이라도 늘리도록 허락하지 않았고, 필리포스가 아무리 설득해도 그를 낮추지 않고서는 친구로 삼지 않았으며, 안티오코스의 힘이 아무리 커도 그가 그 지역에 한 뼘의 영토라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것은 로마인이 이런 경우에 지혜로운 군주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군주는 눈앞의 분란만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분란까지 살피고, 온갖 수완을 다해 그것을 막아야 한다. 멀리서 내다보면 쉽게 손쓸 수 있지만, 코앞에 닥치기를 기다리면 병이 이미 고칠 수 없게 되어 약이 제때 듣지 않는다. 의사들이 몸을 서서히 말려 가는 소모열(etico)을 두고 하는 말이 여기에 꼭 들어맞는다. 이 병은 처음에는 고치기는 쉬워도 알아보기가 어렵지만,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고 치료하지도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알아보기는 쉬워도 고치기는 어려워진다. 나랏일도 그렇다. 화근을 멀리서 알아보는 일은 분별 있는 사람에게만 허락되지만, 그렇게만 하면 국가 안에서 생겨나는 화근은 금세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알아보지 못해 누구나 알아볼 만큼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그때는 손쓸 길이 없다.

그래서 로마인은 화근을 멀리서 내다보고 언제나 손을 썼다. 전쟁을 피하려고 화근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는 일은 결코 없었다. 전쟁은

없어지지 않고 남에게 유리하게 미뤄질 뿐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필리포스, 안티오코스와 이탈리아에서 싸우지 않으려고 그리스에서 싸우는 쪽을 택했다. 그때는 두 전쟁을 모두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려 하지 않았다. 우리 시대의 지혜로운 이들이 날마다 입에 올리는 말, 곧 시간이 주는 혜택을 누리라는 말을 로마인은 한 번도 반기지 않았다. 그들이 누리려 한 것은 자기들의 역량과 분별이 주는 혜택이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앞으로 몰고 가며, 좋은 일과 함께 나쁜 일도, 나쁜 일과 함께 좋은 일도 데려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 앞서 말한 일 가운데 하나라도 프랑스가 했는지 따져 보자. 나는 샤를[5]이 아니라 루이를 이야기하겠다. 루이는 이탈리아를 더 오래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가 걸어온 길을 더 잘 살필 수 있다. 그러면 이질적인 국가를 지키려면 해야 할 일을 그가 정반대로 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베네치아인의 야심이 루이 왕을 이탈리아로 불러들였다. 베네치아인은 그가 오는 틈을 타 롬바르디아 영토의 절반을 손에 넣으려 했다. 나는 왕이 내린 이 결정을 탓하고 싶지 않다. 왕은 이탈리아에 발을 들여놓으려 했지만 이 지역에는 친구가 없었고, 오히려 샤를 왕의 처신 탓에 모든 문이 닫혀 있었으니, 손잡을 수 있는 상대라면 누구든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다른 일 처리에서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면 잘 내린 그 결정은 성공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롬바르디아를 얻자 왕은 샤를 때문에 잃었던 명성을 곧바로 되찾았다. 제노바가 굴복했고, 피렌체인이 그의 친구가 되었다. 만토바 후작, 페라라 공작, 벤티볼리오 가문, 포를리 백작 부인, 파엔차와 페사로와 리미니와 카메리노와 피옴비노의 영주, 루카인, 피사인, 시에나인이 저마다 그를 맞으러 나와 친구가 되기를 청했다. 그제야 베네치아인은 자기들이 내린 결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달을 수 있었다. 롬바르디아에서 도시 두

곳[6]을 얻으려다가 왕을 이탈리아 3분의 2의 영주로 만들어 주었으니 말이다.

이제 왕이 앞서 말한 규칙을 지키고 친구들을 모두 안전하게 지켜 주었다면 이탈리아에서 명성을 지키기가 얼마나 쉬웠을지 생각해 보자. 그 친구들은 수가 많은 데다 약하고 겁이 많아서, 누구는 교회를, 누구는 베네치아인을 두려워했으니 언제나 왕 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왕은 그들을 발판 삼아 이탈리아에 남아 있던 강자들을 손쉽게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왕은 밀라노에 들어서자마자 정반대로 했다. 교황 알렉산데르[7]가 로마냐를 차지하도록 거들었다. 왕은 이 결정으로 자신은 약해지고 교회는 커진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친구들과 제 품에 뛰어든 자들을 스스로 떨쳐 냈고, 교회에는 그토록 큰 권위를 안겨 주는 영적 권력에 그만큼 큰 세속 권력까지 보태 주었으니 말이다. 한번 첫 잘못을 저지르자 그는 계속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알렉산데르의 야심에 제동을 걸고 그가 토스카나의 영주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몸소 이탈리아로 내려와야 했다. 교회를 키워 주고 친구들을 떨쳐 낸 것으로도 모자라, 그는 나폴리 왕국을 탐내어 그것을 스페인 왕과 나누었다.[8] 그리하여 전에는 혼자서 이탈리아를 좌지우지하던 그가 그곳에 동반자를 들였고, 이 지역에서 야심을 품거나 그에게 불만을 품은 자들이 기댈 곳을 마련해 주었다. 또 그 왕국에 자기에게서 연금을 받는 왕을 남겨 둘 수 있었는데도 그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를 몰아낼 수 있는 자를 그 자리에 앉혔다.

얻고 싶어 하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럽고 흔한 욕망이다. 사람들이 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면 언제나 칭찬을 받거나, 적어도 비난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할 수 없는데도 어떻게든 하려 들면 거기에 잘못이 있고 비난이 따른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제 힘으로 나폴리를 칠 수 있었다면 쳐야 했고, 칠 수 없었다면 나누지 말았어야 했다. 베네치아인과

롬바르디아를 나눈 일은 그 덕분에 이탈리아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용서받을 만했다. 그러나 이번 분할은 그런 필요로 변명할 수 없으니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루이는 다섯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힘 약한 자들을 없앴고, 이탈리아에서 이미 강한 자의 힘을 더 키워 주었고, 아주 강한 외세를 이탈리아에 끌어들였고, 몸소 와서 살지 않았고, 식민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래도 여섯째 잘못, 곧 베네치아인의 영토를 빼앗는 잘못만 저지르지 않았다면[9], 이 다섯 가지 잘못은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를 해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교회를 키우지 않고 스페인을 이탈리아에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베네치아인을 끌어내리는 것은 충분히 이치에 맞고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앞의 결정들을 이미 내린 이상, 결코 그들의 몰락에 동의해서는 안 되었다. 베네치아인이 강하게 남아 있었다면 다른 세력들이 롬바르디아를 넘보지 못하게 늘 막아 주었을 것이니 말이다. 베네치아인은 자기들이 롬바르디아의 영주가 되지 않는 한 남이 그곳에 손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세력들은 롬바르디아를 프랑스에게서 빼앗아 베네치아인에게 넘겨줄 생각이 없었을 것이며, 그렇다고 프랑스와 베네치아를 한꺼번에 들이받을 배짱도 없었을 것이다. 누군가 루이 왕이 전쟁을 피하려고 알렉산데르에게 로마냐를, 스페인에게 나폴리 왕국을 내주었다고 말한다면, 나는 앞서 든 이유를 들어 이렇게 답하겠다. 전쟁을 피하려고 혼란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전쟁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하게 미뤄질 뿐이니까. 또 누군가 왕이 자신의 혼인 무효 선언과 루앙 대주교[10]에게 내릴 추기경 모자를 대가로 교황을 위해 그 원정을 해 주겠다고 신의를 걸고 약속했다는 점을 내세운다면, 나는 군주의 신의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해 뒤에서 할 이야기로 답하겠다. 그러니 루이 왕은 지역을 차지해 계속

쥐고 있으려 한 다른 이들이 따른 원칙을 하나도 따르지 않아서 롬바르디아를 잃었다. 이는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라 아주 흔하고 이치에 맞는 일이다. 나는 이 문제를 낭트에서 루앙 추기경과 이야기한 적이 있다. 흔히 발렌티노 공작이라 불리던, 교황 알렉산데르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가 로마냐를 차지하고 있을 때였다. 루앙 추기경이 내게 이탈리아인은 전쟁을 모른다고 하기에, 나는 프랑스인은 나랏일을 모른다고 대꾸했다. 나랏일을 안다면 교회가 그토록 커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테니까. 경험으로 드러났듯이, 이탈리아에서 교회와 스페인이 커진 것은 프랑스 탓이었고, 프랑스가 몰락한 것은 그 둘 탓이었다. 여기서 결코, 아니면 거의 틀리지 않는 일반 법칙 하나를 끌어낼 수 있다. 남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자는 스스로 망한다. 그 힘은 그가 수완으로든 무력으로든 만들어 준 것인데, 강해진 자에게는 수완도 무력도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

1. 루이 12세(1462~1515, 재위 1498~1515). 1499년 밀라노를 점령했으나 이듬해 2월 루도비코에게 빼앗겼고, 4월에 되찾았다.

2. 루도비코 스포르차(1452~1508), 별명 일 모로. 1494년 밀라노 공작이 되었고, 1500년 4월 노바라에서 사로잡혀 프랑스에서 갇힌 채 죽었다.

3. 1511년 교황 율리오 2세가 베네치아, 스페인과 맺고 잉글랜드와 스위스가 가세한 신성 동맹을 가리킨다. 프랑스군은 1512년 라벤나에서 이기고도 이탈리아에서 물러났다.

4. 기원전 211년 아이톨리아 동맹이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5세에 맞서 로마와 손잡았다. 로마는 기원전 197년 키노스케팔라이에서 필리포스 5세를, 191년 테르모필라이에서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3세를 꺾었다.

5. 샤를 8세(1470~1498, 재위 1483~1498). 1494년 나폴리 왕국을 노리고 이탈리아로 쳐들어가 이듬해 나폴리를 차지했으나 곧 물러났다.

6. 1499년 블루아 조약으로 베네치아는 루이 12세와 함께 밀라노 공국을 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크레모나와 기아라다다를 받았다.

7. 알렉산데르 6세(1431~1503, 재위 1492~1503). 루이 12세는 1499년부터 교황의 아들 체사레 보르자(1475~1507)의 로마냐 정복에 군대를 빌려주었고, 1502년 체사레가 토스카나를 넘보자 몸소 이탈리아로 내려왔다.

8. 1500년 그라나다 조약으로 루이 12세와 스페인의 페르난도가 나폴리 왕 페데리코(재위 1496~1501)를 몰아내고 왕국을 나누기로 했다. 두 왕은 곧 다투었고, 1504년 나폴리 왕국은 스페인 차지가 되었다.

9. 1508년 캉브레 동맹. 루이 12세는 율리오 2세, 막시밀리안 황제, 스페인과 손잡고 1509년 바일라(아냐델로)에서 베네치아군을 쳐부수었다.

10. 조르주 당부아즈(1460~1510), 루이 12세의 재상. 알렉산데르 6세는 1498년 왕의 첫 혼인을 무효로 해 주고 당부아즈를 추기경으로 세웠다. 마키아벨리는 1500년 피렌체 사절로 프랑스 궁정에 가서 그를 만났다.

4장 — 알렉산드로스가 정복한 다리우스 왕국은 왜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뒤에도 후계자들에게 반기를 들지 않았는가

새로 얻은 국가를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해 보면, 누군가는 이런 일을 이상하게 여길 법하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불과 몇 해 만에 아시아의 주인이 되었고 그 땅을 차지하자마자 죽었으니, 그 국가 전체가 반기를 드는 것이 이치에 맞아 보였다. 그런데도 알렉산드로스의 후계자들은 그 국가를 지켜 냈고, 지키면서 겪은 어려움이라고는 저희끼리 제 야심 때문에 빚은 다툼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기록에 남은 군주국들을 보면 다스리는 틀이 서로 다른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군주 한 사람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모두 종인 나라로, 종들은 군주의 은혜와 허락을 받아 신하로서 그 왕국의 통치를 돕는다. 다른 하나는 군주 한 사람과 제후들이 다스리는 나라로, 제후들은 영주의 은혜가 아니라 오래된 혈통 덕분에 그 지위를 누린다. 이런 제후들은 저마다 제 영지와 신민을 거느리고, 신민은 그들을 영주로 받들며 자연스러운 애정을 품는다. 군주 한 사람과 종들이 다스리는 국가에서는 군주의 권위가 더 크다. 그가 다스리는 지역 어디에서도 군주 말고는 아무도 윗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민이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하더라도 그를 군주의 신하이자 관리로 대할 뿐, 그에게 각별한 애정을 품지는 않는다.

우리 시대에 이 두 가지 통치를 보여 주는 본보기가 튀르크 술탄과 프랑스 왕이다. 튀르크 술탄의 왕국은 통째로 한 주인이 다스리고, 나머지는 모두 그의 종이다. 술탄은 왕국을 여러 산자크[1]로 나누어 저마다 다른 관리를 보내고, 제 마음 내키는 대로 그들을 갈아 치우고 바꾼다. 그러나 프랑스 왕은 예부터 내려온 수많은 영주들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 이 영주들은 그 나라 안에서 저마다 제 신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저마다 특권을 누리는데, 왕은 제 몸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그 특권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두 국가를 견주어 보는 사람은, 튀르크 술탄의 국가는 얻기는 어렵지만 일단 이기고 나면 지키기가 아주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튀르크 술탄의 왕국을 차지하기 어려운 까닭은, 침략자가 그 왕국의 유력자들에게서 초청을 받을 수도 없고 술탄 곁에 있는 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제 일을 쉽게 해 주리라 기대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이유에서 나온다. 그들은 모두 술탄의 종이고 그에게 매인 몸이라 매수하기가 더 어렵고, 설령 매수한다 해도 얻을 것이 별로 없다. 앞서 든 이유로, 그들은 인민을 이끌고 따라오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튀르크 술탄을 치는 자는 상대가 하나로 뭉쳐 있으리라 각오해야 하고, 남의 분열보다 제 힘에 더 기대를 걸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술탄을 이기고, 다시는 군대를 일으키지 못할 만큼 들판의 싸움에서 깨뜨려 놓으면, 걱정할 것은 군주의 혈통밖에 없다. 그 혈통만 끊으면 두려워할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는다. 다른 자들은 인민에게 신망이 없으니까. 승자는 승리하기 전에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듯이, 승리한 뒤에도 그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프랑스처럼 다스려지는 왕국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진다. 그 왕국의 제후 몇 사람만 제 편으로 끌어들이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 불만을 품은 자와 변화를 바라는 자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니까. 앞서 말한 이유로

이들은 그 국가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 주고 승리를 쉽게 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자리를 지키려 들면 그 승리는 끝없는 어려움을 몰고 오고, 그 어려움은 자기를 도와준 자들에게서도 자기가 짓밟은 자들에게서도 생긴다. 군주의 혈통을 끊는 것으로도 모자란다. 새로운 변란이 일어날 때마다 앞장설 영주들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 없애 버릴 수도 없으니, 기회만 오면 언제든 그 나라를 잃고 만다.

이제 다리우스[2]의 통치가 어떤 성질이었는지 살펴보면, 튀르크 술탄의 왕국과 닮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드로스는 먼저 다리우스를 전력으로 들이쳐 들판에서 몰아내야 했다. 이 승리 뒤 다리우스가 죽자, 앞서 따져 본 이유로 그 국가는 알렉산드로스의 손에 안전하게 남았다. 그의 후계자들도 하나로 뭉쳐 있었다면 그 나라를 편안히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 왕국에서는 그들 스스로 일으킨 소란 말고는 아무 소란도 일어나지 않았다.[3] 그러나 프랑스처럼 짜인 국가는 그렇게 조용히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다. 스페인과 프랑스와 그리스가 로마인에게 자주 반기를 든 것도[4] 여기서 비롯되었다. 그 나라들 안에 군주국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군주국들이 기억에 남아 있는 동안 로마인은 그 땅을 손에 쥐고서도 늘 불안했다. 그러나 그 기억이 사라지자, 로마인은 제국의 힘과 오랜 지배에 힘입어 그 땅의 확고한 주인이 되었다. 뒷날 로마인끼리 싸울 때에도 저마다 그 속주들에서 쌓은 권위에 따라 그 일부를 제 편으로 끌어갈 수 있었다. 그 속주들은 옛 영주의 혈통이 끊어졌으므로 로마인 말고는 누구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헤아려 보면, 알렉산드로스가 아시아의 국가를 손쉽게 지킨 일이나 피로스[5]를 비롯한 여러 사람이 얻은 것을 지키느라 애먹은 일을 두고 놀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정복자의 역량이 크고 작은 데서 생긴 일이 아니라, 정복한 대상의 성질이 서로 달랐던 데서 생긴 일이다.

---

1. 산자크(sancak)는 오스만 제국의 행정 구역이다. 술탄이 임명한 관리가 다스렸고, 술탄은 그 관리를 마음대로 바꾸었다.

2.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재위 기원전 336~330). 기원전 331년 가우가멜라에서 알렉산드로스에게 진 뒤 이듬해 부하에게 살해되었다.

3. 기원전 323년 알렉산드로스가 죽자 그의 장군들(디아도코이)이 제국을 나누어 차지하려고 40여 년 동안 서로 싸웠다.

4. 고대의 히스파니아, 갈리아, 그리스. 마키아벨리는 이 지역들을 당대 지명으로 부른다.

5.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기원전 319~272). 이탈리아와 시칠리아에서 싸움에 이기고도 얻은 땅을 지키지 못했다.

5장 — 정복되기 전에 제 법을 따라 살던 도시나 군주국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앞에서 말했듯이, 새로 얻은 국가가 제 법을 따르며 자유롭게 사는 데 익숙하다면 그 국가를 지키는 길은 세 가지다. 첫째는 그곳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고, 둘째는 몸소 가서 사는 것이며, 셋째는 제 법대로 살게 내버려 두면서 공물을 거두고 그 안에 소수가 다스리는 정부를 세워 그곳이 계속 우호적으로 남게 하는 것이다. 그 정부는 그 군주가 세운 것이므로, 군주의 우호와 힘 없이는 버틸 수 없음을 알고 군주를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자유롭게 사는 데 익숙한 도시를 보존하면서 다스리려 한다면, 그 도시의 시민을 내세우는 편이 다른 어떤 길보다 쉽다.

그 본보기로 스파르타인과 로마인이 있다. 스파르타인은 아테네와 테베에 소수 정부를 세워 그 도시들을 손에 넣었지만, 결국 다시 잃었다.[1] 로마인은 카푸아와 카르타고와 누만티아를 지키려고 그 도시들을 허물었고, 그래서 잃지 않았다.'[2] 로마인은 스파르타인과 거의 다름없는 길로 그리스를 지키려 했다. 그리스를 자유롭게 풀어 주고 제 법을 그대로 쓰게 했지만'[3] 뜻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그 지방을 지키려고 그곳의 많은 도시를 허물 수밖에 없었다. 사실 그런 도시를 확실히 차지하는 길은 허무는 것밖에 없다. 자유롭게 사는 데 익숙한 도시의 주인이 되고서도 그 도시를 허물지 않는 자는 거꾸로 그 도시 손에

허물어질 날을 각오해야 한다. 그런 도시는 반란을 일으킬 때마다 자유라는 이름과 옛 제도를 피난처로 삼는데, 그 이름과 제도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결코 잊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하든 어떤 대비를 하든, 주민을 갈라놓거나 흩어 버리지 않는 한 그들은 그 이름도 그 제도도 잊지 않고, 무슨 일만 생기면 곧바로 거기에 기댄다. 피사가 피렌체인에게 예속된 지 백 년 만에 그렇게 했다.[4] 그러나 도시나 지방이 군주 밑에서 사는 데 익숙하고 그 군주의 혈통이 끊겼다면 사정이 다르다.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복종하는 데 길들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옛 군주를 잃었다. 저희끼리 새 군주를 세우자니 뜻이 모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자니 그럴 줄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무기를 드는 데 더디고, 새 군주는 그들을 더 쉽게 제 편으로 끌어들여 마음을 놓을 수 있다. 그러나 공화국에는 더 큰 생기와 더 깊은 미움과 더 강한 복수심이 있다. 옛 자유의 기억이 그들을 쉬게 두지 않고, 쉬게 둘 수도 없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길은 그 공화국을 없애 버리거나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다.

---

1. 스파르타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이긴 뒤 기원전 404년 아테네에 30인 정권을 세웠으나 이듬해 무너졌다. 테베에서는 기원전 382년 성채를 차지하고 친스파르타 정권을 세웠으나 기원전 379년 쫓겨났다.

2. 로마는 한니발 편에 섰던 카푸아를 기원전 211년에 함락해 자치 제도를 없앴고, 카르타고는 기원전 146년, 히스파니아의 누만티아는 기원전 133년에 무너뜨렸다.

3. 기원전 196년 티투스 퀸크티우스 플라미니누스가 그리스 도시들의 자유를 선언했다. 그러나 반란이 이어지자 로마는 기원전 146년 코린트를 파괴하고 그리스를 로마의 통제 아래 두었다.

4. 피렌체는 1406년 피사를 정복했다. 1494년 샤를 8세가 이탈리아로 쳐들어오자 피사는 반란을 일으켜 1509년까지 독립을 지켰다. 실제로는 예속된 지 88년 만의 일이다.

6장 — 자기 군대와 역량으로 얻은 신생 군주국에 대하여

군주도 국가도 완전히 새로운 군주국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주 위대한 본보기들을 끌어오더라도 아무도 놀라지 말기를 바란다. 사람은 거의 언제나 남이 닦아 놓은 길을 걷고 남을 본떠 행동하지만, 남의 길을 끝까지 그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본뜨려는 상대의 역량에 다다를 수도 없다. 그러므로 분별 있는 사람은 언제나 위대한 사람들이 닦아 놓은 길로 들어서서 가장 뛰어났던 이들을 본떠야 한다. 그래야 제 역량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그 향기쯤은 풍길 수 있다. 분별 있는 궁수들처럼 해야 한다. 궁수는 맞히려는 곳이 너무 멀어 보이고 제 활의 힘(virtù)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면, 과녁보다 훨씬 높은 곳을 겨냥한다. 화살을 그만큼 높이 날려 보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높이 겨냥해야 노린 곳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말은 이렇다. 새 군주가 들어선 완전히 새로운 군주국을 지키는 어려움은, 그 나라를 얻은 자가 얼마나 역량 있느냐에 따라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다. 평범한 개인이 군주가 되는 일에는 역량이든 운명이든 어느 하나가 깔려 있게 마련이므로, 둘 중 어느 쪽이든 많은 어려움을 얼마간 덜어 주는 듯하다. 그런데도 운명에 덜 기댄 자가 더 오래 자리를 지켰다. 군주에게 다른 나라가 없어서 몸소 그곳에 가 살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일을 쉽게 해 준다. 그러나 운명이 아니라 제 역량으로 군주가 된 자들 이야기로 들어가자면, 나는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로 모세, 키루스[1], 로물루스,

테세우스 같은 이들을 꼽겠다. 모세는 신께서 명하신 일을 그저 실행했을 뿐이니 따져 볼 대상이 아니라 하겠지만, 신과 이야기를 나눌 자격을 얻게 해 준 그 은총 하나만으로도 우러러볼 만하다. 이제 키루스를 비롯해 왕국을 얻거나 세운 다른 이들을 살펴보자. 모두 경탄할 만한 인물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 각자의 행적과 제도를 들여다보면, 그토록 위대한 스승을 모셨던 모세의 것과 조금도 어긋나지 않아 보일 것이다. 그들의 행적과 삶을 살펴보아도, 운명에게서 기회 말고 다른 무엇을 받은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기회가 재료를 주었고, 그들은 그 재료에 저마다 좋다고 여긴 형상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그 기회가 없었다면 그들 정신의 역량은 꺼져 버렸을 것이고, 그 역량이 없었다면 기회는 헛되이 왔다 갔을 것이다. 그러니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인민이 이집트에서 이집트인의 종이 되어 억눌려 있어야 했다. 그래야 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기꺼이 모세를 따를 터였다. 로물루스가 로마의 왕이자 그 조국의 건설자가 되려면, 알바에 그가 설 자리가 없어야 했고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야 했다.[2] 키루스에게는 메디아인의 지배에 불만을 품은 페르시아인과, 오랜 평화에 물러지고 나약해진 메디아인이 있어야 했다. 테세우스도 아테네인이 흩어져 있지 않았다면 제 역량을 보여 줄 수 없었다.[3]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만나 성공했고, 빼어난 역량으로 그 기회를 알아보았다. 그 덕분에 그들의 조국은 이름을 떨치고 더없이 번영했다.

이들처럼 역량의 길을 걸어 군주가 된 자들은 군주국을 얻기는 어렵지만 지키기는 쉽다. 군주국을 얻을 때 겪는 어려움은 얼마간, 자기 국가와 자기 안전을 다지려고 들여올 수밖에 없는 새 제도와 방식에서 생긴다. 앞장서서 새 제도를 들여오는 일만큼 손대기 어렵고,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고, 다루기 위태로운 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새 제도를 들여오는 자에게는 옛 제도 덕을 보던 자가 모두 적이 되고, 새

제도 덕을 볼 자들은 모두 미적지근한 옹호자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 미적지근함은 한편으로는 법을 제 편에 둔 적수들이 두려워서 생기고,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쉽게 믿지 않아서 생긴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직접 겪어 확실히 확인하기 전에는 참으로 믿지 않는다. 그래서 적들은 공격할 기회가 올 때마다 한패가 되어 거세게 덤벼들고, 나머지는 미적지근하게 막아 낸다. 결국 새 제도를 들여온 자는 그 옹호자들과 함께 위태로워진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제대로 논하려면 이런 개혁자들이 제 힘으로 서 있는지, 아니면 남에게 기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말하자면 일을 이루려고 남에게 빌어야 하는지, 아니면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앞의 경우라면 그들은 언제나 끝이 나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제 힘에 기대고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면 위태로워지는 일이 드물다. 무장한 예언자는 모두 이겼고 무장하지 않은 예언자는 모두 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말한 것들 말고도 인민의 본성이 변덕스럽기 때문이다. 인민에게 무언가를 믿게 하기는 쉬워도, 그 믿음을 붙들어 두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들이 더는 믿지 않을 때 힘으로라도 믿게 만들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춰 두어야 한다. 모세, 키루스, 테세우스, 로물루스도 무장하지 않았더라면 자신들이 세운 법을 오래도록 지키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시대에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수사[4]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랬다. 무리가 믿음을 거두기 시작하자 그는 자기가 세운 새 제도와 함께 무너졌다. 그에게는 믿었던 자들을 붙들어 둘 수단도,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할 수단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자들은 일을 해 나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위험이 가는 길 위에 놓여 있으니 역량으로 이겨 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위험을 이겨 내고 사람들의 공경을 받기 시작하면, 그리고 자신의 자질을 시기하던 자들을 없애고 나면, 그들은 강하고, 안전하고, 존경받고, 행복한 자로 남는다.

이렇게 높은 본보기들에 나는 그보다 작은 본보기 하나를 덧붙이고자 한다. 그래도 앞의 것들과 견줄 만한 데가 있으니, 비슷한 다른 모든 예는 이것 하나로 대신하겠다. 시라쿠사의 히에론[5]이다. 그는 평범한 개인에서 시라쿠사의 군주가 되었다. 그 역시 운명에게서 받은 것이라고는 기회밖에 없었다. 억눌려 있던 시라쿠사인들이 그를 지휘관으로 뽑았고, 그 자리에서 공을 인정받아 그들의 군주로 올라섰다. 그는 평범한 처지에 있을 때도 역량이 대단해서, 그에 관해 쓴 사람은 "그에게는 다스리는 데 왕국 말고는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했다.[6] 그는 옛 군대를 없애고 새 군대를 짰으며 옛 동맹을 버리고 새 동맹을 맺었고, 온전히 제 것인 동맹과 병사를 갖추자 그 토대 위에 어떤 건물이든 지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얻는 데는 무척 애를 썼지만 지키는 데는 별로 애쓰지 않았다.

---

1.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키루스 2세(재위 기원전 559 무렵~530). 메디아 왕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인을 일으켜 세웠다.

2. 전설에 따르면 로물루스와 쌍둥이 동생 레무스는 알바 롱가의 왕녀에게서 태어났으나, 왕위를 빼앗은 아물리우스의 명령으로 티베르강에 버려졌다.

3. 아테네의 전설적인 왕. 아티카 곳곳에 흩어져 살던 주민을 아테네 한 도시로 모았다고 전한다.

4. 지롤라모 사보나롤라(1452~1498). 도미니코회 수사. 1494년 메디치 가문이 쫓겨난 뒤 피렌체 정치를 이끌었으나, 1497년 파문당했고 이듬해 시민의 지지를 잃자 붙잡혀 화형당했다.

5. 히에론 2세(기원전 308 무렵~215). 기원전 275년 무렵 시라쿠사의 지휘관으로 뽑혔고, 기원전 270년 무렵 왕이 되었다.

6. 유스티누스, 《필리포스 역사 개요》 23권 4장. 마키아벨리는 원문을 조금 바꾸어 인용했다. 라틴어: quod nihil illi deerat ad regnandum praeter regnum.

7장 — 남의 군대와 운명으로 얻은 신생 군주국에 대하여

오로지 운명 덕분에 평범한 개인에서 군주가 된 자들은 군주가 되는 데는 별로 애쓰지 않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데는 무척 애를 쓴다. 가는 길에서는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는다. 날아서 가니까. 모든 어려움은 자리에 앉은 다음에 생긴다. 돈을 주고 국가를 얻었거나, 국가를 내주는 사람의 호의로 받은 자들이 그렇다. 그리스의 많은 이들, 곧 이오니아와 헬레스폰토스의 도시들에서 다리우스[1]가 군주로 세운 자들이 그랬다. 다리우스는 제 안전과 영광을 위해 그 도시들을 지키게 하려고 그들을 세웠다. 평범한 개인으로 있다가 병사들을 매수해 제위에 오른 황제들도 그렇게 군주가 되었다. 이런 자들은 오로지 자기에게 국가를 내준 사람의 뜻과 운명에 기대어 서 있는데, 그 둘은 몹시 변덕스럽고 불안정하다. 게다가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킬 줄도 모르고 지킬 수도 없다. 지킬 줄 모르는 까닭은, 줄곧 평범한 처지로 살아온 사람이 대단한 재능과 역량을 지니지 않고서야 명령하는 법을 알 리 없기 때문이다. 지킬 수 없는 까닭은, 자기에게 우호적이고 충성스러운 군대가 없기 때문이다. 또 갑자기 생겨난 국가는 빨리 싹트고 빨리 자라는 자연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뿌리와 잔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해서, 처음 닥친 궂은 날씨에 꺾이고 만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그렇게 갑자기 군주가 된 자가 대단한 역량을 지녀서, 운명이 제 품에 안겨 준 것을

지킬 채비를 곧바로 갖출 줄 알고, 남들이 군주가 되기 전에 다져 놓는 토대를 군주가 된 뒤에라도 다진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역량으로 군주가 되는 길과 운명으로 군주가 되는 길, 이 두 길에 하나씩 나는 우리 기억에 생생한 시대의 본보기 둘을 들고자 한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체사레 보르자다. 프란체스코는 마땅한 수단을 쓰고 큰 역량을 발휘해 평범한 개인에서 밀라노 공작이 되었고, 온갖 고생 끝에 얻은 것을 별 수고 없이 지켰다. 다른 한편 세간에서 발렌티노 공작이라 불린 체사레 보르자는 아버지의 운명 덕분에 국가를 얻었고, 그 운명과 함께 국가를 잃었다. 남의 군대와 운명이 내준 그 나라들에 제 뿌리를 내리려고, 분별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는 빠짐없이 다 했는데도 그랬다. 앞서 말했듯이 먼저 토대를 다지지 못한 자도 큰 역량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때는 건축가가 고생하고 건물이 위태로워진다. 그러니 공작이 걸어온 길을 모두 살펴보면, 그가 장래의 세력을 위해 큰 토대를 다져 놓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쓸데없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신생 군주에게 그의 행적보다 나은 교훈을 나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가 세운 제도가 그에게 보탬이 되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그의 탓이 아니었다. 운명이 유례없이 지독한 심술을 부린 탓이었다.

알렉산데르 6세는 아들인 공작을 크게 키우려 했으나, 당장의 어려움도 앞날의 어려움도 많았다. 우선 교회의 영토가 아닌 다른 국가의 영주로 아들을 앉힐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교회의 영토를 떼어 주려 들면 밀라노 공작과 베네치아인이 허락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았다. 파엔차와 리미니가 이미 베네치아인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탈리아의 군대, 특히 교황이 부릴 수 있었을 군대는 교황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손에 있었다. 그 군대는 모두 오르시니 가문과 콜론나 가문[2], 그리고 그 일당이 쥐고 있었으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기존 질서를 뒤흔들고 그들의 나라를 어지럽혀야 했다. 그래야 그 일부를 안전하게 차지할 수 있었다. 이 일은 쉬웠다. 베네치아인이 다른 까닭으로 프랑스인을 다시 이탈리아로 불러들이려던 참이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이를 막지 않았을 뿐 아니라, 루이 왕의 예전 혼인을 무효로 해 주어 일을 더 쉽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왕은 베네치아인의 도움과 알렉산데르의 동의를 얻어 이탈리아로 넘어왔다. 왕이 밀라노에 들어서자마자 교황은 로마냐 원정에 쓸 병력을 왕에게서 얻었고, 왕의 명성 덕분에 원정은 막힘없이 허락되었다. 이렇게 공작은 로마냐를 손에 넣고 콜론나 가문을 꺾었다. 그러나 로마냐를 지키며 더 나아가려 하자 두 가지가 발목을 잡았다. 하나는 자기 군대가 충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의 의중이었다. 말하자면 그때까지 써 온 오르시니 가문의 군대가 막상 필요할 때 등을 돌려 더 얻지 못하게 막을 뿐 아니라 이미 얻은 것까지 빼앗지 않을까, 그리고 왕도 똑같이 하지 않을까 걱정했다. 오르시니 가문의 속내는 파엔차를 함락한 뒤 볼로냐를 칠 때 드러났다. 그들이 그 공격에 마지못해 나서는 것이 보였다. 왕에 대해서는, 우르비노 공국을 차지한 뒤 토스카나를 쳤을 때 왕이 그 원정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속내를 알았다. 그래서 공작은 더는 남의 군대와 운명에 기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그는 로마에서 오르시니와 콜론나 두 파벌을 약하게 만들었다. 두 파벌을 따르는 자 가운데 귀족은 모조리 제 편으로 끌어들여 자기 수하의 귀족으로 삼고 후한 녹봉을 주었으며, 저마다의 자질에 맞게 군대 지휘권과 관직을 내려 대우했다. 그러자 몇 달 지나지 않아 그들 마음속에서 옛 파벌에 대한 애착이 사라지고 그 마음이 온통 공작에게로 쏠렸다. 그다음 그는 콜론나 집안 사람들을 흩어 놓은 뒤 오르시니

가문을 쓸어버릴 기회를 기다렸다. 기회는 때맞춰 찾아왔고, 그는 그 기회를 더 잘 썼다. 공작과 교회가 커지는 것이 곧 자신들의 파멸임을 뒤늦게 깨달은 오르시니 가문이 페루자 땅 마조네에서 회합을 열었기 때문이다.[3] 그 회합에서 비롯되어 우르비노의 반란과 로마냐의 소요가 일어났고 공작에게는 끝없는 위험이 닥쳤지만, 그는 프랑스인의 도움으로 그 모두를 이겨 냈다. 명성을 되찾은 공작은 프랑스도 다른 바깥 세력도 믿지 않았고, 그런 세력을 시험대에 올리지 않으려고 속임수 쪽으로 돌아섰다. 그가 속마음을 어찌나 감쪽같이 숨겼던지, 오르시니 가문은 파올로[4]를 내세워 그와 화해하기까지 했다. 공작은 파올로를 안심시키려고 돈과 옷과 말을 주며 할 수 있는 예우를 빠짐없이 다했다. 결국 오르시니 사람들은 순진하게도 시니갈리아까지 와서 공작의 손아귀에 들어갔다.[5] 이렇게 우두머리들을 없애고 그 추종자들을 제 편으로 돌려세우자, 공작은 자기 세력의 토대를 꽤 튼튼하게 다진 셈이 되었다. 그는 로마냐 전체와 우르비노 공국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로마냐를 제 편으로 만들고 그곳 인민을 모두 얻었다고 여겼다. 인민이 살림이 나아지는 맛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대목은 알아 둘 만하고 남들이 본받을 만하므로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공작이 로마냐를 차지하고 보니, 그곳은 무능한 영주들이 다스려 온 땅이었다. 그 영주들은 신민을 바로잡기보다 털어먹었고, 하나로 묶기는커녕 갈라설 빌미만 주었다. 그래서 그 지방에는 도둑질과 싸움과 온갖 방자한 짓이 들끓었다. 공작은 그 지방을 평화롭게 하고 통치자의 손에 복종하게 하려면 좋은 통치를 베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잔인하고 일 처리가 날랜 레미로 데 오르코[6]를 그곳에 앉히고 전권을 주었다. 레미로는 짧은 시간에 그 지방을 평화롭고 하나 된 곳으로 만들어 큰 명성을 얻었다. 그 뒤 공작은 그렇게 지나친 권한은

이제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권한이 미움을 사지 않을까 걱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방 한가운데에 시민 법정을 세워 아주 훌륭한 재판장을 앉히고, 도시마다 그곳에 제 변호인을 두게 했다. 그리고 지난날의 가혹한 조치 때문에 자기가 얼마간 미움을 샀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곳 인민의 마음을 씻어 내고 온전히 제 편으로 만들려고, 혹시 잔인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자기가 아니라 신하의 모진 성정에서 나온 일임을 보여 주려 했다. 공작은 이 일을 기회로 삼아, 어느 날 아침 체세나 광장에 레미로를 두 동강 난 채로 내다 놓게 했다. 그 곁에는 나무토막 하나와 피 묻은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본 인민은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넋이 나갔다.

그러나 떠났던 자리로 돌아가자. 내 말은 이렇다. 공작은 이제 꽤 강해졌고 당장의 위험에서도 얼마간 벗어났다. 제 뜻대로 군대를 갖추었고, 가까이에서 그를 해칠 수 있던 군대를 상당 부분 없앴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 많은 땅을 얻으려 하니 프랑스 왕을 꺼려야 할 일이 남았다. 뒤늦게 제 잘못을 깨달은 왕이 그것을 참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새 동맹을 찾기 시작했고, 가에타를 포위한 스페인인에 맞서 프랑스인이 나폴리 왕국 쪽으로 내려올 때[7] 프랑스를 두고 이도 저도 아닌 태도를 보였다. 그의 속셈은 프랑스인에게서 안전해지는 것이었고, 알렉산데르가 살아 있었다면 그 일은 곧 이루어졌을 것이다.

당장의 일은 이렇게 처리했다. 그러나 앞날을 두고는 무엇보다, 교회의 새 후계자가 자기에게 호의를 품지 않고 알렉산데르가 준 것을 빼앗으려 들지 않을까 걱정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네 가지 길로 이에 대비하려 했다. 첫째, 자기가 땅을 빼앗은 영주들의 혈통을 모조리 끊어서 새 교황에게서 그들을 내세울 기회를 빼앗는다. 둘째, 앞서 말했듯이 로마의 귀족을 모두 제 편으로 끌어들여 그들을 이용해 교황을

견제한다. 셋째, 추기경단을 될 수 있는 대로 제 사람으로 채운다. 넷째, 교황이 죽기 전에 넓은 영토를 차지해 첫 공세쯤은 제 힘으로 버텨 낼 수 있게 한다. 알렉산데르가 죽었을 때 그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셋을 이루었고, 넷째도 거의 이룬 것이나 다름없었다. 땅을 빼앗긴 영주들은 손이 닿는 대로 죽였으니, 목숨을 건진 자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로마의 귀족들은 제 편으로 끌어들였고, 추기경단에서는 아주 큰 세력을 쥐었다. 새 영토를 두고는 토스카나의 영주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 두었고, 이미 페루자와 피옴비노를 차지했으며 피사를 제 보호 아래 두었다. 그리고 프랑스를 더 꺼릴 필요가 없어지자마자 피사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실제로 더는 꺼릴 까닭이 없었다. 프랑스인은 이미 스페인인에게 나폴리 왕국을 빼앗긴 처지여서, 양쪽 모두 그의 우호를 돈을 주고라도 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다음에는 루카와 시에나가 곧바로 무릎을 꿇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피렌체인을 시기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서. 피렌체인에게는 손쓸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은 알렉산데르가 죽은 바로 그해에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는 큰 힘과 명성을 얻어 제 힘으로 버틸 수 있었을 것이고, 더는 남의 운명과 힘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세력과 역량에 기댔을 것이다. 그러나 알렉산데르는 공작이 칼을 뽑아 들기 시작한 지 다섯 해 만에 죽었다. 그는 아들을 남겨 두고 떠났는데, 단단히 다져진 것은 로마냐 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허공에 떠 있었다. 아들은 막강한 두 적군 사이에 끼어 있었고, 그 자신도 죽을병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공작에게는 대단한 기백과 역량이 있었고, 사람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잃는지 훤히 알았으며, 그 짧은 시간에 다져 놓은 토대도 아주 튼튼했다. 그러니 그 두 군대가 그를 짓누르지 않았거나 그가 건강하기만 했다면 어떤 어려움이든 견뎌 냈을 것이다. 그의 토대가 튼튼했다는 것은 이로써 드러났다. 로마냐는 한 달 넘게 그를

기다렸다. 로마에서 그는 반쯤 죽은 몸이었는데도 안전했다. 발리오니 가문과 비텔리 가문과 오르시니 가문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왔지만[8] 그에게 맞설 추종자를 얻지 못했다. 그는 원하는 사람을 교황으로 세우지는 못했어도, 원하지 않는 사람이 교황이 되는 것만은 막을 수 있었다. 알렉산데르가 죽을 때 그가 건강하기만 했어도 모든 일이 쉬웠을 것이다. 율리오 2세가 교황으로 뽑히던 무렵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9] 아버지가 죽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모두 생각해 두었고 그 모두에 대책을 마련해 두었지만, 아버지가 죽을 때 자기도 죽을 지경에 놓이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러므로 공작의 행적을 모두 모아 보아도 나는 그를 나무랄 데를 찾지 못하겠다. 오히려 내가 이미 그렇게 했듯이, 운명 덕분에 남의 군대를 업고 권좌에 오른 모든 이에게 그를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내세워야 한다고 본다. 그는 큰 뜻과 높은 포부를 품었으니 달리 처신할 수가 없었다. 그의 계획을 가로막은 것은 알렉산데르의 짧은 수명과 그 자신의 병, 오직 이 두 가지뿐이었다. 그러니 신생 군주국에서 적에게서 제 몸을 지키고, 우방을 얻고, 힘으로든 속임수로든 이기고, 인민에게 사랑받으면서도 두려움을 사고, 병사들이 따르고 우러르게 하고, 자신을 해칠 수 있거나 해칠 것이 뻔한 자들을 없애고, 옛 제도를 새 방식에 따라 고치고, 엄하면서도 인정 있고 도량이 크면서도 너그럽고, 충성스럽지 못한 군대를 없애고 새 군대를 만들고, 왕과 군주들과의 우호를 지켜 그들이 기꺼이 은혜를 베풀거나 해치더라도 조심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 사람의 행적보다 더 생생한 본보기를 찾지 못할 것이다. 그를 탓할 데가 있다면 율리오를 교황으로 뽑히게 한 일 하나뿐이다. 그는 거기서 잘못 골랐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제 뜻대로 교황을 세울 수는 없었어도 누군가가 교황이 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었으므로, 자기가 해를 입힌 추기경이나 교황이 되면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추기경이 교황 자리에 오르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말았어야 했다. 사람은 두려워서 해치거나 미워서 해치기 때문이다. 그가 해를 입힌 추기경 가운데에는 산피에트로 인 빈콜리 추기경, 콜론나 추기경, 산조르조 추기경, 아스카니오 등이 있었다.[10] 나머지는 교황이 되면 모두 그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루앙 추기경과 스페인인 추기경들만은 예외였다. 스페인인들은 같은 나라 사람으로 이어져 있고 그에게 신세를 졌기 때문이고, 루앙 추기경은 프랑스 왕국을 등에 업은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작은 무엇보다 먼저 스페인인을 교황으로 세웠어야 했고, 그럴 수 없었다면 산피에트로 인 빈콜리 추기경이 아니라 루앙 추기경이 교황이 되도록 했어야 했다. 지체 높은 사람에게 새 은혜를 베풀면 묵은 원한을 잊으리라 믿는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그러니 공작은 이 선택에서 잘못을 저질렀고, 그것이 그를 마지막 파멸로 몰아넣었다.

---

1.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1세(재위 기원전 522~486). 4장의 다리우스 3세와는 다른 사람이다. 소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마다 자기에게 충성하는 참주를 세웠다.

2. 로마의 두 유력 귀족 가문. 저마다 군대와 영지를 거느리고 대대로 다투면서 교황청 정치를 좌우했다.

3. 1502년 10월, 오르시니 가문 사람들과 비텔로초 비텔리, 올리베로토 다 페르모, 잔파올로 발리오니 같은 공작 휘하의 용병대장들이 페루자 근처 마조네에 모여 공작에 맞서기로 모의했다.

4. 파올로 오르시니. 오르시니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공작 밑에서 용병대장으로 일했다.

5. 1502년 12월 31일 공작은 화해를 가장해 시니갈리아로 불러들인 비텔로초 비텔리와 올리베로토 다 페르모를 그날 밤 목 졸라 죽였고, 붙잡아 둔 파올로 오르시니와 그라비나 공작 프란체스코 오르시니도 이듬해 1월 처형했다.

6. 스페인 출신의 라미로 데 로르카. 로마냐 총독으로 일하다가 1502년 12월 22일 체세나에서 체포되었고, 26일 아침 광장에서 두 동강 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7. 1503년 여름, 나폴리 왕국을 두고 스페인과 싸우던 프랑스가 스페인군에게 포위된 가에타를 구하려고 다시 남쪽으로 군대를 보낸 일.

8. 페루자를 다스리던 발리오니 가문과 치타 디 카스텔로를 다스리던 비텔리 가문. 둘 다 공작에게 영지를 빼앗겼다가 알렉산데르가 죽은 뒤 되찾았다.

9. 마키아벨리는 15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렌체 정부의 사절로 로마에 머물렀다. 율리오 2세는 그해 11월 1일 선출되었다.

10. 산피에트로 인 빈콜리 추기경은 줄리아노 델라 로베레, 곧 뒷날의 율리오 2세다. 콜론나는 조반니 콜론나, 산조르조는 라파엘레 리아리오, 아스카니오는 밀라노 공작 루도비코의 동생 아스카니오 스포르차 추기경이다.

8장 — 악행으로 군주 자리에 오른 자들에 대하여

그런데 평범한 개인에서 군주가 되는 길은 이 밖에도 두 가지가 더 있다. 이 두 길은 운명에도 역량에도 온전히 돌릴 수 없으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본다. 둘 가운데 하나는 공화국을 다루는 자리에서 더 자세히 논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하나는 사악하고 극악한 길을 밟아 군주 자리에 오르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이 동료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제 조국의 군주가 되는 경우다. 첫째 길은 옛날 사례 하나와 요즘 사례 하나, 두 가지로 보여 주겠다. 이 길이 옳은지 그른지는 더 파고들지 않겠다.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이라면 두 사례를 본받는 것으로 족하다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시칠리아 사람 아가토클레스[1]는 평범한 처지도 아니고 가장 낮고 천한 처지에서 시라쿠사의 왕이 되었다. 옹기장이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커 가는 내내 사악하게 살았다. 그렇지만 그의 악행에는 늘 몸과 마음의 대단한 역량이 함께했으므로, 군대에 몸을 담은 뒤로 계급을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 마침내 시라쿠사의 군사령관(pretore)이 되었다. 그 자리에 오르자 그는 군주가 되기로, 그리고 남들이 합의해서 내준 것을 이제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고 폭력으로 쥐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 계획을 그때 군대를 이끌고 시칠리아에서 싸우던 카르타고의 하밀카르[2]와 미리 짜 두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아침 마치 공화국의 일을 의논하려는 것처럼 시라쿠사의 인민과 원로원을 불러 모았고, 미리 정해 둔 신호가 떨어지자 병사들을 시켜 원로원 의원 전원과 인민 가운데 가장 부유한

자들을 죽였다. 그들이 죽자 그는 시민들 사이에 아무런 분란도 없이 그 도시의 군주 자리를 차지하고 지켰다. 그 뒤 카르타고인에게 두 번이나 패하고 끝내 포위까지 당했지만, 그는 제 도시를 지켜 냈을 뿐 아니라 군대 일부를 남겨 포위에 맞서게 하고 나머지를 이끌고 아프리카를 쳤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시라쿠사를 포위에서 풀어 냈고 카르타고를 극한의 궁지로 몰아넣었다. 카르타고인은 하는 수 없이 그와 협정을 맺고, 아프리카를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시칠리아는 아가토클레스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그러니 이 사람의 행적과 역량을 살펴보는 이는 운명 덕으로 돌릴 만한 일을 하나도, 혹은 거의 찾지 못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는 누구의 호의도 아니라 천 가지 고생과 위험을 겪으며 손수 얻어 낸 군대 계급을 밟아 군주 자리에 올랐고, 그 뒤에도 대담하고 위험한 결단을 숱하게 내리며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다. 또한 제 시민을 죽이고, 친구를 배신하고, 신의도 자비도 신앙도 없이 사는 것을 역량이라 부를 수도 없다. 그런 수단으로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도 영광은 얻지 못한다. 물론 위험 속으로 뛰어들고 빠져나오는 아가토클레스의 역량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 내는 그 마음의 크기를 헤아려 보면, 그가 어떤 탁월한 지휘관보다 못하다고 볼 까닭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의 짐승 같은 잔인함과 비인간성, 그리고 셀 수 없는 악행 때문에 그를 가장 탁월한 인물들 사이에 놓고 기릴 수는 없다. 그러니 그가 운명도 역량도 없이 이룬 일을 운명이나 역량의 덕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시대, 알렉산데르 6세가 교황으로 있을 때의 일이다. 올리베로토 다 페르모는 여러 해 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조반니 폴리아니라는 외삼촌 손에 자랐다. 외삼촌은 그가 젊은이가 되자마자 파올로 비텔리[3] 밑으로 보내 군인의 길을 걷게 했다. 그 규율을 몸에 익혀 군대에서 남다른 자리에 오르기를 바라서였다. 파올로가 죽은 뒤

올리베로토는 그 형제 비텔로초 밑에서 싸웠다. 머리가 좋은 데다 몸도 마음도 굳셌으므로 그는 아주 짧은 사이에 그 군대에서 으뜸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나 남의 밑에 있는 것은 종노릇이나 다름없다고 여긴 그는 페르모를 차지하기로 마음먹었다. 조국의 자유보다 예속을 더 귀하게 여기는 페르모 시민 몇 사람의 도움과 비텔리 가문의 후원을 믿고서였다. 그는 조반니 폴리아니에게 편지를 썼다. 여러 해 집을 떠나 있었으니 외삼촌과 고향 도시를 보러 가고, 물려받은 재산도 얼마간 둘러보고 싶다고 했다. 또 자기는 오로지 명예를 얻으려고 애써 왔으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음을 고향 시민들에게 보여 주려면 벗과 종자로 이루어진 기병 백 명을 거느리고 번듯하게 가고 싶다고 했다. 그러니 페르모 사람들이 자기를 정중히 맞이하도록 손써 주기를 부탁했다. 그렇게 하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길러 낸 외삼촌에게도 명예가 된다는 말이었다. 그래서 조반니는 조카에게 해 줄 도리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페르모 사람들이 그를 정중히 맞아들이게 했고, 올리베로토는 외삼촌의 집에 묵었다. 거기서 며칠을 보내며 앞으로 저지를 악행에 필요한 준비를 모두 마친 그는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열어 조반니 폴리아니와 페르모의 유력자들을 모조리 불렀다. 음식이 다 나가고 이런 잔치에서 으레 하는 여흥도 모두 끝나자, 올리베로토는 짐짓 무거운 이야기를 꺼냈다. 교황 알렉산데르와 그 아들 체사레의 위세, 그리고 그들이 벌인 일들에 관한 이야기였다. 조반니와 다른 이들이 그 이야기에 대꾸하자 그는 갑자기 일어서며 이런 일은 좀 더 은밀한 곳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어느 방으로 물러났고, 조반니와 다른 시민들도 모두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들이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방 안의 숨은 곳에서 병사들이 튀어나와 조반니와 나머지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이 살육을 마치자 올리베로토는 말에 올라 도시를 휩쓸고 다녔고, 최고 행정관들을 청사에 몰아넣고

에워쌌다. 겁에 질린 그들은 그에게 복종하고 새 정부를 세울 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그 정부의 군주가 되었다. 불만을 품어 그를 해칠 수 있는 자들을 모조리 죽인 뒤에는 민정과 군사 양쪽에 새 제도를 세워 자리를 굳혔다. 그리하여 군주 자리를 지킨 한 해 동안 그는 페르모 시 안에서 안전했을 뿐 아니라 이웃 모두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체사레 보르자가 시니갈리아에서 오르시니 가문과 비텔리 가문 사람들을 사로잡을 때 올리베로토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만 않았더라면, 그를 쓰러뜨리기는 아가토클레스를 쓰러뜨리기만큼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그는 거기서 함께 붙잡혔고, 친족을 살해한 지 한 해 만에, 자기에게 역량과 악행을 가르친 스승 비텔로초와 함께 목 졸려 죽었다.

누군가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아가토클레스나 그와 비슷한 자들은 숱한 배신과 잔인한 짓을 저지르고도 어떻게 제 조국에서 오래도록 안전하게 살며 바깥의 적을 막아 냈고, 어째서 시민들은 한 번도 그에게 맞서 음모를 꾸미지 않았는가. 다른 많은 자들은 잔인함에 기대고도 앞날을 알 수 없는 전시는 고사하고 평화로운 때에조차 권력을 지키지 못했는데 말이다. 나는 이 차이가 잔인함이 잘못 쓰였느냐 잘 쓰였느냐에서 온다고 믿는다. 잘 쓰인 잔인함이란(악을 두고 '잘'이라는 말을 써도 된다면) 제 안전을 지킬 필요에서 단번에 저지르고, 그 뒤로는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며, 되도록 신민에게 이로운 쪽으로 돌려놓는 잔인함이다. 잘못 쓰인 잔인함이란 처음에는 얼마 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불어나는 잔인함이다. 앞의 길을 따르는 자는 아가토클레스가 그랬듯이 신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제 권력을 지탱할 방도를 얼마간 찾을 수 있다. 뒤의 길을 가는 자가 자리를 지키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눈여겨 둘 것이 있다. 국가를 빼앗는 자는 자기가 가해야 할 위해를 모두 미리 헤아려 두었다가 단번에 몰아서

가해야 한다. 그래야 날마다 되풀이하지 않아도 되고, 되풀이하지 않으니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은혜를 베풀어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겁이 나서든 판단을 그르쳐서든 달리 하는 자는 늘 칼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코 신민에게 기댈 수 없다. 신민은 새로 당하는 위해가 끊이지 않으니 그를 믿고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위해는 덜 맛볼수록 덜 아프니 한꺼번에 몰아서 가해야 하고, 은혜는 더 잘 맛보도록 조금씩 나누어 베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군주는 신민과 더불어 살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사태가 닥쳐도 처신을 바꿀 필요가 없게 살아야 한다. 어려운 때가 와서 필요에 쫓기게 되면 악한 수단을 쓰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때 베푸는 선은 억지로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

1. 아가토클레스(기원전 361~289). 기원전 317년 시라쿠사를 장악했고 뒤에 왕을 칭했다. 기원전 311년 카르타고군에 패해 시라쿠사가 포위되자 이듬해 아프리카로 건너가 카르타고 본토를 쳤다.

2. 기원전 4세기 말 시칠리아에 와 있던 카르타고 장군. 한니발의 아버지 하밀카르 바르카와는 다른 사람이다.

3. 파올로 비텔리(1461~1499)와 그 형제 비텔로초 비텔리(1458년경~1502). 치타 디 카스텔로 출신 용병대장이다. 파올로는 피사 전쟁에서 피렌체군을 지휘하다 배신 혐의를 받아 1499년 피렌체에서 처형되었다.

9장 — 시민 군주국에 대하여

이제 다른 경우로 넘어가자.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이 악행이나 그 밖의 참을 수 없는 폭력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의 지지를 얻어 제 조국의 군주가 되는 경우로, 이것을 시민 군주국(principato civile)이라 부를 수 있다. 여기에 이르는 데는 온전한 역량도 온전한 운명도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운이 따르는 영리함이 필요하다. 내 말은 이렇다. 이런 군주국의 군주 자리에는 인민의 지지로 오르거나 귀족(grandi)의 지지로 오른다. 어느 도시에나 서로 다른 이 두 기질(umori)이 있기 때문이다. 두 기질의 뿌리는, 인민은 귀족에게 명령받거나 억눌리지 않기를 바라고 귀족은 인민에게 명령하고 인민을 억누르기를 바란다는 데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 두 욕망에서 도시에는 세 가지 결과 가운데 하나가 생긴다. 군주국이거나, 자유거나, 방종이다.

군주국은 인민이 세우거나 귀족이 세우는데, 둘 가운데 어느 쪽에 기회가 오느냐에 따라 갈린다. 귀족은 인민을 당해 낼 수 없다고 보면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명성을 몰아주기 시작하고, 그를 군주로 세워 그 그늘 아래서 제 욕망을 채우려 한다. 인민도 귀족을 당해 낼 수 없다고 보면 한 사람에게 명성을 몰아주고 그를 군주로 세워 그 권위로 제 몸을 지키려 한다. 귀족의 도움으로 군주 자리에 오른 자는 인민의 도움으로 군주가 된 자보다 자리를 지키기가 더 어렵다. 군주가 되고 보니 주위에 자기와 대등하다고 여기는 자가 많아서, 그들에게 마음대로 명령하지도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민의

지지로 군주 자리에 오른 자는 그 자리에 홀로 서 있고, 주위에 복종할 채비가 안 된 자가 아무도 없거나 아주 적다. 게다가 귀족은 떳떳하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만족시킬 수가 없지만 인민은 그럴 수 있다. 인민의 목적이 귀족의 목적보다 떳떳하기 때문이다. 귀족은 억누르려 하고 인민은 억눌리지 않으려 한다. 또 군주는 인민을 적으로 돌리면 수가 너무 많아서 결코 안전할 수 없지만, 귀족은 적으로 돌려도 수가 적으니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적이 된 인민에게서 군주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버림받는 것이지만, 적이 된 귀족에게서는 버림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들고일어나 맞서는 것까지 두려워해야 한다. 귀족은 앞을 더 멀리 보고 더 약삭빠르므로 언제나 제 몸을 건질 시간을 미리 벌어 두고, 이기리라 기대하는 쪽에 줄을 대기 때문이다. 또 군주는 언제나 같은 인민과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같은 귀족이 없어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다. 날마다 귀족을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며, 제 뜻대로 그들에게 명성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대목을 더 분명히 하자면, 귀족은 주로 두 갈래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처신하는 품을 보면 그들은 군주의 운명에 제 몸을 온전히 묶는 자들이거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다. 몸을 묶는 자들 가운데 탐욕스럽지 않은 자는 존중하고 아껴야 한다. 몸을 묶지 않는 자들은 다시 두 갈래로 살펴야 한다. 겁이 많고 타고나기를 기개가 모자라서 그러는 자들이라면 군주는 그들을 써야 하며, 특히 좋은 조언을 할 줄 아는 자들을 써야 한다. 그러면 잘나갈 때는 그들 덕에 영광을 얻고, 어려울 때는 그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다. 그러나 속셈이 있어서, 야심 때문에 몸을 묶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것은 군주보다 제 자신을 더 생각한다는 표시이니, 군주는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드러난 적을 대하듯 두려워해야 한다. 어려운 때가 오면 그들은 언제나 군주를 무너뜨리는 데 손을 보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민의 지지로 군주가 된 자는 인민을 계속 제 편으로 붙들어 두어야 한다. 인민이 바라는 것은 억눌리지 않는 것뿐이니 이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인민의 뜻을 거슬러 귀족의 지지로 군주가 된 자는 무엇보다 먼저 인민의 마음을 얻으려 애써야 한다. 인민을 보호해 주기만 하면 이 또한 쉬운 일이다. 사람이란 해를 입으리라 여겼던 상대에게서 은혜를 받으면 그 은인에게 더 깊이 매이기 마련이어서, 인민은 그 군주가 자기들의 지지로 자리에 올랐을 때보다 더 큰 호의를 곧바로 품게 된다. 군주가 인민의 마음을 얻는 길은 여러 가지지만, 형편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정한 규칙을 세울 수 없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결론만 말하겠다. 군주에게는 인민을 제 편으로 두는 일이 꼭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때에 기댈 데가 없다.

스파르타의 군주 나비스[1]는 그리스 전체와 연전연승하던 로마군의 포위를 견뎌 내고, 그들에 맞서 조국과 제 권력을 지켜 냈다. 위험이 닥쳤을 때 그는 몇몇 사람만 단속하면 되었다. 인민이 적이었다면 그것으로는 모자랐을 것이다. "인민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진흙 위에 집을 짓는다"는 닳고 닳은 속담을 들어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란다. 그 속담은 평범한 시민 하나가 인민 위에 집을 짓고서, 적이나 관리들에게 억눌리면 인민이 자기를 구해 주리라 믿을 때나 들어맞는다. 이런 경우라면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2]나 피렌체의 조르조 스칼리[3]처럼 속았다는 것을 깨닫기 일쑤일 것이다. 그러나 인민 위에 집을 짓는 자가 군주이고, 명령할 줄 알며, 배짱이 있고, 역경에 겁먹지 않으며, 다른 대비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제 기개와 제도로 인민 전체의 사기를 북돋운다면, 그는 결코 인민에게 속지 않을 것이며 제 집의 기초를 튼튼히 놓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군주국은 시민적 통치에서 절대적 통치로 올라서려 할 때 흔히 위태로워진다. 이런 군주는 몸소 명령하거나 관리들을 거쳐 명령하기

때문이다. 뒤의 경우라면 군주는 관직을 맡은 시민들의 뜻에 전적으로 매여 있으니 그 처지가 더 약하고 더 위험하다. 그 시민들은, 특히 어려운 때에, 군주에게 맞서든 복종을 거부하든 아주 쉽게 그의 권력을 빼앗을 수 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친 뒤에는 군주가 절대 권한을 손에 넣기에 이미 늦다. 늘 관리들에게서 명령을 받아 온 시민과 신민은 그런 고비에 군주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고, 앞날이 불확실한 때에 군주에게는 믿을 만한 사람이 늘 모자랄 것이다. 이런 군주는 평온한 때, 곧 시민들이 국가를 필요로 할 때 본 것에 기댈 수 없다. 그때는 누구나 달려오고 누구나 약속하며, 죽음이 멀리 있는 동안에는 저마다 그를 위해 죽겠다고 나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려운 때, 곧 국가가 시민들을 필요로 할 때는 그런 사람이 몇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런 시험은 한 번밖에 해 볼 수 없으니 그만큼 더 위험하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군주는 시민들이 언제나, 어떤 시절에도 국가와 군주 자신을 필요로 하게 만들 길을 궁리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들은 언제까지나 그에게 충성할 것이다.

---

1. 나비스(재위 기원전 207~192). 스파르타의 왕. 기원전 195년 티투스 퀸크티우스 플라미니누스가 이끈 로마군과 그리스 동맹군에 맞서 스파르타를 지켰으나 아르고스 등을 내주었고, 기원전 192년 아이톨리아인에게 살해되었다.

2.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와 가이우스 그라쿠스. 기원전 2세기 로마의 호민관으로 인민을 위한 토지 개혁을 밀어붙이다 기원전 133년과 121년에 각각 원로원 세력에게 죽임을 당했다.

3. 조르조 스칼리(?~1382). 1378년 촘피 봉기 뒤 피렌체 평민 정부를 이끈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1382년 인민의 지지를 잃고 참수되었다.

10장 — 모든 군주국의 힘은 어떻게 가늠해야 하는가

이런 군주국들의 성격을 살필 때는 또 하나 따져 볼 것이 있다. 군주가 필요할 때 제힘으로 버틸 만큼 큰 국력을 갖추었는지, 아니면 늘 남의 보호가 필요한지다. 이 대목을 더 분명히 해 두자. 내가 보기에 제힘으로 버틸 수 있는 군주란, 사람이 넉넉해서든 돈이 넉넉해서든 제대로 된 군대를 꾸려 자기를 치러 오는 누구와도 들판에서 한판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자다. 마찬가지로 늘 남이 필요한 군주란, 들판에 나가 적과 맞설 수 없어 성벽 안으로 피해 들어가 그 성벽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다. 앞의 경우는 이미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필요한 대로 더 말하겠다. 뒤의 경우에 대해서는 그런 군주들에게 제 도시에 성을 쌓고 물자를 쟁여 두되 바깥 시골은 아예 셈에 넣지 말라고 권하는 것 말고는 할 말이 없다. 제 도시를 단단히 다져 두고, 신민을 다스리는 다른 일에서도 앞에서 말했고 뒤에서도 말할 대로 처신해 온 군주라면, 누구든 그를 칠 때는 크게 조심할 것이다. 사람은 언제나 어려움이 보이는 일을 꺼리게 마련이고, 도시가 굳건하고 인민에게 미움받지 않는 군주를 치는 일이 쉬워 보일 리 없기 때문이다.

독일의 도시들[1]은 더없이 자유롭다. 거느린 시골 땅은 얼마 되지 않고, 황제에게는 저희가 원할 때만 복종하며, 황제도 주변의 다른 어떤 강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누구나 그 도시들을 함락하려면 지루하고 힘든 싸움을 치러야 하리라고 여길 만큼 방비가 단단하기 때문이다.

어느 도시나 제대로 된 해자와 성벽을 둘렀고 대포도 넉넉하다. 공공 창고에는 늘 한 해 동안 마시고 먹고 땔 것을 쌓아 둔다. 그뿐 아니라 공금을 축내지 않고도 평민을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도시의 힘줄이자 생명이 되는 일, 평민이 생업으로 삼아 먹고사는 바로 그 일거리를 한 해 동안 나누어 줄 만큼 늘 공동으로 마련해 둔다. 군사 훈련도 소중히 여겨 그것을 유지하는 제도를 많이 갖추었다.

그러니 도시가 굳건하고 미움을 사지 않는 군주는 공격받지 않는다. 설령 누가 공격해 오더라도 그자는 망신만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세상일은 워낙 변화무쌍해서, 한 해 내내 군대를 이끌고 하릴없이 진을 친 채 포위만 하고 있을 수 있는 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되받을지도 모른다. 인민은 성 밖에 있는 제 땅이 불타는 것을 보면 참지 못할 것이고, 긴 포위와 제 살길 걱정에 군주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이에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힘 있고 기개 있는 군주라면 그런 어려움을 언제나 이겨 낼 것이다. 신민에게 때로는 이 고생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희망을 주고, 때로는 적의 잔인함을 두려워하게 하며, 때로는 지나치게 대담해 보이는 자들을 솜씨 있게 단속하면 된다. 게다가 적은 으레 도착하자마자 시골을 불태우고 짓밟을 텐데, 그때는 아직 사람들의 마음이 뜨겁고 기꺼이 맞서 싸우려 한다. 그러니 군주는 더욱 걱정할 것이 없다. 며칠이 지나 마음이 식었을 때는 이미 피해는 났고 화는 입었으며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러면 사람들은 군주를 지키다가 집이 불타고 땅이 짓밟혔으니 군주가 자기들에게 빚을 졌다고 여겨, 오히려 더욱 군주와 한 몸으로 뭉친다. 사람이란 본디 받은 은혜만큼이나 베푼 은혜로도 상대에게 매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잘 헤아려 보면, 분별 있는 군주가 먹을 것과 싸울 것이 모자라지 않는 한 포위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시민들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두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1. 신성 로마 제국의 자유 도시들. 황제에게 직속하며 사실상 자치를 누렸다. 마키아벨리는 1507~1508년 황제 막시밀리안에게 사절로 다녀온 뒤 독일 사정에 관한 보고서를 썼다.

11장 — 교회 군주국에 대하여

이제 남은 것은 교회 군주국을 논하는 일뿐이다. 이런 군주국의 어려움은 모두 손에 넣기 전에 있다. 역량이나 운명으로 얻지만, 지킬 때는 그 어느 쪽도 필요 없기 때문이다. 교회 군주국은 종교 안에 오래 뿌리내린 제도가 떠받치는데, 이 제도가 워낙 강하고 성격이 독특해서 군주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살든 그를 권좌에 붙들어 둔다. 오직 이 군주들만이 국가가 있어도 지키지 않고, 신민이 있어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런데도 국가는 지키지 않아도 빼앗기지 않고, 신민은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개의치 않으며, 군주에게서 떨어져 나갈 생각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그러니 이런 군주국만이 안전하고 행복하다. 그러나 이 군주국들은 인간의 지혜가 닿지 못하는 더 높은 원인이 다스리므로 이야기를 그만두겠다. 신께서 일으키시고 지키시는 것이니, 그것을 논하는 일은 주제넘고 무모한 사람이나 할 짓이다. 그렇지만 누가 내게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알렉산데르 6세 이전까지는 이탈리아의 강자들이, 그것도 강자라 불리던 세력만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제후와 영주까지도 세속의 일에서는 교회를 우습게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프랑스 왕마저 교회 앞에서 떨고, 교회는 그 왕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고 베네치아인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속에서 어떻게 이토록 커졌는가. 이미 알려진 일이지만, 그 상당 부분을 다시 떠올려 보는 것도 쓸데없는 일은 아닐 듯하다.

프랑스 왕 샤를이 이탈리아로 내려오기 전, 이 지역은 교황, 베네치아인, 나폴리 왕, 밀라노 공작, 피렌체인이 나누어 다스렸다. 이 강자들은 두 가지에 늘 마음을 써야 했다. 하나는 외세가 군대를 이끌고 이탈리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일, 또 하나는 자기들 가운데 누구도 영토를 더 넓히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다. 그중 가장 경계하던 상대는 교황과 베네치아인이었다. 베네치아인을 억누르려면 페라라를 지킬 때[1]처럼 다른 세력이 모두 뭉쳐야 했다. 교황을 낮은 자리에 묶어 두는 데는 로마의 제후들을 이용했다. 그들은 오르시니와 콜론나 두 파벌로 갈라져 늘 서로 다툴 거리가 있었고, 교황의 눈앞에서 무기를 든 채 버티며 교황 자리를 약하고 병들게 만들었다. 식스토[2]처럼 기개 있는 교황이 이따금 나오기도 했지만, 운명도 지혜도 그를 이런 곤경에서 끝내 풀어 주지 못했다. 교황들이 오래 살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이었다. 교황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평균 열 해쯤 사는 동안에는 두 파벌 가운데 하나를 꺾기도 벅찼다. 이를테면 어느 교황이 콜론나 가문을 거의 없애 놓으면 오르시니 가문과 원수진 다른 교황이 나타나 콜론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그 교황에게는 오르시니 가문을 없앨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교황의 세속 권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뒤 알렉산데르 6세가 나타났다. 그는 지금까지의 모든 교황 가운데 교황이 돈과 무력으로 얼마나 큰 힘을 쓸 수 있는지를 가장 잘 보여 주었다. 그는 발렌티노 공작을 도구로 삼고 프랑스인의 침입을 기회로 삼아, 내가 앞에서 공작의 행적을 이야기하며 다룬 그 모든 일을 해냈다. 그의 뜻은 교회가 아니라 공작을 키우는 데 있었지만, 그가 한 일은 결국 교회를 키우는 쪽으로 돌아갔다. 그가 죽고 공작마저 몰락하자 교회가 그 수고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황 율리오가 왔다. 그가 보니 교회는 이미 커져 있었다. 로마냐 전체를 손에 넣었고, 로마의 제후들은 힘을 잃었으며, 알렉산데르의 매질에 두 파벌도 맥을 못

추었다. 게다가 알렉산데르 이전에는 한 번도 쓰인 적 없는 돈 모으는 길까지 열려 있었다.

율리오는 이런 일을 이어받았을 뿐 아니라 더 키웠다. 그는 볼로냐를 손에 넣고, 베네치아인을 꺾고, 프랑스인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려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공했다.[3] 어떤 개인이 아니라 교회를 키우려고 모든 일을 했으니 그만큼 더 큰 칭송을 받을 만하다. 그는 오르시니와 콜론나 두 파벌도 자기가 처음 보았을 때의 처지에 그대로 묶어 두었다. 그들 가운데 소란을 일으킬 만한 우두머리가 더러 있기는 했지만, 두 가지가 그들을 붙들어 두었다. 하나는 그들을 주눅 들게 하는 교회의 위세이고, 또 하나는 그들 편 추기경이 없다는 점이다. 추기경이야말로 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는 근원이다. 이 파벌들은 추기경을 둘 때마다 결코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추기경들이 로마 안팎에서 파벌을 키우면 제후들은 그 파벌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위 성직자들의 야심에서 제후들 사이의 불화와 소동이 생겨난다. 그리하여 교황 레오 성하[4]께서는 이 교황 자리를 더없이 강한 상태로 물려받으셨다. 앞의 교황들이 무력으로 이 자리를 키웠다면, 성하께서는 그 선하심과 그 밖의 셀 수 없는 미덕으로 이 자리를 더욱 크고 우러를 만한 것으로 만드시리라고 모두가 바란다.

---

1. 페라라 전쟁 때 나폴리, 밀라노, 피렌체가 뭉쳐 페라라를 지켰고, 처음에 베네치아 편이던 교황 식스토 4세도 곧 이 동맹으로 돌아섰다.

2. 식스토 4세(재위 1471~1484). 본명 프란체스코 델라 로베레. 율리오 2세의 숙부다.

3. 율리오 2세는 1506년 벤티볼리오 가문을 몰아내고 볼로냐를 차지했고, 1509년 베네치아를, 1512년 프랑스를 꺾었다.

4. 레오 10세(재위 1513~1521). 본명 조반니 데 메디치. 로렌초 일 마니피코의 아들이며, 이 책을 바친 로렌초 데 메디치의 숙부다.

12장 — 군대에는 몇 가지가 있는가, 그리고 용병에 대하여

처음에 다루겠다고 한 군주국들의 성격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폈고, 그 나라들이 잘되고 못되는 원인도 얼마간 따져 보았으며, 많은 사람이 그 나라들을 얻고 지키려고 써 온 수단도 보여 주었다. 이제 남은 일은 앞에서 말한 군주국 하나하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공격과 방어를 두루 논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군주는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새 국가든 오래된 국가든 혼합된 국가든, 모든 국가의 주된 기초는 좋은 법과 좋은 군대다. 좋은 군대가 없는 곳에는 좋은 법이 있을 수 없고 좋은 군대가 있는 곳에는 좋은 법이 있게 마련이므로, 나는 법 이야기는 접어 두고 군대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면 말하겠다. 군주가 제 국가를 지키는 군대는 자국군이거나, 용병이거나, 원군이거나, 혼성군이다. 용병과 원군은 쓸모없고 위험하다. 용병에 기대어 국가를 세운 자는 결코 굳건하지도 안전하지도 못할 것이다. 용병은 뭉치지 못하고, 야심이 많고, 규율이 없고, 충성스럽지 않다. 아군 사이에서는 용맹하고 적 앞에서는 비겁하다. 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에게 신의를 지키지도 않는다. 그러니 적의 공격이 미뤄지는 만큼만 파멸이 미뤄질 뿐이다. 군주는 평화로울 때는 용병에게 빼앗기고, 전쟁 때는 적에게 빼앗긴다. 까닭은 이렇다. 용병을 싸움터에 붙잡아 두는 것은 쥐꼬리만 한 봉급뿐이고 다른 애정도 다른 동기도 없는데, 그 봉급으로는 그들이 군주를 위해 기꺼이 죽으려 할 리

없다. 전쟁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기꺼이 군주의 병사가 되려 하지만, 전쟁이 닥치면 달아나거나 떠나 버린다. 이 점을 납득시키는 데는 별로 애쓸 필요도 없을 것이다. 지금 이탈리아가 무너진 까닭은 다름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용병에 기대어 안주해 왔기 때문이다. 용병은 한때 몇몇 사람에게 얼마간 성과를 안겨 주었고 저희끼리는 용맹해 보였다. 그러나 외세가 들어오자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서 프랑스 왕 샤를은 분필 하나로 이탈리아를 차지할 수 있었다.[1] 그것이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2]은 옳은 말을 했다. 다만 그 죄는 그가 믿은 죄가 아니라 내가 이야기한 바로 이 죄였다. 그리고 그것은 군주들의 죄였으므로 군주들 자신도 그 벌을 받았다.

이런 군대가 얼마나 불행을 부르는지 더 똑똑히 보여 주고 싶다. 용병대장은 탁월한 인물이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탁월하다면 믿을 수 없으니, 그들은 늘 제 세력을 키우려 들 것이고 그러려고 주인인 군주를 짓누르거나 군주의 뜻과 상관없이 남을 짓누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량 없는 지휘관이라면 으레 군주를 망친다. 용병이든 아니든 군대를 손에 쥔 자라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군대란 군주가 부리거나 공화국이 부려야 한다고 답하겠다. 군주는 몸소 나서서 지휘관의 직무를 맡아야 한다. 공화국은 제 시민을 보내야 하고, 보낸 사람이 유능하지 않으면 바꿔야 하며, 유능하면 법으로 묶어 선을 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경험으로 보면, 몸소 군대를 이끄는 군주와 무장한 공화국은 아주 큰 성과를 거두지만 용병은 해만 끼칠 뿐이다. 그리고 자국군으로 무장한 공화국은 남의 군대로 무장한 공화국보다 제 시민 한 사람의 손아귀에 떨어지기가 훨씬 어렵다.

로마와 스파르타는 여러 세기 동안 무장한 채 자유로웠다. 스위스인은 더없이 무장했고 더없이 자유롭다. 옛 용병의 예로는 카르타고인이

있다. 카르타고인은 로마인과의 첫 전쟁이 끝난 뒤, 자기 시민을 지휘관으로 두었는데도 제 용병들에게 짓눌릴 뻔했다.[3] 테베인은 에파미논다스가 죽은 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를 군 지휘관으로 삼았는데, 필리포스는 승리를 거두고 나서 테베인의 자유를 빼앗았다.'[4] 밀라노인은 필리포 공작이 죽자 베네치아인과 싸우려고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를 용병으로 고용했는데, 그는 카라바조에서 적을 무찌른 뒤 그 적과 손잡고 제 주인인 밀라노인을 짓눌렀다.'[5] 그의 아버지 스포르차는 나폴리의 조반나 여왕에게 고용되어 있다가 느닷없이 여왕을 무방비 상태로 버려두었고, 그 바람에 여왕은 왕국을 잃지 않으려고 아라곤 왕의 품에 몸을 던질 수밖에 없었다.'[6] 베네치아인과 피렌체인은 예전에 이런 군대로 영토를 넓혔지만 그 지휘관들은 군주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지켜 주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이에 나는 이렇게 답하겠다. 이 경우 피렌체인은 운수가 좋았다.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역량 있는 지휘관들 가운데 어떤 자는 이기지 못했고, 어떤 자는 맞수에 가로막혔으며, 또 어떤 자는 야심을 다른 데로 돌렸기 때문이다. 이기지 못한 자는 존 호크우드'[7]였다. 이기지 못했으니 그의 신의를 알 길은 없었지만, 그가 이겼더라면 피렌체인이 그의 손에 좌우되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스포르차는 늘 브라초파와 맞섰고, 두 세력은 서로를 견제했다. 프란체스코는 야심을 롬바르디아로 돌렸고, 브라초는 교회와 나폴리 왕국으로 돌렸다. 그러나 이제 얼마 전에 일어난 일로 가 보자. 피렌체인은 파올로 비텔리를 지휘관으로 삼았다. 더없이 분별 있는 사람이었고, 평범한 처지에서 아주 큰 명성을 쌓은 사람이었다. 그가 피사를 함락했더라면 피렌체인이 그의 곁에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적의 용병이 되었다면 피렌체인은 손쓸 도리가 없었을 것이고, 그를 계속 두었다면 그에게 복종해야 했을 테니까. 베네치아인의 행보를 살펴보면,

그들은 제 손으로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는 안전하고 영광스럽게 일을 해냈음을 알 수 있다. 육지로 눈을 돌리기 전의 일이다. 그때 그들은 귀족과 무장한 평민을 거느리고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며 싸웠다. 그러나 육지에서 싸우기 시작하자 이 역량을 버리고 이탈리아 전쟁의 관습을 따랐다. 육지로 세력을 넓히기 시작했을 무렵에는 거기에 영토가 많지 않았고 명성은 높았으므로 지휘관들을 크게 두려워할 까닭이 없었다. 그러나 카르마뇰라[8] 시절 영토를 넓히면서 그들은 이 잘못의 맛을 보았다. 그의 지휘 아래 밀라노 공작을 꺾고 나서 그가 매우 역량 있는 자임을 알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가 전쟁에 열의를 잃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베네치아인은 그가 이기려 하지 않으니 그를 데리고는 더는 이길 수 없고, 얻은 것을 다시 잃지 않으려면 그를 내보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안전을 지키려고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베네치아인은 베르가모의 바르톨로메오, 산세베리노의 로베르토, 피틸리아노 백작 같은 자들을 지휘관으로 두었다. 이들을 데리고는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을 두려워해야 했다. 실제로 뒷날 바일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들은 팔백 년 동안 그토록 애써 얻은 것을 단 하루의 싸움에서 잃었다.'[9] 이런 군대로는 느리고 더디고 보잘것없게 얻을 뿐이고, 잃을 때는 순식간에 기막힐 만큼 잃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들을 들다 보니 여러 해 동안 용병에게 휘둘려 온 이탈리아에 이르렀으므로, 이제 용병을 좀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 논하고 싶다. 그 기원과 전개를 보고 나면 더 잘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근래 들어 제국의 힘이 이탈리아에서 밀려나기 시작하고 교황이 세속의 일에서 더 큰 명성을 얻자, 이탈리아는 여러 국가로 갈라졌다. 큰 도시 가운데 여럿이 귀족들에게 맞서 무기를 들었는데, 그 귀족들은 예전에 황제의 비호를 받으며 그 도시들을 억눌러 왔다. 교회는 세속에서 명성을 얻으려고 그

도시들을 편들었다. 다른 많은 도시에서는 시민이 군주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는 거의 교회와 몇몇 공화국의 손에 들어갔고, 그 성직자들과 시민들은 군대를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외국인을 용병으로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런 군대에 처음으로 명성을 안겨 준 자는 로마냐 사람 코니오의 알베리코[10]였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 가운데 브라초와 스포르차가 있었는데, 이 둘은 저마다 제 시대에 이탈리아를 좌지우지했다. 이들 뒤로 오늘날까지 이런 군대를 거느린 자들이 줄줄이 나왔다. 그들의 역량이 거둔 결과는 이렇다. 이탈리아는 샤를에게 짓밟혔고, 루이에게 약탈당했고, 페르난도에게 유린당했으며, 스위스인에게 능욕당했다. 그들이 따른 수법은 먼저 자기들의 명성을 높이려고 보병의 명성을 깎아내리는 일이었다. 그렇게 한 까닭은 이렇다. 그들은 나라도 없이 제 재주로 먹고사는 처지였으므로, 보병이 적으면 명성을 얻을 수 없고 많으면 먹여 살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기병에 매달렸다. 기병은 감당할 만한 수로도 먹고살 수 있었고 대접도 받았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 병사 2만 명의 군대에 보병은 2천 명도 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은 자기와 병사들에게서 고생과 두려움을 덜어 내려고 온갖 꾀를 다 부렸다. 싸움에서 서로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았다가 몸값도 받지 않고 놓아주었다. 밤에는 도시를 공격하지 않았고, 도시 안에 있는 자들도 밤에 바깥 막사를 공격하지 않았다. 진영 둘레에 목책도 해자도 두르지 않았고, 겨울에는 싸움터에 나가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은 그들의 군사 제도가 허용한 것으로, 앞에서 말했듯이 고생과 위험을 피하려고 그들 스스로 고안한 장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탈리아를 종살이와 치욕으로 끌고 갔다.

---

1. 1494년 샤를 8세의 군대는 거의 싸우지 않고 이탈리아를 지나갔다. 숙영할 집의 문에 분필로 표시만 하면 되었다는 뜻으로,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한 말로 전한다.

2. 프랑스의 침입을 이탈리아의 죄에 내리는 신의 벌이라고 설교한 사보나롤라를 가리킨다.

3. 제1차 포에니 전쟁(기원전 264~241)이 끝난 뒤 봉급을 받지 못한 카르타고의 용병들이 들고일어난 용병 전쟁(기원전 241~237). 하밀카르 바르카가 진압했다.

4. 필리포스 2세(재위 기원전 359~336).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로, 3장의 필리포스 5세와는 다른 사람이다. 에파미논다스는 기원전 362년 전사한 테베의 장군이다. 필리포스는 테베에 고용된 지휘관이 아니라 제3차 신성 전쟁(기원전 356~346)에서 테베 편에 선 동맹자였고, 기원전 338년 카이로네이아에서 테베를 꺾었다.

5. 밀라노 공작 필리포 마리아 비스콘티(1392~1447). 그가 후사 없이 죽자 밀라노인은 공화국을 세웠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1448년 카라바조에서 베네치아군을 이긴 뒤 베네치아와 손잡았고, 1450년 밀라노 공작이 되었다.

6. 무치오 아텐돌로 스포르차(1369~1424). 맞수 브라초 다 몬토네(1368~1424)와 함께 15세기 초 이탈리아 용병계를 양분했다. 1420년 나폴리 여왕 조반나 2세를 저버리고 앙주의 루이 3세 편에 서자, 여왕은 아라곤 왕 알폰소 5세를 양자로 삼아 도움을 청했다.

7. 존 호크우드(1323년경~1394). 원문에는 「조반니 아쿠트」로 적혀 있다. 잉글랜드 출신 용병대장으로 백색 용병단을 이끌었고, 말년에는 피렌체군 총지휘관을 지냈다.

8. 카르마뇰라 백작 프란체스코 부소네(1380년경~1432). 베네치아군을 이끌고 1427년 마클로디오에서 밀라노군을 이겼으나, 그 뒤 전쟁을 미적거려 배신을 의심받았고 1432년 베네치아에서 처형되었다.

9. 베르가모의 바르톨로메오는 바르톨로메오 콜레오니(?~1475), 산세베리노의 로베르토는 로베르토 다 산세베리노(1418~1487), 피틸리아노 백작은 니콜로 오르시니(1442~1510)다. 베네치아는 바일라 전투에서 진 뒤 본토 영토를 대부분 잃었다.

10. 알베리코 다 바르비아노(?~1409). 코니오 백작. 이탈리아인으로만 꾸린 산조르조 용병단을 이끌었고, 브라초와 스포르차가 그 밑에서 배웠다.

13장 — 원군, 혼성군, 자국군에 대하여

원군은 또 하나의 쓸모없는 군대다. 힘센 자를 불러 그의 군대로 자기를 돕고 지켜 달라고 할 때 오는 군대가 원군이다. 바로 얼마 전에 교황 율리오가 그렇게 했다. 그는 페라라 원정에서 자기 용병이 형편없이 싸우는 꼴을 보고는 원군으로 돌아서서, 스페인 왕 페르난도가 병력과 군대를 보내 자기를 돕도록 그와 약조를 맺었다. 이런 군대는 그 자체로는 쓸모 있고 훌륭할 수 있다. 그러나 불러들인 쪽에는 거의 언제나 해롭다. 지면 망하고, 이기면 그들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다. 옛 역사책에는 이런 예가 가득하지만, 그래도 나는 율리오 2세의 이 생생한 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 페라라를 손에 넣겠다고 제 몸을 통째로 외세의 손에 내맡긴 그의 결정만큼 생각이 모자란 결정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좋은 운명이 셋째 일을 일으켜 주어서, 그는 잘못 고른 길의 열매를 거두지 않았다. 그의 원군이 라벤나에서 무너지자[1] 그 자신도 남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스위스인이 일어나 승자를 몰아냈고, 그리하여 그는 적이 쫓겨났으니 적의 포로가 되지 않았으며 원군이 아닌 다른 군대로 이겼으니 자기 원군의 포로가 되지도 않았다. 피렌체인은 군대라고는 하나도 없는 처지에서 피사를 함락하려고 프랑스인 1만 명을 끌어들였는데[2], 이 결정 때문에 그들은 숱한 고난을 겪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험에 빠졌다. 콘스탄티노폴리스 황제는 이웃 나라들에 맞서려고 튀르크인 1만 명을 그리스에 들였는데[3], 전쟁이 끝나도 튀르크인이 떠나려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그리스가 이교도의 종이 되는 시작이었다.

그러니 이기지 못하기를 바라는 자라면 이런 군대를 쓰면 된다. 원군은 용병보다 훨씬 위험하다. 원군과 함께라면 파멸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원군은 모두 한 몸으로 뭉쳐 있고, 모두 남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용병은 다르다. 싸움에 이긴 뒤 고용주를 해치려 해도 시간이 더 걸리고 더 큰 기회가 있어야 한다. 용병은 한 몸으로 뭉쳐 있지 않은 데다 고용주가 찾아내 돈을 주고 부리는 군대여서, 고용주가 그 위에 우두머리로 앉힌 제3자라 해도 고용주를 해칠 만큼 큰 권위를 단번에 쥐지는 못한다. 요컨대 용병에서는 비겁함이 더 위험하고, 원군에서는 역량이 더 위험하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군주는 언제나 이런 군대를 피하고 자국군에 기대왔다. 남의 군대로 거둔 승리는 참된 승리가 아니라고 여겨서, 남의 군대로 이기느니 차라리 제 군대로 지는 쪽을 택했다. 나는 체사레 보르자와 그가 한 일을 예로 드는 데 언제든 주저하지 않겠다. 이 공작은 원군을 이끌고 로마냐에 들어갔다. 데려간 병사는 모두 프랑스인이었고, 그 군대로 이몰라와 포를리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 군대가 미덥지 않아 보이자 용병이 덜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용병으로 돌아서서 오르시니 가문과 비텔리 가문을 고용했다. 그런데 부려 보니 이들 역시 믿을 수 없고 충성스럽지 않으며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이들을 없애 버린 뒤 자국군으로 돌아섰다. 이 군대들이 서로 얼마나 다른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공작이 프랑스인만 거느렸을 때와 오르시니·비텔리 가문을 거느렸을 때, 그리고 제 병사만 데리고 스스로에게 기대게 되었을 때 그의 명성이 어떻게 달랐는지 따져 보기만 하면 된다. 그의 명성은 단계를 밟을 때마다 커졌고, 그가 제 군대의 온전한 주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보게 되었을 때에야 그는 비로소 크게 존중받았다.

나는 생생한 이탈리아의 예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시라쿠사의 히에론은 빼놓고 싶지 않은데, 그는 내가 앞에서 이름을 든

사람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시라쿠사인이 그를 군대의 우두머리로 세우자, 그는 그곳 용병대장들도 우리 이탈리아의 용병대장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이어서 그 용병이 쓸모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보았다. 그들을 붙잡아 둘 수도 내보낼 수도 없다고 판단한 그는 모조리 난도질해 죽였고, 그 뒤로는 남의 군대가 아니라 제 군대로 전쟁을 치렀다. 여기에 꼭 들어맞는 구약성경의 이야기 하나도 떠올려 보고 싶다. 다윗이 블레셋의 도전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사울에게 나서자, 사울은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려고 자기 갑옷을 입혀 주었다. 다윗은 그것을 몸에 걸쳐 보더니, 이것으로는 제 힘을 제대로 쓸 수 없다며 마다하고 자기 무릿매와 자기 칼을 들고 적을 맞으러 가겠다고 했다.[4]

결국 남의 무장은 몸에서 흘러내리거나, 무겁게 짓누르거나, 옥죄거나 셋 가운데 하나다. 루이 11세의 아버지 샤를 7세는 운명과 역량으로 프랑스를 잉글랜드인에게서 해방한 뒤 자국군으로 무장해야 할 필요를 깨닫고, 왕국 안에 기병과 보병을 상비군으로 편성하는 제도를 세웠다.[5] 그런데 그 아들 루이 왕은 보병대를 없애고 스위스인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 잘못을 뒤의 왕들도 그대로 따랐고, 지금 실제로 보듯이 이것이 그 왕국이 겪는 위험의 원인이 되었다. 스위스인의 명성을 높여 준 탓에 왕국은 제 군대의 기를 모조리 꺾어 놓았다. 보병은 없애 버렸고 기병은 남의 군대에 매이게 만들었으니, 기병은 스위스인과 함께 싸우는 데 길들어 그들 없이는 이길 수 없다고 여기게 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인은 스위스인을 상대로는 힘이 모자라고, 스위스인 없이는 다른 적을 상대로도 제대로 싸우지 못한다. 그러니 프랑스 군대는 일부는 용병이고 일부는 자국군인 혼성군이 되었다. 이런 군대를 통틀어 보면, 원군뿐이거나 용병뿐인 군대보다는 훨씬 낫지만 자국군보다는 훨씬 못하다. 이 예 하나로 충분하다. 샤를의 제도가 더 커지거나 그대로

지켜졌더라면 프랑스 왕국은 누구도 꺾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별이 모자라서, 처음에 맛이 좋으면 그 밑에 숨은 독은 알아채지 못한 채 일을 벌인다. 앞에서 소모열을 두고 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군주국을 다스리면서 화근이 생겨날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는 참으로 지혜롭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런 안목은 소수에게만 주어진다. 로마 제국이 처음 무너지기 시작한 까닭을 살펴보면, 오로지 고트족을 고용하기 시작한 데 있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6] 그때부터 로마 제국의 힘이 빠지기 시작했고, 제국에서 빠져나간 역량은 모조리 고트족에게 넘어갔다. 결론을 말하자면, 자국군이 없으면 어떤 군주국도 안전하지 않다. 오히려 역경에서 저를 지켜 줄 역량이 없으니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언제나 "제 힘에 기대지 않은 권력의 명성만큼 허약하고 불안정한 것은 없다"고 여기고 말해 왔다.'[7] 자국군이란 신민이나 시민, 또는 군주가 손수 길러 낸 부하로 이루어진 군대다. 그 밖의 군대는 모두 용병 아니면 원군이다. 자국군을 조직하는 길은 쉽게 찾을 수 있다. 내가 앞에서 이름을 든 네 사람의 제도를 두루 살피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와 여러 공화국과 군주가 어떻게 무장하고 군대를 조직했는지 보면 된다. 나는 그 제도들을 전적으로 따른다.

---

1. 1512년 4월 라벤나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스페인·교황 연합군을 크게 이겼으나 지휘관 가스통 드 푸아가 전사했다. 그해 여름 스위스군이 롬바르디아로 내려와 프랑스군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냈다.

2. 1500년 피렌체는 루이 12세에게서 빌린 군대로 피사를 포위했으나, 병사들이 들고일어나 포위는 실패로 끝났다.

3. 비잔티움 황제 요안니스 6세 칸타쿠지노스(재위 1347~1354). 내전과 이웃 나라와의 싸움에 오스만 튀르크 군대를 끌어들였는데, 1354년 튀르크인이 갈리폴리를 차지하면서 유럽에 발판을 마련했다.

4.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성경에서 다윗은 무릿매와 돌 다섯 개만 들고 나갔고, 칼은 쓰러진 골리앗의 것을 뽑아 썼다.

5. 샤를 7세(재위 1422~1461)는 1445년 상비 기병대를, 1448년 상비 보병대를 창설했고, 1453년 잉글랜드인을 몰아내 백년전쟁을 끝냈다. 아들 루이 11세(재위 1461~1483)는 보병대를 없애고 스위스 용병을 썼다.

6. 376년 발렌스 황제가 고트족을 제국 안으로 받아들였고, 38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들을 동맹군으로 삼아 군대에 썼다.

7. 타키투스 《연대기》 13권 19장. 마키아벨리가 적은 라틴어는 "quod nihil sit tam infirmum aut instabile quam fama potentiae non sua vi nixa"다. 타키투스의 원문은 "nihil rerum mortalium tam instabile ac fluxum est quam fama potentiae non sua vi nixae"로, 마키아벨리는 기억에 기대어 조금 다르게 적었다.

14장 — 군주는 군사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러므로 군주는 전쟁과 그 제도와 규율 말고는 다른 목표도 다른 생각도 품어서는 안 되며, 다른 어떤 것도 자기 기술로 삼아서는 안 된다. 명령하는 자에게 걸맞은 기술은 그것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이 기술은 힘이 대단해서, 군주로 태어난 자를 그 자리에 붙들어 줄 뿐 아니라 평범한 처지의 사람을 그 지위에까지 끌어올리는 일도 잦다. 거꾸로 군주들이 군대보다 사치와 안락을 더 생각했을 때 나라를 잃는 것도 우리는 보아 왔다. 나라를 잃는 첫째 원인은 이 기술을 소홀히 하는 데 있고, 나라를 얻는 원인은 이 기술에 정통한 데 있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무장했기에 평범한 개인에서 밀라노 공작이 되었고, 그 아들들은 군사의 고단함을 피하다가 공작에서 평범한 개인으로 떨어졌다.[1]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 해를 입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남에게 경멸을 받는 일이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이것은 군주가 조심해서 피해야 할 오명 가운데 하나다. 무장한 자와 무장하지 않은 자는 견줄 수조차 없다. 무장한 자가 무장하지 않은 자에게 기꺼이 복종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고, 무장하지 않은 자가 무장한 부하들 사이에서 마음 놓고 지내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다. 한쪽은 깔보고 다른 쪽은 의심하니, 둘이 함께 일을 잘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군사를 모르는 군주는, 이미 말한 다른 불행들 말고도, 제 병사들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그들을 믿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전쟁 연습에서 한시도 생각을 거두어서는 안 되며, 평화로울 때 오히려 전쟁 때보다 더 힘써 연습해야 한다. 그 길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몸으로 하는 연습이고, 다른 하나는 머리로 하는 연습이다. 몸으로 하는 연습을 보자면, 군주는 제 병사를 잘 편성하고 훈련해 두는 것 말고도 늘 사냥을 다니며 몸을 고생에 익혀야 한다. 그러면서 땅의 생김새를 익혀 산이 어떻게 솟고 골짜기가 어떻게 열리며 평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알고, 강과 늪의 성질을 파악해야 하며, 여기에 온 정성을 쏟아야 한다. 이런 앎은 두 가지로 쓸모가 있다. 첫째, 제 나라를 알게 되어 그 나라를 어떻게 지킬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그 땅들을 알고 몸소 겪어 보았으니, 새로 살펴야 할 다른 땅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토스카나의 언덕과 골짜기, 평야와 강과 늪은 다른 지방의 그것들과 어느 정도 닮아서, 한 지방의 지형을 알면 다른 지방의 지형도 쉽게 알게 된다. 이 솜씨가 없는 군주는 지휘관이 갖추어야 할 첫째 자질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이 솜씨가 있어야 적을 찾아내고, 진지를 잡고, 군대를 이끌고, 전투 대형을 짜고, 유리하게 도시를 포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카이아인의 수장 필로포이멘[2]은 역사가들에게서 여러 칭찬을 받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평화로운 때에도 오로지 전쟁의 방법만 생각했다는 것이다. 친구들과 들판에 나가면 그는 자주 걸음을 멈추고 그들과 이렇게 따져 보곤 했다. "적이 저 언덕 위에 있고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여기 있다면 어느 쪽이 유리하겠는가? 대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적에게 다가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겠는가? 우리가 물러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적이 물러난다면 어떻게 뒤쫓아야 하겠는가?" 그는 길을 가면서 군대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경우를 친구들에게 내놓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자기 의견을 말하고, 근거를 들어 뒷받침했다. 이렇게 끊임없이 궁리한 덕분에, 그가 군대를 이끄는

동안에는 그가 미리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은 사태가 단 한 번도 일어날 수 없었다.

머리로 하는 연습을 보자면, 군주는 역사서를 읽어야 한다. 거기서 뛰어난 인물들의 행적을 살피고, 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처신했는지 보고, 그들이 이기고 진 까닭을 따져서, 진 까닭은 피하고 이긴 까닭은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난날 몇몇 뛰어난 인물이 한 대로 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보다 앞서 칭송과 영광을 누린 인물을 본보기로 삼아 그 사람의 공적과 행적을 늘 곁에 두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은 아킬레우스를, 카이사르는 알렉산드로스를, 스키피오는 키루스를 본받았다고 한다. 크세노폰이 쓴 키루스의 전기를 읽은 사람이라면[3], 그 본받음이 스키피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었는지, 그리고 스키피오가 정결함과 붙임성과 인정과 너그러움에서 크세노폰이 키루스를 두고 적은 바와 얼마나 닮았는지를 스키피오의 생애에서 알아볼 것이다. 지혜로운 군주는 이런 길을 지켜야 한다. 평화로운 때에도 결코 빈둥거리지 말고 부지런히 이를 밑천으로 쌓아 역경에서 꺼내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래야 운명이 뒤바뀔 때, 운명은 맞설 채비를 이미 갖춘 그를 마주하게 된다.

---

1. 3장에 나온 루도비코 일 모로가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의 아들이다.

2. 필로포이멘(기원전 253년경~183). 아카이아 동맹의 장군으로 여러 차례 동맹군을 이끌었다. 이 일화는 리비우스 《로마사》 35권 28장과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전한다.

3. 크세노폰(기원전 430년경~354년경)의 《키루스의 교육》. 페르시아를 세운 키루스 2세의 생애를 빌려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을 그렸다.

15장 — 사람들이, 특히 군주가 칭찬받거나 비난받는 일들에 대하여

이제 남은 것은 군주가 신민과 벗들을 어떻게 대하고 다스려야 하는지 살피는 일이다. 이 문제를 두고 글을 쓴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나까지 이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도 다른 이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 논하면 주제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그러나 내 뜻은 알아듣는 이에게 쓸모 있는 글을 쓰는 데 있으므로, 나는 사물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기보다 그 실제의 진실(verità effettuale)을 따라가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 많은 사람이 공화국과 군주국을 머릿속으로 그려 냈지만, 그런 나라가 실제로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안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삶과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은 너무도 동떨어져 있어서, 실제로 하는 일을 버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좇는 자는 자기를 지키는 법보다 오히려 파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모든 일에서 선하게만 굴려는 사람은 선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 틈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리를 지키려는 군주는 선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을 배우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해야 한다.

그러니 군주를 두고 상상해 낸 것들은 제쳐 두고 참된 것들을 논하자면, 내 말은 이렇다. 사람은 누구나 남의 입에 오르내릴 때 비난이나 칭찬을 불러오는 다음 자질 가운데 어느 것으로 불리게 마련이고,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군주는 더욱 그렇다. 곧 어떤 이는 너그럽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이는 인색하다는 말을 듣는다. 여기서 나는

토스카나 말을 쓴다. 우리말에서 욕심 많은 자(avaro)라고 하면 빼앗아서라도 가지려는 사람까지 가리키고, 제 것을 쓰기를 지나치게 꺼리는 사람은 인색한 자(misero)라고 부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베풀기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이는 약탈을 일삼는다는 말을 듣는다. 어떤 이는 잔인하고 어떤 이는 자비롭다. 하나는 신의를 저버리고 하나는 신의를 지키며, 하나는 나약하고 소심한가 하면 하나는 사납고 대담하다. 하나는 인정이 있고 하나는 오만하며, 하나는 음탕하고 하나는 정결하다. 하나는 정직하고 하나는 교활하며, 하나는 모질고 하나는 무르다. 하나는 진중하고 하나는 경박하며, 하나는 신앙심이 깊고 하나는 믿음이 없다. 그 밖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 군주가 위에 든 자질 가운데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더없이 칭찬할 만한 일이라는 데 누구나 동의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인간의 조건이 허락하지 않으니 그 자질을 다 갖출 수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군주는 나라를 잃게 할 악덕의 오명은 피할 줄 알 만큼 분별이 있어야 하고, 나라를 잃게 하지는 않는 악덕도 할 수만 있다면 삼가야 한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그런 악덕은 크게 개의치 않고 내버려 두어도 된다. 또 그런 악덕 없이는 나라를 지키기 어렵다면, 그 악덕 때문에 오명을 뒤집어쓰는 것도 꺼리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것을 잘 따져 보면, 미덕(virtù)처럼 보이지만 따르면 파멸에 이르는 것이 있고, 악덕처럼 보이지만 따르면 안전과 번영을 얻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1]

---

1. 이 문단은 저본으로 삼은 전자판에 빠져 있어 1814년 판으로 보충했다.

16장 — 너그러움과 인색함에 대하여

그러면 앞에 든 자질 가운데 맨 처음 것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말하겠다. 너그럽다는 평을 듣는다면 좋은 일일 것이다. 그렇지만 너그럽다는 평을 들을 만큼 너그러움을 베풀면 오히려 해를 입는다. 너그러움을 미덕답게, 마땅히 써야 할 대로 쓰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반대인 인색하다는 오명도 떨쳐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너그럽다는 이름을 지키려면 어떤 호사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이런 군주는 언제나 그런 호사에 가진 재산을 몽땅 쏟아붓게 되고, 끝내 너그럽다는 이름을 지키고 싶으면 인민에게 터무니없는 세금을 매기고 가혹하게 거두어들이며 돈을 얻으려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하는 처지에 몰린다. 그러면 그는 신민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하고, 가난해지면서 누구에게도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그는 너그러움을 베풀다가 많은 사람을 해치고 소수에게만 상을 준 꼴이 되어, 작은 어려움에도 휘청거리고 처음 닥친 위험에도 쓰러질 지경에 이른다. 그가 이를 깨닫고 발을 빼려 하면 곧바로 인색한 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쓴다.

그러니 군주는 자기가 해를 입지 않고서는 남이 알아볼 만큼 너그러움이라는 미덕을 베풀 수 없으므로, 분별이 있다면 인색한 자라는 이름을 개의치 말아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그는 갈수록 너그럽다는 평을 듣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인색한 덕에 수입만으로도 넉넉하고, 전쟁을 걸어오는 자에게서 나라를 지킬 수 있으며, 인민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도 큰일을 벌일 수 있음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재물을 빼앗지 않는 모든 사람, 곧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베푸는 셈이 되고, 베풀지 않는 모든 사람, 곧 몇 안 되는 사람에게만 인색하게 구는 셈이 된다. 우리 시대에 큰일을 해낸 사람은 인색하다는 평을 들은 자들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망했다. 교황 율리오 2세는 교황 자리에 오를 때 너그럽다는 이름을 써먹었지만[1], 그 뒤로는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그 이름을 지키려 하지 않았다. 지금의 프랑스 왕[2]은 신민에게 특별세를 한 번도 매기지 않고 그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오로지 오랜 인색함 덕분에 불어난 지출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스페인 왕도 너그럽다는 평을 들었다면 그 많은 원정을 벌이지도, 이겨 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신민의 것을 빼앗지 않으려면, 자기를 지킬 수 있으려면, 가난해져 경멸받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약탈을 일삼게 되지 않으려면, 인색한 자라는 이름을 얻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한다. 이것은 그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 주는 악덕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카이사르는 너그러움으로 제국의 권좌에 올랐고, 다른 많은 사람도 너그러웠고 또 너그럽다는 평을 들은 덕에 아주 높은 자리에 올랐다."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이미 군주가 되었거나 군주 자리를 얻으려고 가는 길이거나 둘 중 하나다. 앞의 경우라면 이런 너그러움은 해롭고, 뒤의 경우라면 너그럽다는 평을 듣는 것이 꼭 필요하다. 카이사르는 로마의 군주 자리에 오르려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 오른 뒤에도 살아남아 그런 씀씀이를 줄이지 않았다면 그 제국을 망쳐 놓았을 것이다. 누군가 다시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다. "더없이 너그럽다는 평을 들으면서 군대로 큰일을 해낸 군주도 많았다."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군주는 자기 것과 신민의 것을 쓰거나, 남의 것을 쓴다. 앞의 경우라면

아껴 써야 하고, 뒤의 경우라면 너그러움을 조금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군대를 이끌고 다니며 노획과 약탈과 강제 징수로 먹고사는 군주는 남의 것을 주무르는 셈이니, 그런 군주에게는 이 너그러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병사들이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자기 것도 신민의 것도 아닌 재물이라면 얼마든지 후하게 나누어 줄 수 있다. 키루스와 카이사르와 알렉산드로스가 그랬다. 남의 것을 쓰면 명성이 깎이기는커녕 오히려 높아지니, 해가 되는 것은 오직 자기 것을 쓰는 일뿐이다. 너그러움만큼 스스로를 갉아먹는 것도 없다. 너그러움을 베푸는 동안 베풀 밑천을 잃게 되고, 그러면 가난해져 경멸받거나, 가난을 피하려다 약탈을 일삼아 미움을 받게 된다. 군주가 조심해서 피해야 할 모든 것 가운데에는 경멸받는 일과 미움받는 일이 있는데, 너그러움은 군주를 이 둘 모두로 이끈다. 그러므로 너그럽다는 이름을 얻으려다 어쩔 수 없이 약탈자라는 이름을 뒤집어쓰는 것보다, 인색한 자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편이 더 지혜롭다. 인색한 자라는 이름은 미움 없는 오명을 낳지만, 약탈자라는 이름은 미움까지 따르는 오명을 낳는다.

---

1. 7장에서 다룬 1503년 교황 선거에서 율리오 2세는 추기경들에게 후한 약속과 선물을 아끼지 않아 거의 만장일치로 뽑혔다.

2. 지금의 프랑스 왕은 루이 12세, 바로 뒤에 나오는 지금의 스페인 왕은 아라곤의 페르난도다.

17장 — 잔인함과 자비에 대하여, 그리고 사랑받는 것과 두려움을 사는 것 중 어느 쪽이 나은가

앞에 든 다른 자질로 넘어가자면, 나는 모든 군주가 잔인하다는 평이 아니라 자비롭다는 평을 듣기를 바라야 한다고 말하겠다. 그렇지만 이 자비를 잘못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체사레 보르자는 잔인하다는 평을 들었다. 그런데도 그의 잔인함은 로마냐를 바로잡아 하나로 묶고, 평화와 충성을 되찾게 했다. 이를 잘 따져 보면, 잔인하다는 이름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망가지도록 내버려 둔 피렌체 인민보다 그가 훨씬 자비로웠음을 알게 될 것이다.[1] 그러므로 군주는 신민을 하나로 묶고 충성하게 하려면 잔인하다는 오명쯤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본보기로 아주 몇 사람만 벌하는 군주가, 지나친 자비 탓에 혼란을 내버려 두어 끝내 살인과 약탈이 벌어지게 하는 자들보다 오히려 더 자비롭기 때문이다. 살인과 약탈은 대개 공동체 전체를 해치지만, 군주가 내리는 처형은 몇몇 개인만 해친다. 그리고 모든 군주 가운데서도 신생 군주는 잔인하다는 이름을 피할 수 없다. 새로 세운 국가는 위험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베르길리우스도 디도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한다.

> 가혹한 형편과 갓 세운 나라의 처지가 나를 몰아세워
> 이런 일을 꾀하게 하고, 파수꾼을 두어 국경을 멀리까지 지키게 한다.[2]

그렇지만 군주는 남의 말을 믿을 때나 행동에 나설 때 신중해야 하고, 제 그림자에 놀라 겁을 먹어서도 안 된다. 분별과 인정으로 절도 있게 처신하여, 지나친 믿음 때문에 경솔해지지도 말고 지나친 불신 때문에 남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지도 말아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논란이 생긴다. 두려움을 사기보다 사랑받는 편이 나은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대답은 이렇다. 둘 다 되기를 바라야 하겠지만, 둘을 한데 아우르기는 어렵다. 그러니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을 사는 편이 훨씬 안전하다.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럽고, 겉으로 꾸미고 속을 감추며, 위험은 피하고, 이익에는 눈이 어둡다. 군주가 잘해 주는 동안에는 모두 군주의 편이어서, 앞에서 말했듯이 필요한 때가 아직 멀리 있을 때는 피도 재산도 목숨도 자식도 다 바치겠다고 나서지만, 정작 그때가 다가오면 등을 돌린다. 그러니 그들의 말만 철석같이 믿고 다른 대비는 하나도 해 두지 않은 군주는 망한다. 위대하고 고결한 정신으로 얻지 않고 돈을 주고 산 우정은 값을 치렀으니 받을 자격은 있을지언정 실제로 손에 들어오지는 않으며, 정작 필요할 때 꺼내 쓸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은 두려움을 사는 자보다 사랑받는 자를 해치는 데 덜 망설인다. 사랑은 은혜라는 끈으로 묶여 있는데 사람은 사악해서 제게 이로운 기회만 생기면 언제든 그 끈을 끊어 버리지만, 두려움은 벌받을지 모른다는 공포로 묶여 있고 그 공포는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군주는 두려움을 사되, 사랑을 얻지 못하더라도 미움만은 피하도록 해야 한다. 두려움을 사는 일과 미움받지 않는 일은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주가 시민과 신민의 재산과 그들의 여자에게 손대지 않는다면 언제나 그렇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목숨을 거두어야 할 때도 마땅한 명분과 뚜렷한 이유가 있을 때만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남의 재산에는

손대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은 아버지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물려받은 재산을 잃은 일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산을 빼앗을 구실은 결코 떨어지지 않아서, 약탈로 살기 시작한 자는 언제나 남의 것을 차지할 구실을 찾아낸다. 반대로 목숨을 거둘 구실은 더 드물고 더 빨리 바닥난다.

그러나 군주가 군대를 이끌고 수많은 병사를 다스릴 때에는 잔인하다는 이름을 조금도 개의치 말아야 한다. 이런 이름 없이는 어떤 군대도 하나로 뭉치게 하거나 작전에 나서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한니발의 놀라운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일이 있다. 그는 온갖 민족이 뒤섞인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남의 땅에서 싸웠는데, 운명이 그에게 등을 돌릴 때나 웃어 줄 때나 병사들끼리든 우두머리에게든 다툼 한 번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다름 아닌 그의 비인간적인 잔인함에서 비롯되었다. 이 잔인함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의 역량과 어우러져 병사들 눈에 그를 언제나 우러러보이면서도 무서운 존재로 만들었고, 잔인함이 없었다면 다른 역량만으로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에 모자랐을 것이다. 그런데 생각이 얕은 저술가들은 한편으로는 그의 이 업적을 찬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업적의 으뜸가는 원인을 비난한다. 그의 다른 역량만으로는 모자랐으리라는 말이 사실임은 스키피오를 보면 알 수 있다. 스키피오는 그의 시대뿐 아니라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든 역사를 통틀어도 보기 드문 인물이었지만, 스페인에서 그의 군대가 그에게 반기를 들었다.[3] 이 일은 다름 아닌 그의 지나친 자비에서 일어났다. 그는 자비가 넘친 나머지 병사들에게 군기에 맞지 않을 만큼 많은 방종을 허락했다. 파비우스 막시무스는 원로원에서 이 일로 그를 꾸짖으며 로마 군대를 타락시킨 자라고 불렀다.'[4] 또 스키피오의 한 부장이 로크리인을 짓밟았을 때도,[5] 스키피오는 로크리인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않았고, 그 부장의 오만방자함을 바로잡지도 않았다. 이 모두가

그의 무른 성품에서 나왔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그를 감싸려던 어떤 이는, 세상에는 남의 잘못을 바로잡기보다 제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데 더 능한 사람이 많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가 이런 성품을 지닌 채 계속 지휘권을 쥐고 있었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명성과 영광은 더럽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원로원의 통제 아래 있었기에, 이 해로운 성품은 감추어졌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영광이 되었다.

그러면 두려움을 사는 일과 사랑받는 일로 돌아가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다.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사랑하지만 두려워하는 것은 군주의 뜻에 달려 있으니, 지혜로운 군주는 남의 것이 아니라 제 것에 기대야 한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미움만은 피하도록 애써야 한다.

---

1. 1500~1502년 피스토이아에서 칸첼리에리파와 판차티키파가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벌였는데, 피렌체는 단호하게 손쓰지 않아 도시가 크게 망가졌다.

2. 베르길리우스 《아이네이스》 1권 563~564행. 카르타고의 여왕 디도가 난파해 온 트로이 사람들에게 국경을 엄하게 지키는 까닭을 밝히는 대목이다. 원문은 "Res dura, et regni novitas me talia cogunt / moliri, et late fines custode tueri."

3. 기원전 206년 스키피오가 병으로 누워 있는 사이 스페인 수크로에 주둔한 로마군 일부가 들고일어났다. 리비우스 《로마사》 28권 24~29장.

4. 로크리 사건을 다룬 기원전 204년 원로원 논의에서 나온 말이다. 리비우스 《로마사》 29권 19장.

5. 기원전 205년 스키피오가 로크리에 남겨 둔 부장 플레미니우스가 주민을 약탈하고 학대했다. 리비우스 《로마사》 29권 8~9장, 16~22장.

18장 — 군주는 신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군주가 신의를 지키며 교활함이 아니라 정직함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칭찬받을 일인지는 누구나 안다. 그런데도 우리 시대의 경험이 보여주듯이 큰일을 해낸 것은 신의를 하찮게 여기고 교활함으로 사람들의 머리를 홀릴 줄 알았던 군주들이었고, 결국 그들이 성실함에 기댄 군주들을 이겼다.

그러니 싸우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는 법으로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으로 싸우는 것이다. 앞의 것은 사람에게 걸맞고, 뒤의 것은 짐승에게 걸맞다. 그러나 앞의 것으로는 모자랄 때가 많으니 뒤의 것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군주는 짐승과 사람을 둘 다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옛 작가들은 이것을 군주들에게 에둘러 가르쳤다. 그들은 아킬레우스를 비롯한 옛 군주 여럿이 켄타우로스 케이론에게 맡겨져 그의 가르침 아래 길러졌다고 적었다.[1] 반은 짐승이고 반은 사람인 자를 스승으로 두었다는 것은, 군주가 두 본성을 다 쓸 줄 알아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일 뿐이다.

이처럼 군주는 짐승을 잘 쓸 줄 알아야 하므로, 짐승 가운데 여우와 사자를 골라야 한다. 사자는 덫에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고, 여우는 늑대에게서 제 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덫을 알아보려면 여우가 되어야 하고, 늑대를 겁주려면 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저 사자로만 버티는 자들은 이 이치를 모른다. 그러므로 분별 있는

통치자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되고 약속하게 만든 이유도 사라졌을 때, 신의를 지킬 수도 없고 지켜서도 안 된다. 사람이 모두 선하다면 이 가르침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사악해서 군주에게 신의를 지키지 않을 터이니, 군주 또한 그들에게 신의를 지킬 까닭이 없다. 그리고 군주에게는 약속을 어긴 일을 그럴듯하게 꾸밀 정당한 구실이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요즘의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고, 군주들이 신의를 저버린 탓에 얼마나 많은 평화 조약과 얼마나 많은 약속이 무효가 되고 헛것이 되었는지 보여 줄 수 있다. 그리고 여우 노릇을 가장 잘한 자가 가장 잘되었다. 다만 이 본성을 잘 위장할 줄 알아야 하고, 겉으로 꾸미고 속을 감추는 데 능해야 한다. 사람들은 몹시 단순하고 눈앞의 필요에 쉽게 굴복하므로, 속이려는 자는 언제나 속아 줄 사람을 찾아낸다.

요즘의 예 가운데 하나만은 말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알렉산데르 6세는 사람을 속이는 일 말고는 한 일도 생각한 일도 없었으며, 언제나 속일 상대를 찾아냈다. 그보다 더 힘주어 장담하고 더 굳게 맹세하며 무언가를 약속하면서 그보다 덜 지킨 사람은 일찍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의 속임수는 언제나 뜻대로 먹혀들었다. 그가 세상의 이런 면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가 앞에 든 자질을 실제로 모두 갖출 필요는 없지만, 갖춘 것처럼 보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나아가 감히 이렇게까지 말하겠다. 그런 자질을 갖추고 늘 지키면 해롭고, 갖춘 것처럼 보이면 이롭다. 자비롭고, 신의 있고, 인정 있고, 정직하고, 신앙심 깊은 사람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렇게 굴지 말아야 할 때는 정반대로 바뀔 수 있고 바뀔 줄도 알도록 마음을 단련해 두어야 한다. 이 점을 알아 두어야 한다. 군주는, 특히 신생 군주는 사람들이 선하다는 평을 듣게 해 주는 일들을 다 지킬 수 없다.

권력을 지키려면 신의를 거스르고, 자애를 거스르고, 인정을 거스르고, 신앙을 거스르는 일을 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운명의 바람과 변화가 명하는 대로 방향을 틀 준비가 된 마음을 지녀야 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할 수 있으면 선에서 떠나지 말되 어쩔 수 없을 때는 악으로 들어설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군주는 앞에 든 다섯 가지 자질이 가득 담기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크게 조심해야 하며, 보고 듣는 이에게 온통 자비요, 온통 신의요, 온통 정직이요, 온통 신앙인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 그리고 갖춘 듯 보이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자질은 이 마지막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손보다 눈으로 판단한다. 보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만 만져 보는 것은 소수에게만 허락되기 때문이다. 군주가 어떻게 보이는지는 누구나 보지만, 군주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만져 보는 이는 드물다. 그리고 그 몇 안 되는 이들은 국가의 위엄이 지켜 주는 다수의 의견에 감히 맞서지 못한다. 모든 사람의 행동, 특히 호소할 법정이 없는 군주의 행동에서는 사람들이 결과를 본다. 그러니 군주는 이기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만 힘쓰면 된다. 그 수단은 언제나 훌륭하다는 평을 받고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것이다. 대중은 언제나 겉모습과 일의 결과에 넘어가는데, 세상에는 대중밖에 없다. 다수가 기댈 곳을 찾았을 때 소수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편이 좋을 오늘날의 어떤 군주는[2] 입만 열면 평화와 신의를 설교하지만, 실은 그 둘의 철천지원수다. 그가 그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켰더라면 명성이든 나라든 벌써 여러 번 잃었을 것이다.

---

1. 그리스 신화의 켄타우로스(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말). 아킬레우스, 이아손, 아스클레피오스 같은 영웅을 길러 낸 현명한 스승이다.

2. 아라곤의 페르난도를 가리킨다고 본다.

19장 — 경멸과 미움을 피하는 일에 대하여

앞에서 언급한 자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미 이야기했으니, 나머지는 하나의 일반 원칙 아래 간단히 다루겠다. 그 원칙이란, 앞에서도 일부 말했듯이, 군주는 자신을 미움받게 하거나 경멸받게 하는 일을 피할 궁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만 피한다면 군주는 제 몫을 다한 셈이고, 다른 오명을 쓰더라도 아무런 위험을 겪지 않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군주가 미움을 사는 까닭은 무엇보다 탐욕스럽게 신민의 재산과 여자를 빼앗는 데 있다. 그러니 이런 짓은 삼가야 한다. 대다수 사람은 재산도 명예도 빼앗기지 않는 한 만족하며 살아가므로, 군주는 소수의 야심과 씨름하기만 하면 되고, 그런 야심은 여러 수단으로 손쉽게 누를 수 있다. 군주가 경멸을 사는 것은 변덕스럽고 경박하고 유약하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하다는 평을 들을 때다. 군주는 이것을 암초처럼 피해야 한다. 그리고 제 행동에서 위대함과 기개, 진중함과 굳셈이 드러나도록 애써야 하며, 신민들 사이의 사사로운 일에서는 자기가 내린 판결을 아무도 뒤집을 수 없게 해야 한다. 또 누구도 자신을 속이거나 농락할 생각을 품지 못할 만큼 그런 평판을 굳게 지켜야 한다.

사람들에게 이런 평판을 심어 주는 군주는 명성이 높다. 그리고 명성 높은 자를 상대로는 음모를 꾸미기도 어렵고 공격하기도 어렵다. 다만 그가 뛰어난 인물이고 자기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는다는 것이 알려져 있어야 한다. 군주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기 때문이다. 하나는 안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신민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밖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외국 세력 때문이다. 밖의 위협은 좋은 군대와 좋은 우방으로 막는다. 좋은 군대가 있으면 좋은 우방은 언제나 따라온다. 그리고 밖이 안정되어 있으면 안도 언제나 안정되어 있다. 음모가 안을 어지럽히지만 않는다면 말이다. 설령 밖이 흔들리더라도, 군주가 내가 말한 대로 나라를 정비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면, 스스로 주저앉지만 않는 한 어떤 공세든 버텨 낼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스파르타의 나비스가 그렇게 했다. 그러나 신민에 관해서는, 밖에서 아무 움직임이 없을 때에도 그들이 몰래 음모를 꾸미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군주가 이 위험에서 확실히 벗어나려면 미움이나 경멸을 피하고 인민이 자신에게 만족하게 하면 된다. 앞에서 길게 말했듯이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다. 음모에 맞서 군주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방 가운데 하나는 대중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이다. 음모를 꾸미는 자는 언제나 군주를 죽이면 인민이 기뻐하리라고 믿기 때문이다. 오히려 인민의 노여움을 사리라고 생각하면, 음모자는 그런 일을 벌일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음모자 쪽에 놓인 어려움은 끝이 없으니까. 경험이 보여 주듯 음모는 많았으나 성공한 것은 드물었다. 음모자는 혼자 일을 꾸밀 수 없고, 불만을 품었다고 믿는 자 말고는 한패로 끌어들일 수도 없다. 그런데 불만을 품은 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음모자는 그에게 불만을 풀 거리를 쥐여 주는 셈이 된다. 그자로서는 이 비밀을 군주에게 알리기만 하면 온갖 이득을 바랄 수 있음이 뻔하다. 한쪽에서는 이득이 확실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득이 불확실한 데다 위험투성이로 보이니, 그가 음모자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킨다면 그는 보기 드문 친구이거나 군주에게 뼛속 깊이 원한을 품은 원수일 수밖에 없다. 간단히 줄여 말하겠다. 음모자 쪽에는 그를 겁먹게 하는 두려움과 의심, 처벌받으리라는 불안밖에 없다. 반면 군주 쪽에는 군주 자리의 위엄과 법률, 우방과 국가의 방비가 있어 그를 지켜 준다. 그러니 여기에 인민의

호의까지 더해지면 음모를 꾸밀 만큼 무모한 자가 나오기란 불가능하다. 보통 음모자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만 두려워하면 되지만, 이 경우에는 거사를 치른 뒤에도 두려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는 인민이 적이 되어 어디에서도 피난처를 바랄 수 없다.

이에 관해서는 예를 끝없이 들 수 있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에 일어난 일 하나로 만족하겠다. 지금 살아 있는 안니발레의 할아버지이자 볼로냐의 군주였던 안니발레 벤티볼리오[1]가 그를 노린 칸네스키 가문의 음모로 살해되었을 때, 그의 혈육이라고는 아직 강보에 싸인 조반니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살인이 벌어지자마자 인민이 들고일어나 칸네스키 가문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는 그 무렵 벤티볼리오 가문이 누리던 인민의 호의에서 나온 일이다. 그 호의가 얼마나 컸던지, 안니발레가 죽은 뒤 볼로냐에는 나라를 맡을 만한 가문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피렌체에 그때까지 대장장이의 아들로 알려져 있던 벤티볼리오 가문의 핏줄이 하나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볼로냐 사람들은 피렌체까지 그를 찾아가 도시의 통치를 맡겼다.'[2] 그는 조반니가 다스릴 만한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도시를 다스렸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하자면, 인민이 호의를 품고 있는 한 군주는 음모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인민이 적대하고 미워한다면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 잘 짜인 국가와 지혜로운 군주는 귀족을 절망으로 몰지 않으면서 인민을 만족시키고 흡족하게 해 두는 데 온 정성을 기울여 왔다. 이것이야말로 군주가 다룰 가장 중요한 일에 속하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에 잘 짜이고 잘 다스려지는 왕국으로는 프랑스가 있다. 그곳에는 좋은 제도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왕의 자유와 안전이 거기에 달려 있다. 그 가운데 으뜸은 고등법원(parlamento)과 그 권위다.[3] 까닭은 이렇다. 그 왕국의 제도를 세운 사람은 세력가들의 야심과

오만을 알았고,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대중이 귀족을 두려워한 나머지 미워한다는 것도 알았고, 대중을 안심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을 왕이 직접 떠맡게 하지 않았다. 인민 편을 들면 귀족에게, 귀족 편을 들면 인민에게 원망을 살 수 있으니, 왕에게서 그 짐을 덜어 주려 했다. 그래서 그는 제삼의 심판자를 세워, 왕이 원망을 사지 않고도 귀족을 누르고 힘없는 이들을 돕게 했다. 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 현명한 제도는 있을 수 없었고, 왕과 왕국의 안전에 이보다 크게 이바지하는 것도 없다. 여기서 새겨 둘 교훈을 하나 더 끌어낼 수 있다. 군주는 원망을 살 일은 남에게 맡기고, 은혜를 베풀 일은 몸소 해야 한다. 다시 결론을 말하자면, 군주는 귀족을 존중해야 하지만 인민에게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

로마 황제 몇몇의 삶과 죽음을 살펴본 많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내 견해와 어긋나는 사례로 보일지도 모르겠다. 줄곧 훌륭하게 살며 정신의 큰 역량을 보여 주었는데도 제국을 잃거나, 자기 사람들이 꾸민 음모로 죽임을 당한 황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반론에 답하고자 몇몇 황제의 자질을 논하면서, 그들이 몰락한 원인이 내가 앞에서 제시한 것과 다르지 않음을 보이겠다. 아울러 그 시대의 행적을 읽는 사람이 눈여겨볼 만한 점들도 함께 짚어 보겠다. 철학자 마르쿠스부터 막시미누스까지 제위를 이은 황제들을 모두 다루는 것으로 충분하리라. 마르쿠스, 그의 아들 콤모두스, 페르티낙스, 율리아누스, 세베루스, 그의 아들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마크리누스, 엘라가발루스, 알렉산데르, 막시미누스가 그들이다.[4] 먼저 짚어 둘 것이 있다. 다른 군주국에서는 귀족의 야심과 인민의 오만만 상대하면 되었지만, 로마 황제들에게는 세 번째 어려움이 있었다. 병사들의 잔인함과 탐욕까지 견뎌야 했다.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어서 많은 황제가 그 때문에 몰락했다.

병사와 인민을 함께 만족시키기란 어려웠다. 인민은 평온을 사랑해서 온건한 군주를 좋아했고, 병사들은 무인 기질에 오만하고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군주를 좋아했으니까. 병사들은 군주가 그런 기질을 인민에게 휘둘러 주기를 바랐다. 그래야 봉급을 두 배로 받고 자기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마음껏 풀 수 있었다. 그 결과, 타고난 성품으로든 수완으로든 양쪽을 다 휘어잡을 만큼 큰 명성을 얻지 못한 황제들은 언제나 몰락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황제, 특히 신흥 인물로서 군주 자리에 오른 이들은 서로 다른 이 두 기질을 함께 다루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병사들을 만족시키는 쪽으로 돌아섰으며, 인민을 해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런 선택은 어쩔 수 없었다. 군주는 누군가에게 미움받는 일을 피할 수 없으므로, 먼저 대다수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그럴 수 없을 때는 가장 힘센 집단의 미움만큼은 온갖 수를 다해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로 제위에 올라 남다른 지지가 필요했던 황제들은 인민보다 병사들 편에 섰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로웠는지 아닌지는 그 군주가 병사들 사이에서 명성을 지킬 줄 알았느냐에 달려 있었다. 앞에서 말한 이런 까닭으로, 마르쿠스와 페르티낙스와 알렉산데르는 모두 절제하며 살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잔인함을 미워했으며 인정 많고 온화했는데도, 마르쿠스를 빼고는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마르쿠스만이 더없이 존경받으며 살다가 죽었다. 그는 세습의 권리로 제위를 이었으므로 병사에게도 인민에게도 제위를 빚질 까닭이 없었다. 게다가 그를 우러르게 만드는 여러 미덕을 갖추었기에, 살아 있는 동안 병사와 인민 두 계층을 늘 제 분수 안에 묶어 두었고, 한 번도 미움이나 경멸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페르티낙스는 병사들의 뜻을 거슬러 황제가 되었다. 콤모두스 밑에서 방종하게 사는 데 익숙해진 병사들은 페르티낙스가 그들에게 지우려던

반듯한 생활을 견디지 못했다. 그래서 페르티낙스는 미움을 샀고, 늙었다는 이유로 경멸까지 더해져,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몰락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미움은 악행 못지않게 선행으로도 산다는 점이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권력을 지키려는 군주는 선하지 않게 행동하도록 내몰릴 때가 많다. 인민이든 병사든 귀족이든, 군주가 자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집단이 썩어 있다면, 군주는 그들을 만족시키려고 그 기질을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선행은 오히려 군주의 적이 되기 때문이다. 이제 알렉산데르로 가 보자. 그는 몹시 선량한 사람이어서, 그에게 돌아가는 여러 찬사 가운데에는 제위에 있던 열네 해 동안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인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있다. 그런데도 그는 유약하고 어머니에게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평을 들어 경멸을 샀고, 결국 군대가 음모를 꾸며 그를 죽였다.

이번에는 반대로 콤모두스, 세베루스, 안토니누스 카라칼라, 막시미누스의 자질을 따져 보면, 이들이 더없이 잔인하고 탐욕스러웠음을 알게 된다. 이들은 병사들을 만족시키려고 인민에게 저지를 수 있는 온갖 해악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세베루스를 빼고는 모두 비참하게 끝났다. 세베루스는 역량이 워낙 커서, 인민을 무겁게 짓누르면서도 병사들을 제 편으로 붙잡아 둔 덕에 끝까지 순탄하게 다스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역량은 병사와 인민의 눈에 너무도 놀라워 보여서, 인민은 말하자면 넋을 잃고 얼이 빠졌고, 병사들은 그를 우러르며 흡족해했다. 그의 행적은 신생 군주로서는 위대한 것이었으므로, 그가 여우와 사자의 탈을 얼마나 잘 쓸 줄 알았는지 간단히 보여 주겠다. 앞에서 말했듯이 군주는 이 두 짐승의 본성을 본받아야 한다. 세베루스는 율리아누스 황제가 무기력하다는 것을 알아차리자, 자신이 지휘관으로 있던 슬라보니아[5]의 군대에게 로마로 가서 근위대 병사들 손에 죽은 페르티낙스의 원수를 갚는 것이 옳다고

설득했다. 그는 이것을 구실 삼아, 제위를 노리는 기색은 조금도 내비치지 않은 채 로마를 향해 군대를 움직였고, 그가 출발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전에 이탈리아에 들어와 있었다. 그가 로마에 이르자 원로원은 두려움에 떨며 그를 황제로 선출하고 율리아누스를 죽였다. 이렇게 첫발을 내디뎠지만, 제국 전체의 주인이 되려는 세베루스 앞에는 아직 두 가지 어려움이 남아 있었다. 하나는 아시아에서 그곳 군대를 거느리고 스스로 황제를 칭한 니게르였고, 다른 하나는 서방에 있으면서 그 역시 제위를 노리던 알비누스였다.[6] 두 사람 모두에게 적의를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한 그는 니게르는 치고 알비누스는 속이기로 했다. 그는 알비누스에게 편지를 보내, 원로원이 자신을 황제로 선출했으니 그 지위를 그와 나누고 싶다고 했다. 그러고는 카이사르의 칭호를 보내고, 원로원의 결의를 거쳐 그를 동료로 삼았다. 알비누스는 이 모든 것을 참말로 믿었다. 그러나 니게르를 무찔러 죽이고 동방을 평정한 세베루스는 로마로 돌아오자 원로원에서 알비누스를 성토했다. 알비누스가 제게 받은 은혜도 모르고 흉계를 꾸며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 그 배은망덕을 벌하러 가야만 하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프랑스[7]로 알비누스를 찾아가 그의 권력과 목숨을 함께 빼앗았다.

그러니 그의 행적을 꼼꼼히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그가 더없이 사나운 사자이자 더없이 교활한 여우였음을 알 것이다. 또 그가 모든 이에게 두려움과 존경을 받으면서도 군대에게는 미움받지 않았음을 볼 것이고, 신흥 인물인 그가 그토록 큰 제국을 지킬 수 있었다는 데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의 엄청난 명성이, 약탈 때문에 인민이 그에게 품었을 법한 미움에서 그를 언제나 지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아들 안토니누스도 아주 뛰어난 자질을 지닌 사람이었고, 그 자질 덕에 인민의 눈에 경이로운 인물이었으며 병사들에게도 환영받았다. 그는 타고난

무인으로서 어떤 고생도 잘 견뎠고, 맛난 음식이든 그 밖의 어떤 안락함이든 하찮게 여겼다. 그래서 모든 군대가 그를 사랑했다. 그런데도 그의 포악함과 잔인함은 너무도 심하고 전례가 없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을 하나하나 죽인 끝에 로마 인민의 상당수와 알렉산드리아 인민 전부를 죽였고[8], 그 때문에 온 세상의 미움을 샀다. 측근들마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자기 군대 한가운데서 한 백인대장의 손에 죽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다. 이처럼 굳게 마음먹은 한 사람이 작정하고 저지르는 살해는 군주로서도 피할 길이 없다. 제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는 자라면 누구든 군주를 해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아주 드물기 때문에 군주가 크게 두려워할 까닭은 없다. 군주는 다만 자기가 부리는 사람, 곧 곁에 두고 군주 자리를 받드는 일을 맡긴 사람에게 큰 모욕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면 된다. 안토니누스는 바로 그 짓을 저질렀다. 그는 그 백인대장의 형제를 욕보여 죽였고 백인대장 본인도 날마다 위협했으면서도, 그를 자기 경호원으로 곁에 두었다. 이는 무모하고 파멸을 부르는 처사였고, 실제로 그는 그렇게 파멸했다.

이제 콤모두스를 보자. 그는 마르쿠스의 아들로서 세습의 권리로 제위를 얻었으니 제국을 지키기가 아주 쉬웠다. 아버지의 발자취만 따라갔어도 병사와 인민을 모두 만족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잔인하고 짐승 같은 심성을 지닌 그는 인민에게 마음껏 탐욕을 부리려고 군대의 비위를 맞추며 방종하게 만들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자신의 체통을 지키지 않았다. 툭하면 경기장에 내려가 검투사들과 싸웠고, 그 밖에도 황제의 위엄에 걸맞지 않은 천한 짓을 일삼다가 병사들 눈에 경멸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한쪽에서는 미움을, 다른 쪽에서는 경멸을 받은 그는 결국 음모에 걸려 죽었다.

남은 것은 막시미누스의 자질을 이야기하는 일이다. 그는 더없이 호전적인 사람이었다. 앞에서 말한 알렉산데르의 나약함에 진저리가 난 군대는 알렉산데르가 죽자 그를 황제로 뽑았다. 그러나 그는 제위를 오래 누리지 못했다. 두 가지 일로 미움과 경멸을 샀기 때문이다. 하나는 그가 한때 트라키아에서 양을 쳤다는 비천한 내력이었다.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여서 누구나 그를 몹시 깔보았다. 다른 하나는 즉위하자마자 로마로 가서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을 미루는 동안, 휘하의 장관들을 시켜 로마와 제국 곳곳에서 숱한 잔학 행위를 저질러 더없이 잔인한 자라는 평판을 얻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그의 비천한 핏줄을 업신여기는 마음과 그의 포악함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 미움으로 온 세상이 들끓었다. 먼저 아프리카가 반란을 일으켰고[9], 이어 원로원이 로마 인민 전체와 함께 들고일어났으며, 이탈리아 전체가 그에게 맞서 음모를 꾸몄다. 여기에 그의 군대마저 가세했다. 아퀼레이아를 포위하고도 함락하지 못해 애를 먹던 군대는 그의 잔인함에 진저리를 쳤고, 적이 그토록 많은 것을 보고는 그를 덜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그를 죽였다.

엘라가발루스나 마크리누스, 율리아누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들은 철저히 경멸받았기에 금세 사라져 버렸다. 그보다는 이 논의의 결론으로 가겠다. 내 말은 이렇다. 우리 시대의 군주들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병사들을 각별히 만족시켜야 하는 이 어려움을 덜 겪는다. 병사들을 어느 정도 배려해야 하기는 하지만, 그 문제는 금방 풀린다. 오늘날의 군주들 가운데 누구도, 로마 제국의 군대처럼 여러 속주의 통치와 행정에 오래 뿌리박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때 인민보다 병사들을 더 만족시켜야 했던 것은 병사들이 인민보다 힘이 셌기 때문이다. 지금은 튀르크 술탄과 이집트 술탄[10]을 빼면 모든 군주가 병사보다 인민을 더 만족시켜야 한다. 인민이

병사보다 힘이 세니까. 내가 튀르크 술탄을 예외로 두는 까닭은, 그가 늘 곁에 보병 1만 2천 명과 기병 1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있고 왕국의 안전과 힘이 그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통치자는 다른 모든 고려를 제쳐 두고 그들을 제 편으로 붙잡아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집트 술탄의 왕국도 전부 병사들 손에 있으므로, 그 역시 인민은 아랑곳하지 말고 병사들을 제 편으로 붙잡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집트 술탄의 이 국가가 다른 모든 군주국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 국가는 그리스도교의 교황 자리와 비슷해서, 세습 군주국이라고도 신생 군주국이라고도 부를 수 없다. 옛 군주의 아들들이 상속자가 되어 주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럴 권한을 지닌 자들이 그 지위에 뽑아 올린 사람이 주인이 된다. 또 이 제도는 오래된 것이어서 신생 군주국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신생 군주국이 겪는 어려움이 그곳에는 하나도 없다. 군주는 새사람이라도 그 국가의 제도는 오래되었고, 그를 마치 대대로 이어 온 주인처럼 맞아들이도록 짜여 있다.

그러나 우리 주제로 돌아가자.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위의 논의를 곰곰이 살펴보는 사람이라면, 앞서 이름을 든 황제들을 몰락시킨 원인이 미움 아니면 경멸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렇게, 일부는 정반대로 처신했는데, 어느 쪽에서든 한 사람은 행복하게, 나머지는 불행하게 끝난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페르티낙스와 알렉산데르는 신생 군주였으므로, 세습의 권리로 군주 자리에 있던 마르쿠스를 본받으려 한 것이 쓸모없을 뿐 아니라 해로웠다. 마찬가지로 카라칼라와 콤모두스와 막시미누스에게는 세베루스를 본받으려 한 것이 치명적이었다. 그의 발자취를 따를 만큼 역량이 넉넉하지 못했던 탓이다. 그러므로 신생 군주국의 신생 군주는 마르쿠스의 행적을 본받을 수 없고, 그렇다고 세베루스의 행적을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는 세베루스에게서는 자기 국가를 세우는 데 필요한 부분을 취하고, 마르쿠스에게서는 이미 자리 잡고 굳건해진 국가를 지키는 데 알맞고 영예로운 부분을 취해야 한다.

---

1. 안니발레 1세 벤티볼리오. 1445년 볼로냐의 경쟁 가문인 칸네스키(칸네톨리) 가문에게 살해되었다. "지금의 안니발레"는 그의 손자 안니발레 2세(1469~1540)다.

2. 산테 벤티볼리오(1463년 사망). 1446년 피렌체에서 볼로냐로 불려 와 죽을 때까지 도시를 다스렸고, 그 뒤를 조반니 2세 벤티볼리오(1443~1508)가 이었다.

3. 프랑스의 최고 사법 기관인 파를망(parlement). 파리 고등법원이 으뜸이었다. 이름과 달리 의회가 아니라 법원이다.

4. 재위 연도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161~180), 콤모두스(180~192), 페르티낙스(193), 디디우스 율리아누스(193), 셉티미우스 세베루스(193~211), 카라칼라(211~217), 마크리누스(217~218), 엘라가발루스(218~222), 알렉산데르 세베루스(222~235), 막시미누스 트락스(235~238). 마키아벨리는 주로 그리스 역사가 헤로디아노스의 기록을 따랐다. 본문은 마르쿠스가 "세습의 권리로" 제위를 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는 안토니누스 피우스의 친아들이 아니라 양자였다.

5. 로마 시대의 판노니아 지방(도나우강 중류). 세베루스는 193년 그곳 총독으로 있었다.

6. 페스켄니우스 니게르는 시리아 총독, 클로디우스 알비누스는 브리타니아 총독이었다. 니게르는 194년 싸움에 져 죽었다.

7. 로마 시대의 갈리아. 알비누스는 197년 루그두눔(지금의 리옹) 근처 싸움에서 져 죽었다.

8. 215년의 알렉산드리아 주민 학살. 카라칼라는 217년 메소포타미아 원정 중에 살해되었다.

9. 238년 아프리카 속주에서 고르디아누스 1세가 황제로 추대되었고 원로원이 그를 인정했다. 막시미누스는 그해 아퀼레이아를 포위하던 중 자기 병사들에게 살해되었다.

10. 이집트 맘루크 왕조의 술탄. 노예 출신 군인(맘루크) 집단이 술탄을 뽑았다. 이 왕조는 《군주론》 집필 뒤인 1517년 오스만 제국에 멸망했다.

20장 — 요새를 비롯해 군주들이 흔히 하는 많은 일은 이로운가, 해로운가

어떤 군주들은 권력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신민의 무장을 해제했다. 어떤 군주들은 다스리는 땅을 분열된 채로 두었다. 어떤 군주들은 일부러 자기에게 맞서는 적의를 키웠다. 어떤 군주들은 통치 초기에 의심스러웠던 자들을 제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힘썼다. 어떤 군주들은 요새를 지었고, 어떤 군주들은 요새를 허물고 부수었다. 이런 결정을 실제로 내려야 했던 나라들의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서는 이 가운데 어느 것에 대해서도 딱 잘라 판단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이 문제가 그 자체로 허락하는 만큼 폭넓게 이야기하겠다.

그러니 신생 군주가 자기 신민의 무장을 해제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신민이 무장하지 않은 것을 보면 언제나 그들을 무장시켰다. 그들을 무장시키면 그 무력은 군주 자신의 것이 되고, 의심스럽던 자들은 충성스러워지고, 충성스럽던 자들은 그대로 충성을 지키며, 모두가 한낱 신민에서 군주의 지지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신민을 모두 무장시킬 수는 없으므로, 무장시킨 자들에게 혜택을 주면 나머지에 대해서도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다. 무장한 자들은 자기들이 남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군주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여긴다. 나머지 사람들은 더 큰 위험과 더 무거운 의무를 지는 자가 더 큰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 군주를 너그러이 이해한다. 그러나 신민의 무장을

해제하면 그 순간부터 그들을 모욕하는 셈이 된다. 그들이 겁이 많다고 보든 충성심이 없다고 보든, 군주가 그들을 불신한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두 생각은 어느 쪽이든 군주에 대한 미움을 낳는다. 게다가 군주는 무장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없으니 용병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용병이 어떤 성질인지는 앞에서 말했다. 설령 용병이 쓸 만하다 해도, 강한 적과 의심스러운 신민 양쪽에서 군주를 지켜 줄 만큼 많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말했듯이 신생 군주국의 신생 군주는 언제나 그곳에 군대를 조직했다.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가득하다. 그러나 군주가 새 국가를 얻어 옛 국가에 팔다리처럼 덧붙일 때는 그 새 국가의 무장을 해제해야 한다. 다만 그곳을 얻을 때 군주 편에 섰던 자들은 예외다. 그리고 그들마저도 시간이 흐르고 기회가 오는 대로 무르고 유약하게 만들어야 하며, 나라의 군대 전부가 옛 국가에서 군주 곁에 사는 그 자신의 병사들 손에 있도록 짜 두어야 한다.

우리 선조들, 특히 지혜롭다고 존경받던 이들은 피스토이아는 파당으로, 피사는 요새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곤 했고, 그래서 지배하는 몇몇 도시에서 분쟁을 부추겨 그곳을 더 쉽게 손에 쥐려 했다.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세력 균형을 이루던 시절에는 그것이 잘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분열로 득을 본 일이 있었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적이 다가오면 분열된 도시는 곧바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 약한 쪽은 언제나 바깥 세력에 붙을 것이고, 다른 쪽은 버텨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베네치아인들은, 내 생각에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자기들이 지배하는 도시에서 겔프와 기벨린 두 파당을 키웠다.[1] 피를 보는 데까지 가게 두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자기들끼리의 다툼에 정신이 팔려 베네치아에 맞서 뭉치지 못하도록 그들 사이의 반목을 꾸준히 부추겼다.

그러나 다들 보았듯이 이것은 나중에 베네치아인들에게 득이 되지 못했다. 그들이 바일라에서 패하자 곧바로 한쪽 파당이 대담해져 베네치아가 지배하던 땅을 모두 빼앗아 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런 수법은 군주가 약하다는 증거다. 강한 군주국이라면 이런 분열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분열은 평화로울 때에만 쓸모가 있다. 신민을 다루기가 한결 쉬워지니까. 그러나 전쟁이 닥치면 그런 제도가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 드러난다.

군주가 자기 앞을 막는 어려움과 반대를 이겨 낼 때 위대해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운명은, 특히 세습 군주보다 명성을 얻을 필요가 더 큰 신생 군주를 위대하게 만들고 싶을 때면, 그에게 적을 만들어 주고 그 적들이 그에게 맞서 일을 꾸미게 한다. 그래야 그는 그것을 이겨 낼 계기를 얻고, 적들이 내밀어 준 그 사다리를 밟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은 지혜로운 군주라면 기회가 있을 때 교묘하게 적의를 하나쯤 키워 두었다가, 그것을 짓눌러 자신의 위대함을 한층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주들은, 특히 신생 군주들은, 통치 초기에 의심받던 사람들에게서 처음부터 믿음을 주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충성과 쓸모를 발견했다. 시에나의 군주 판돌포 페트루치[2]는 다른 이들보다 자기가 의심했던 자들을 써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론으로 말할 수 없다. 다만 이것만은 말해 두겠다. 군주국 초기에 적이었던 사람들이 제 처지를 지키려면 누군가에게 기대야 하는 부류라면, 군주는 언제나 아주 쉽게 그들을 제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 대한 나쁜 평판을 행동으로 지워야 할 필요를 절실히 알기에, 그만큼 더 충실하게 군주를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군주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무 마음을 놓고

섬기다가 군주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들보다 언제나 더 큰 이득을 얻는다.

주제가 그것을 요구하니, 군주들에게 꼭 일러 둘 것이 있다. 나라 안 사람들의 도움으로 새로 나라를 차지한 군주는, 자기를 도운 자들이 무슨 까닭으로 도왔는지 잘 따져 보아야 한다. 그것이 군주에 대한 자연스러운 애정이 아니라 그저 이전 정권에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그들을 우방으로 붙잡아 두기란 몹시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군주가 그들을 만족시킬 길은 없을 테니까. 옛일과 요즘 일에서 끌어낸 사례들로 그 까닭을 잘 따져 보면, 군주는 이전 정권에 만족했기에 자기의 적이었던 사람들을 제 편으로 만드는 편이, 이전 정권에 불만을 품어 자기 편이 되고 나라를 차지하도록 도운 사람들을 붙잡아 두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군주들은 권력을 더 안전하게 지키려고 요새를 짓곤 했다. 요새는 군주에게 맞서려는 자들에게 굴레와 재갈이 되고, 갑작스러운 습격을 받을 때는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나는 이 방법을 칭찬한다. 옛날부터 써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에 니콜로 비텔리는 치타 디 카스텔로에서 권력을 지키려고 그곳의 요새 두 개를 허물었다.[3] 우르비노 공작 귀도발도는 체사레 보르자에게 쫓겨났다가 자기 영지로 돌아오자 그 지방의 요새를 모조리 밑바닥까지 허물었다.[4] 요새가 없어야 나라를 다시 잃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벤티볼리오 가문도 볼로냐로 돌아온 뒤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5] 그러니 요새는 때에 따라 이롭기도 하고 해롭기도 하다. 한쪽에서 도움이 되면 다른 쪽에서 해가 된다.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외세보다 인민을 더 두려워하는 군주는 요새를 지어야 하고, 인민보다 외세를 더 두려워하는 군주는 요새를 짓지 말아야 한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지은 밀라노성[6]은 스포르차 가문에 그 나라의 어떤 다른 혼란보다 많은 싸움거리를

안겨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요새는 인민에게 미움받지 않는 것이다. 요새가 있어도 인민이 군주를 미워하면 요새는 군주를 구하지 못한다. 인민이 일단 무기를 들면 그들을 도우러 올 외세는 언제나 있기 마련이니까. 우리 시대에 요새가 군주에게 도움이 된 예는 포를리 백작 부인 말고는 찾아볼 수 없는데[7], 남편 지롤라모 백작이 살해되었을 때 부인은 요새 덕분에 인민의 습격을 피하고, 밀라노에서 올 구원병을 기다렸다가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때는 외세가 인민을 도울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나중에 체사레 보르자가 쳐들어오고, 부인에게 적대적인 인민이 외세와 손을 잡자, 요새도 부인에게 별 쓸모가 없었다. 그러니 그때나 그 전이나, 부인으로서는 요새를 갖는 것보다 인민에게 미움받지 않는 편이 더 안전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따져 볼 때, 나는 요새를 짓는 군주도 짓지 않는 군주도 칭찬하겠다. 그러나 요새만 믿고 인민에게 미움받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군주라면 누구든 비난하겠다.

---

1. 중세 이탈리아 도시들을 가른 두 파당. 겔프는 교황을, 기벨린은 신성 로마 황제를 지지했다.

2. 시에나의 실권자(1452~1512). 1490년대 말부터 죽을 때까지 시에나를 사실상 다스렸다.

3. 치타 디 카스텔로의 영주(1414~1486). 파올로와 비텔로초 비텔리의 아버지다. 1482년 망명에서 돌아와 교황 식스토 4세가 지은 요새들을 허물었다.

4. 귀도발도 다 몬테펠트로(1472~1508). 1502년 체사레 보르자에게 쫓겨났다가 그해 가을 잠시 돌아와 요새를 허문 것으로 보며, 1503년 알렉산데르 6세가 죽은 뒤 영지를 되찾았다.

5. 벤티볼리오 가문은 1511년 볼로냐로 돌아와 율리오 2세가 지은 요새를 허물었다.

6. 지금의 스포르체스코 성. 프란체스코 스포르차가 1450년 밀라노를 차지한 뒤 비스콘티 가문의 옛 성을 다시 지었다.

7. 카테리나 스포르차(1463~1509). 1488년 남편 지롤라모 리아리오가 살해되자 포를리의 요새로 피해 밀라노의 구원병을 기다렸다. 1500년 체사레 보르자에게 요새를 빼앗기고 사로잡혔다.

21장 — 군주가 명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큰일을 벌이고 보기 드문 본보기를 보이는 것만큼 군주를 높이 평가받게 하는 것은 없다. 우리 시대에는 지금의 스페인 왕, 아라곤의 페르난도[1]가 있다. 그는 거의 신생 군주라고 부를 만하다. 약한 왕에서 출발해 명성과 영광으로 그리스도교 세계의 으뜸가는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더없이 위대하고, 그 가운데 몇몇은 비범하기까지 하다. 그는 왕위에 오른 초기에 그라나다를 공격했고,[2] 그 원정은 그의 국가를 떠받치는 토대가 되었다. 우선 그는 이 원정을 다른 일에 쫓기지 않는 한가한 때에, 방해받을 걱정 없이 벌였다. 그는 카스티야 제후들의 마음을 이 전쟁에 붙잡아 두었다. 제후들은 전쟁만 생각하느라 변란을 꾀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그사이 그는 제후들이 눈치채지도 못하게 그들 위에서 명성과 권세를 쌓아 갔다. 그는 교회와 인민의 돈으로 군대를 먹여 살릴 수 있었고, 그 긴 전쟁을 거치며 자기 군대의 토대를 닦았다. 그 군대가 훗날 그에게 영예를 안겨 주었다. 이 밖에도 그는 더 큰일에 나서려고 늘 종교를 이용했다. 그는 경건한 잔인함에 손을 대어, 마라노[3]를 몰아내고 왕국에서 그들을 말끔히 쓸어 냈다. 이보다 더 비참하고 더 보기 드문 본보기는 있을 수 없다. 그는 똑같은 종교의 외투를 걸치고 아프리카를 공격했고, 이탈리아 원정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프랑스를 공격했다.[4] 이렇게 그는 늘 큰일을 꾸미고

이루어 왔으니, 신민은 그 일들에 마음을 졸이고 감탄하며 결말이 어떻게 날지에만 온 정신을 쏟아 왔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져,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차분히 그에게 맞설 틈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

나라 안을 다스리는 일에서 남다른 본보기를 보이는 것도 군주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밀라노의 베르나보[5]에 관해 전해지는 이야기들 같은 것이다. 시민 생활에서 누군가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비범한 일을 저지를 기회가 생기면, 군주는 그에게 상을 주든 벌을 주든 사람들 입에 두고두고 오르내릴 만한 처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주는 모든 행동에서 위대하고 뛰어난 인물이라는 평판을 얻도록 애써야 한다.

군주는 또한 참된 친구이자 참된 적일 때, 다시 말해 아무 망설임 없이 한쪽 편을 들어 다른 쪽에 맞서겠다고 밝힐 때 존중받는다. 이런 선택은 언제나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 이롭다. 이웃한 두 강자가 맞붙는다면, 그 둘은 어느 한쪽이 이겼을 때 군주가 승자를 두려워해야 할 만한 자들이거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거나 둘 중 하나다. 어느 경우든 입장을 분명히 하고 당당히 싸우는 편이 언제나 더 이롭다. 첫째 경우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군주는 늘 이긴 자의 먹이가 되고 진 자는 그것을 보며 기뻐하고 흡족해할 것이다. 그러면 군주를 지켜 줄 명분도, 받아 줄 곳도 아무것도 없다. 이긴 자는 미덥지 않고 어려울 때 돕지 않는 친구를 원하지 않으며, 진 자는 무기를 들고 자기와 운명을 함께하려 하지 않았던 군주를 받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안티오코스는 아이톨리아인들의 부름을 받고 로마인을 몰아내러 그리스로 건너왔다.[6] 안티오코스는 로마의 우방인 아카이아인들에게 사절을 보내 중립을 지키라고 권했고, 로마인들은 로마인들대로 자기들 편에서 무기를 들라고 설득했다. 이 문제가 아카이아인의 회의에 올라 논의되었을 때 안티오코스의 사절은 중립을 지키라고 설득했다. 그러자

로마 사절이 이렇게 대답했다. "저들은 여러분에게 전쟁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의 이익에 그보다 더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다. 고마움도 위엄도 얻지 못한 채, 여러분은 승자의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7]

언제나 이렇게 된다. 친구가 아닌 쪽은 중립을 요구하고, 친구인 쪽은 무기를 들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다. 결단력 없는 군주들은 눈앞의 위험을 피하려고 대개 중립의 길을 택하고, 대개 그 때문에 망한다. 그러나 군주가 한쪽 편에 서겠다고 과감히 밝혔을 때, 그가 편든 쪽이 이긴다면, 승자가 강하고 군주가 그의 처분에 맡겨지더라도 승자는 군주에게 빚을 진 셈이고 둘 사이에는 우애가 맺어져 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배은망덕의 본보기를 보이며 은인을 짓밟을 만큼 파렴치하지는 않다. 게다가 승리란 결코 승자가 아무것도 돌아볼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지는 않으며, 특히 정의는 돌아보아야 한다. 반대로 군주가 편든 쪽이 지더라도, 그는 군주를 받아 주고 힘닿는 한 도우며, 군주는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운명을 그와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된다. 둘째 경우, 즉 서로 싸우는 자들이 군주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면, 한쪽 편에 서는 것은 그만큼 더 분별 있는 일이다. 군주는 한쪽과 손잡고 다른 쪽을 무너뜨리는 셈이기 때문이다. 손잡은 쪽이 지혜로웠다면 오히려 그 상대를 지켜 주었어야 마땅한데도 말이다. 그리고 편든 쪽이 이기면 그는 군주의 처분에 맡겨지는데, 군주가 돕는 이상 그쪽이 이기지 못할 리 없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필요에 쫓기는 경우가 아니라면, 군주는 남을 치려고 자기보다 강한 자와 손을 잡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기면 그의 포로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군주는 될 수 있는 한 남의 처분에 맡겨지는 처지를 피해야 한다. 베네치아인들은 밀라노 공작을 치려고 프랑스와 손을 잡았다. 그 동맹은

피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 그 때문에 그들은 몰락했다. 그러나 교황과 스페인이 군대를 이끌고 롬바르디아를 공격하러 갔을 때 피렌체인들이 그랬듯이[8] 손잡기를 피할 수 없다면, 그때 군주는 위에서 말한 이유로 한쪽 편에 서야 한다. 어떤 국가도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모든 선택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하나의 곤란을 피하려 하면 반드시 다른 곤란에 부딪치는 것이 세상 이치이기 때문이다. 분별이란 곤란의 성질을 알아보고, 덜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데 있다.

군주는 또한 역량을 아끼는 사람임을 보여 주고, 어느 분야에서든 뛰어난 사람을 우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시민들이 장사든 농사든 그 밖의 어떤 생업이든 안심하고 종사하도록 북돋우는 것도 군주의 몫이다. 누구는 빼앗길까 두려워 제 재산을 가꾸기를 꺼리고, 누구는 세금이 무서워 장사를 시작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오히려 군주는 이런 일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어떤 수로든 도시나 국가를 키우려고 궁리하는 사람에게 상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 밖에도 군주는 한 해의 알맞은 때마다 축제와 구경거리로 인민의 마음을 붙들어 둘 일이다. 또 모든 도시는 동업 조합(arte)이나 구역(tribù)으로 나뉘어 있으므로, 군주는 이런 집단들을 존중하고 때때로 그들과 어울리며 인정과 아낌없는 베풂의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지위의 위엄만큼은 언제나 굳게 지켜야 한다. 위엄은 어떤 경우에도 결코 모자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1. 페르난도는 카스티야 여왕 이사벨과 혼인해 두 왕국을 함께 다스렸고, "가톨릭 왕"이라 불렸다.

2. 1482~1492년의 전쟁. 이베리아반도에 남은 마지막 이슬람 왕국 그라나다를 정복했다.

3.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과 무어인을 낮춰 부르던 말. 페르난도는 1492년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을 추방했고, 1502년에는 카스티야의 무어인에게 개종과 추방 가운데 하나를 고르게 했다.

4. 아프리카 원정은 1509~1510년 오랑과 트리폴리 등을 점령한 일, 이탈리아 원정은 1501~1504년 나폴리 왕국 정복, 프랑스 공격은 1512년 신성 동맹의 일원으로 프랑스와 싸우며 나바라를 점령한 일을 가리킨다.

5. 베르나보 비스콘티(1323~1385). 밀라노의 영주로, 기상천외한 상벌로 이름났다.

6. 3장에 나온 셀레우코스 왕 안티오코스 3세가 기원전 192년 그리스로 건너온 일이다.

7. 라틴어 원문은 Quod autem isti dicunt non interponendi vos bello, nihil magis alienum rebus vestris est; sine gratia, sine dignitate, praemium victoris eritis. 리비우스 《로마사》 35권 49장. 아카이아 동맹 회의에서 이 말을 한 로마 사절은 티투스 퀸크티우스다. 마키아벨리는 리비우스의 문장을 조금 줄이고 바꾸어 인용했다.

8. 1512년 율리오 2세와 페르난도의 신성 동맹군이 롬바르디아의 프랑스군을 공격했을 때 피렌체는 중립을 지켰다. 그해 스페인군이 프라토를 약탈하자 피렌체 공화정이 무너지고 메디치 가문이 돌아왔다.

22장 — 군주가 곁에 두는 측근들에 대하여

군주에게 신하를 고르는 일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신하가 좋은지 나쁜지는 군주의 분별에 달려 있다. 한 영주의 두뇌를 가늠할 때 사람들이 맨 먼저 하는 짐작은 그가 곁에 둔 사람들을 보는 데서 나온다. 곁에 둔 사람들이 유능하고 충직하면 그 군주는 언제나 지혜롭다고 여겨도 좋다. 그들이 유능하다는 것을 알아볼 줄 알았고, 그들을 충직하게 붙들어 둘 줄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언제나 그를 좋지 않게 보아도 된다. 그가 저지르는 첫 번째 잘못이 바로 이 선택에서 나오니까.

시에나의 군주 판돌포 페트루치에게는 안토니오 다 베나프로라는 신하가 있었는데,[1] 그를 판돌포의 신하로 아는 사람치고 그런 인물을 신하로 둔 판돌포를 더없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두뇌에는 세 종류가 있다. 첫째는 스스로 깨닫는 두뇌이고, 둘째는 남이 깨달은 것을 가려 알아보는 두뇌이며, 셋째는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남이 일러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두뇌다. 첫째는 더없이 뛰어나고, 둘째는 뛰어나며, 셋째는 쓸모가 없다. 그러므로 판돌포가 첫째 등급이 아니었다면 둘째 등급이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 하는 일과 말이 옳은지 그른지 가려낼 판단력만 있으면, 스스로 무엇을 생각해 낼 재주가 없더라도 신하가 한 일 가운데 못된 것과 좋은 것을 알아보고, 좋은 것은 추어올리고 못된 것은 바로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신하는 군주를 속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바르게 처신한다.

그렇다면 군주는 신하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가. 여기에는 결코 틀리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다. 신하가 군주보다 자기를 더 생각하고 무슨 일을 하든 그 속에서 제 이익을 찾는 것이 보이면, 그런 자는 결코 좋은 신하가 될 수 없고 군주는 결코 그를 믿을 수 없다. 남의 국정을 손에 쥔 사람은 결코 자기를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군주를 생각해야 하며, 군주와 상관없는 일은 아예 군주 앞에 꺼내지도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군주도 신하를 바르게 붙들어 두려면 신하를 생각해 주어야 한다. 명예를 높여 주고, 부유하게 해 주고, 은혜를 베풀어 자기에게 매어 두고, 영예와 직책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신하는 군주 없이는 자기가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미 받은 명예가 넉넉해서 더 큰 명예를 바라지 않고, 이미 가진 재물이 넉넉해서 더 많은 재물을 탐내지 않으며, 맡은 직책이 많아서 세상이 뒤집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 신하가 이러하고 군주가 신하를 이렇게 대하면 둘은 서로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끝은 언제나 둘 중 어느 한쪽에 해롭다.

---

1. 안토니오 조르다니 다 베나프로(1459~1530). 시에나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친 법률가로, 판돌포 페트루치의 가장 가까운 고문이었다.

23장 — 아첨꾼은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

중요한 항목 하나를, 그리고 군주가 아주 분별 있거나 사람을 잘 고르지 않는 한 좀처럼 막아 내기 어려운 잘못 하나를 빠뜨리고 넘어가고 싶지 않다. 바로 아첨꾼이다. 궁정은 아첨꾼으로 가득하다. 사람은 자기 일이라면 몹시 흐뭇해하고 그 일에서는 곧잘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이 역병을 좀처럼 막아 내지 못하며, 막으려 들다가는 경멸받을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 아첨을 막는 길은 진실을 말해도 군주의 노여움을 사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밖에 없는데, 누구나 군주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면 군주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분별 있는 군주는 세 번째 길을 택해야 한다. 자기 나라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골라 오직 그들에게만 진실을 말할 자유를 주되, 그것도 자기가 묻는 일에 한할 뿐 다른 일은 허락하지 않는 길이다. 다만 무슨 일이든 그들에게 묻고 그 의견을 들은 다음, 혼자서 자기 뜻대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조언자들을 다 함께 대할 때나 한 사람씩 대할 때나, 거리낌 없이 말할수록 군주가 더 반긴다는 것을 누구나 알도록 처신할 일이다. 그들 말고는 아무의 말도 들으려 하지 말고, 결정한 일은 밀고 나가며, 한번 내린 결정은 굽히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군주는 아첨꾼들 때문에 몰락하거나, 의견이 엇갈릴 때마다 이리저리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볍게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요즘의 예를 하나 들고 싶다. 지금의 황제 막시밀리안[1]의 측근인 루카 신부[2]는 황제 폐하를 두고, 폐하는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으면서도 어떤 일 하나 뜻대로 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황제가 앞에서 말한 것과 정반대로 처신했기 때문이다. 황제는 속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자기 계획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누구의 의견도 구하지 않는다. 그러다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서 그 계획이 알려지고 드러나기 시작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하고, 귀가 얇은 황제는 금세 계획에서 손을 뗀다. 그래서 하루 해 놓은 일을 이튿날 허물고, 황제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꾀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며, 그가 내린 결정을 믿고 무엇을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군주는 언제나 조언을 구하되, 남이 원할 때가 아니라 자기가 원할 때 구해야 한다.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무엇이든 조언하려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기를 꺾어 놓아야 한다. 그 대신 군주 자신은 아낌없이 묻는 사람이어야 하고, 물은 일에 대해서는 진실을 끝까지 참고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누가 무슨 사정이 있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노여워할 일이다. 분별 있다는 평을 듣는 군주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은 타고난 자질 덕분이 아니라 곁에 둔 좋은 조언자들 덕분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은 틀림없이 잘못이다. 결코 어긋나지 않는 일반 법칙이 하나 있으니, 스스로 지혜롭지 않은 군주는 좋은 조언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우연히 더없이 분별 있는 사람 하나에게 모든 일을 통째로 맡겨 그가 군주를 대신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경우라면 다르다. 이 경우에는 좋은 조언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그렇게 다스리는 자가 머지않아 군주의 나라를 빼앗을 테니까. 그런데 지혜롭지 않은 군주가 여러 사람과 의논하면 결코 한결같은 조언을 얻지 못하고, 스스로 그 조언들을 하나로 모을 줄도 모른다. 조언자는 저마다 제 이익을 생각할 것이고, 군주는 그들을 바로잡을 줄도, 속을 꿰뚫어 볼 줄도 모를 것이다. 조언자란 달리 될 수가 없다. 사람은 어떤 필연이 그를 착하게

만들지 않는 한 언제나 군주에게 못되게 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렇다. 좋은 조언은 누구에게서 나오든 군주의 분별에서 생겨나야 하며, 군주의 분별이 좋은 조언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

1. 막시밀리안 1세(1459~1519). 합스부르크 가문 출신으로 1493년부터 신성 로마 제국을 다스렸고, 1508년 황제 칭호를 썼다. 이탈리아 전쟁에 여러 차례 끼어들었다.

2. 루카 라이날디(Luca Rinaldi). 막시밀리안 황제의 측근 성직자이자 사절. 마키아벨리는 1507~1508년 황제의 궁정에 사절로 가 있을 때 그를 만났다.

24장 — 이탈리아의 군주들은 왜 나라를 잃었는가

앞에서 적은 일들을 분별 있게 지키면 신생 군주도 오래된 군주처럼 보이고, 그 자리에 오래 뿌리내렸을 때보다도 단번에 더 안전하고 굳건하게 권력을 쥐게 된다. 신생 군주의 행동은 세습 군주의 행동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눈길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행동이 역량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오래된 혈통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훨씬 더 단단히 그들을 묶어 둔다. 사람은 지나간 일보다 눈앞의 일에 훨씬 더 마음을 빼앗기고, 눈앞의 일에서 좋은 것을 찾으면 그것을 누릴 뿐 다른 것을 찾지 않는다. 오히려 군주가 다른 일에서 스스로 제 몫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사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지키려 들 것이다. 그리하여 신생 군주는 두 배의 영광을 얻는다. 새 군주국을 세웠고, 좋은 법과 좋은 군대와 좋은 벗과 좋은 본보기로 그 나라를 꾸미고 튼튼히 했다는 영광이다. 마찬가지로 군주로 태어났으면서도 분별이 모자라 군주국을 잃은 자는 두 배의 치욕을 얻는다.

우리 시대에 이탈리아에서 나라를 잃은 영주들, 이를테면 나폴리 왕이나 밀라노 공작 같은 이들을 살펴보면,[1] 먼저 군대에 관해 공통된 결함이 눈에 띈다. 그 까닭은 앞에서 길게 논했다. 다음으로,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인민을 적으로 돌렸고, 어떤 이는 인민을 벗으로 삼았으면서도 귀족에게서 제 몸을 지킬 줄 몰랐다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런 결함만 없다면, 들판에 군대 하나를 세워 둘 만한 저력이 있는 나라는 잃지 않는다.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가 아니라 티투스

퀸크티우스에게 패한 쪽인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는,[2] 자기를 공격해 온 로마인과 그리스의 강대함에 견주면 다스리는 나라가 크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군인다운 사람이었고, 인민을 잘 다룰 줄 알았으며 귀족에게서도 제 몸을 지킬 줄 알았기에 여러 해 동안 그들을 상대로 전쟁을 버텼다. 끝내 몇몇 도시의 지배권은 잃었어도 왕국만은 그의 손에 남았다.

그러므로 여러 해 동안 군주 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그것을 잃은 우리 군주들은 운명을 탓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게으름을 탓해야 한다. 그들은 평온한 시절에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잔잔한 바다에서 폭풍을 셈에 넣지 않는 것은 사람들의 흔한 결함이다). 그러다 나쁜 시절이 닥치자 맞서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달아날 생각만 했으며, 인민이 정복자들의 오만에 넌더리를 내고 자기들을 다시 불러 주기를 바랐다. 다른 방도가 다 떨어졌을 때라면 이 방도도 괜찮다. 그러나 이 방도 하나를 바라고 다른 처방들을 내버린 것은 아주 나쁘다. 누군가 일으켜 주리라 믿고 넘어지려 해서는 결코 안 되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자기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그런 방어는 비굴한 데다 자기에게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역량에 달린 방어만이 좋고, 확실하고, 오래간다.

---

1. 나폴리 왕은 1501년 프랑스와 스페인에 왕국을 빼앗긴 페데리코 1세, 밀라노 공작은 1499~1500년 루이 12세에게 나라를 잃은 루도비코 스포르차를 가리킨다.

2. 3장에 나온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5세(재위 기원전 221~179)다.

25장 — 운명은 인간사에 얼마나 힘을 쓰며, 어떻게 맞서야 하는가

세상일은 운명과 신이 다스리는 것이어서 사람이 아무리 분별을 다해도 바로잡을 수 없고, 아니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다고 생각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나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일에 애써 땀 흘릴 것 없이 그저 운수에 몸을 맡기면 된다고 판단할 법도 하다. 이 생각은 우리 시대에 들어 더 널리 믿어졌다. 사람의 짐작을 송두리째 벗어나는 큰 변화를 이미 보아 왔고 지금도 날마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따금 이 일을 생각하다 보면 나도 어느 정도는 그들의 생각에 기운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유의지가 꺼져 버리지 않도록, 나는 운명이 우리 행동의 절반을 주재하되 나머지 절반 혹은 그 언저리는 우리가 다스리도록 맡겨 둔다고 보는 것이 옳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나는 운명을 저 파괴적인 강에 견준다. 그런 강은 한번 성이 나면 들판을 물바다로 만들고, 나무와 건물을 쓰러뜨리고, 이쪽에서 흙을 떼어다 저쪽에 쌓는다. 누구나 그 앞에서 달아나고 누구나 그 기세에 굴복할 뿐, 어디에서도 막아서지 못한다. 그러나 강이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평온한 시절에 미리 제방과 둑을 쌓아 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해 두면 나중에 물이 불어나도 강물은 수로를 따라 흘러가거나 그 기세가 그토록 제멋대로이지도 해롭지도 않을 것이다. 운명도 마찬가지다. 운명은 맞설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 제 힘을 드러내고, 자기를 붙들어 둘 둑과 제방이 쌓이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곳으로 그 기세를 돌린다. 이 변화들이 일어난 자리이자 그 변화에 처음 움직임을 준 이탈리아를 살펴보면, 둑도 없고 제방 하나 없는 벌판임을 알게 된다. 이탈리아가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프랑스처럼 알맞은 역량으로 막혀 있었다면, 이번 홍수는 지금처럼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거나 아예 들이닥치지도 않았을 것이다. 운명에 맞서는 일에 관해 일반론으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이제 범위를 좁혀 개별 사례로 들어가 말하자면, 오늘 흥하던 군주가 내일 몰락하는 일을 우리는 본다. 그것도 그가 본성이나 자질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말이다. 나는 그 까닭이 먼저 앞에서 길게 논한 원인들에 있다고 믿는다. 곧 운명에 온전히 기대는 군주는 운명이 바뀌면 몰락한다는 것이다. 또 나는 자기 처신을 시대의 성격에 맞추는 사람은 성공하고, 마찬가지로 자기 처신과 시대가 어긋나는 사람은 실패한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저마다 눈앞에 둔 목표, 곧 영광과 부에 이르는 일에서 제각기 다르게 나아가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신중하게, 어떤 이는 과감하게, 어떤 이는 힘으로, 어떤 이는 꾀로, 어떤 이는 참을성 있게, 어떤 이는 그 반대로 나아가며, 저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로 목표에 이를 수 있다. 또 신중한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뜻을 이루고 다른 하나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 보인다. 마찬가지로 하나는 신중하고 하나는 과감해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는데도 두 사람이 똑같이 흥하는 것도 보인다. 이는 다름 아니라 시대의 성격이 그들의 처신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서 나온다. 앞서 말했듯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움직여도 같은 결과를 얻고, 두 사람이 똑같이 움직여도 하나는 목표에 이르고 하나는 이르지 못하는 것도 여기서 나온다. 형편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 있다. 신중하고 참을성 있게 처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시대와 형편이 돌아가는 모양이 그의 처신과 맞아떨어지면 그는 흥한다. 그러나 시대와

형편이 바뀌면 그는 몰락한다. 처신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맞추어 자기를 바꿀 줄 알 만큼 분별 있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은 타고난 성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도 하고, 한 길을 걸어 늘 잘되어 왔으면 그 길을 떠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신중한 사람은 과감하게 나서야 할 때가 와도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몰락한다. 시대와 형편에 따라 본성을 바꿀 수 있다면 운명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교황 율리오 2세는 무슨 일이든 과감하게 밀어붙였다. 그리고 시대와 형편이 그런 처신과 워낙 잘 맞아떨어져서 언제나 좋은 결말을 얻었다. 조반니 벤티볼리오가 아직 살아 있을 때 율리오가 처음으로 벌인 볼로냐 원정을 생각해 보자. 베네치아인은 이 원정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스페인 왕도 마찬가지였다. 프랑스와는 아직 이 원정을 두고 협상하는 중이었다. 그런데도 율리오는 사납고 과감한 기질 그대로 몸소 원정길에 올랐다. 이 움직임 앞에서 스페인과 베네치아인은 머뭇거리며 꼼짝하지 못했다. 베네치아인은 두려워서였고, 스페인 왕은 나폴리 왕국 전체를 되찾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1] 한편으로 율리오는 프랑스 왕을 뒤에 끌고 갔다. 프랑스 왕은 교황이 이미 움직인 것을 보았고, 베네치아인을 꺾으려면 교황을 벗으로 삼고 싶었으므로, 군사를 내주지 않으면 대놓고 교황을 모욕하는 셈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율리오는 과감한 한 걸음으로, 다른 어떤 교황도 사람이 짜낼 수 있는 분별을 다 쏟고도 이루지 못했을 일을 이루어 냈다. 다른 교황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것처럼 합의를 굳히고 모든 일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로마를 떠나려고 기다렸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프랑스 왕은 천 가지 핑계를 댔을 것이고, 다른 이들은 천 가지 두려움을 불어넣었을 테니까. 그의 다른 행적은 그냥 두겠다. 모두 이와 비슷했고 모두 잘 풀렸다. 그리고 삶이 짧았던 탓에 그는 그 반대를 겪어 보지 않았다.

신중하게 나아가야 하는 시절이 왔다면 그는 몰락했을 것이다. 타고난 성향이 이끄는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니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다. 운명은 변하는데 사람은 제 방식을 고집하니, 둘이 서로 맞는 동안에는 성공하고 어긋나는 순간 실패한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판단한다. 신중한 것보다는 과감한 편이 낫다. 운명은 여자다. 그러니 그 여자를 휘어잡으려면 때리고 밀어붙여야 한다. 실제로 운명은 냉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자들보다 이런 자들에게 더 순순히 굴복한다. 그래서 운명은 여자이니만큼 언제나 젊은이들의 벗이다. 젊은이는 덜 신중하고 더 사나우며, 더 대담하게 운명을 부리기 때문이다.

---

1. 베네치아는 1495년부터 나폴리 왕국에 딸린 풀리아의 항구 도시들을 차지하고 있었다.

26장 — 이탈리아를 되찾아 야만족에게서 해방하라는 권고

그러니 앞에서 논한 모든 것을 헤아리고, 지금 이탈리아에 새 군주에게 영예를 안겨 줄 시절이 왔는지, 분별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이 거기에 새로운 형태를 불어넣어 자기에게는 영예가 되고 이탈리아 사람 모두에게는 이로움이 될 만한 재료가 있는지 혼자 곰곰이 따져 보았습니다. 그러자 새 군주에게 유리한 일이 이토록 많이 한데 몰려 있으니, 이보다 더 알맞은 때가 언제 또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세의 역량을 보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해야 했고, 키루스의 기개가 얼마나 큰지 알려면 페르시아인이 메디아인에게 짓눌려야 했으며, 테세우스의 탁월함을 알려면 아테네인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탈리아인 한 사람의 정신이 지닌 역량을 알려면 이탈리아가 지금 이 지경까지 떨어져야 했습니다. 히브리인보다 더 종살이하고, 페르시아인보다 더 예속되고, 아테네인보다 더 흩어져야 했으며, 머리도 질서도 없이 얻어맞고, 헐벗기고, 찢기고, 짓밟히며 온갖 파멸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제껏 어떤 이에게서 한 가닥 빛이 비쳐, 그가 이탈리아를 구원하라고 신께서 정해 주신 사람이 아닐까 여길 만한 때도 있었습니다.[1] 그러나 그 뒤에 보니 그는 하는 일이 한창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운명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숨이 끊어진 듯 남겨진 이탈리아는 누가 되었든 자기 상처를 낫게 하고, 롬바르디아의 약탈과

나폴리 왕국과 토스카나의 수탈을 끝내고, 오래전부터 곪아 온 종기를 고쳐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야만스러운 잔인함과 오만에서 자기를 건져 줄 누군가를 보내 달라고 이탈리아가 신께 비는 모습이 보입니다. 누군가 깃발을 들기만 하면 언제든 그 깃발을 따를 채비를 마친 모습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탈리아가 전하의 영광스러운 가문보다 더 큰 희망을 걸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전하의 가문은 운명과 역량을 갖추셨고, 신과 교회의 은총을 입으셨으며, 지금은 그 교회의 수장 자리에 계시니, 이 구원의 선두에 서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름을 든 이들의 행적과 삶을 눈앞에 떠올리신다면 이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드물고 놀라운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저마다 맞은 기회는 지금 이 기회보다 작았습니다. 그들의 대업은 이 일보다 더 정의롭지도, 더 쉽지도 않았고, 신께서 전하보다 그들을 더 아끼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큰 정의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에게 전쟁은 정의롭고, 무력 말고는 아무 희망도 없는 곳에서 무력은 거룩하다"는 말 그대로입니다.[2] 여기에는 더없이 큰 의욕이 있습니다. 의욕이 큰 곳에서는 어려움이 클 수 없습니다. 다만 전하의 가문께서 제가 본보기로 내세운 이들의 제도를 본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신께서 이끄신 전례 없는 기적들이 보입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구름이 전하께 길을 보여 주었고, 바위가 물을 쏟아 냈고, 만나가 비처럼 내렸습니다.[3] 모든 일이 전하의 위대함을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나머지는 전하께서 하셔야 합니다. 신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와 우리에게 돌아올 영광의 몫을 빼앗지 않으시려고 모든 일을 몸소 다 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앞에서 이름을 든 이탈리아인 가운데 누구도 전하의 영광스러운 가문에 기대할 만한 일을 해내지 못했다 해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탈리아에 그토록 많은 격변이 일고 그토록 많은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 이탈리아의 군사적 역량이 늘 꺼져 버린 듯 보였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이탈리아의 옛 제도가 좋지 않았고, 새 제도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일어선 사람에게, 그가 찾아낸 새 법과 새 제도만큼 큰 영예를 안겨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터를 잘 잡고 그 안에 위대함을 품으면, 그 사람을 우러름과 경탄을 받는 인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는 어떤 형태든 불어넣을 수 있는 재료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기 팔다리에는 큰 역량이 있습니다. 머리에 역량이 모자라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결투나 소수끼리 맞붙는 싸움을 거울삼아 보십시오. 이탈리아인이 힘과 날렵함과 재치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끼리 맞붙는 싸움이 되면 이탈리아인은 맥을 못 춥니다. 이 모든 것은 우두머리들이 약한 데서 비롯됩니다. 아는 사람은 복종을 받지 못하고 저마다 자기가 안다고 여기는데, 지금까지 역량으로도 운명으로도 남들이 고개를 숙일 만큼 높이 올라설 줄 안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지난 스무 해 동안 치른 그 많은 전쟁에서 이탈리아인으로만 이루어진 군대는 늘 형편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증인은 먼저 타로강이고, 그다음은 알레산드리아, 카푸아, 제노바, 바일라, 볼로냐, 메스트레입니다.[4]

그러니 전하의 영광스러운 가문께서 자기 나라를 구원한 저 뛰어난 사람들을 따르고자 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모든 대업의 참된 토대로서 자국군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보다 더 충성스럽고, 더 참되고, 더 나은 병사는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병사 하나하나도 훌륭하지만, 자기 군주가 몸소 지휘하고 예우하며 보살펴 주는 것을 보면 모두 함께 더 훌륭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군대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탈리아인의 역량으로 외적을 막아 낼 수 있습니다. 스위스 보병과 스페인 보병은 무섭다는 평을 듣지만, 그래도 둘 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 때문에 제3의 편제를 갖춘 군대라면 그들에게 맞설 뿐 아니라 그들을 이기리라 자신할 수도 있습니다. 스페인 보병은 기병을 버텨 내지 못하고, 스위스 보병은 자기들만큼 끈질기게 싸우는 보병과 맞닥뜨리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보병이 프랑스 기병을 버텨 내지 못하고 스위스 보병이 스페인 보병에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겪어서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뒤의 경우는 아직 온전히 겪어 보지 못했지만, 라벤나 전투에서 그 맛보기를 보았습니다.[5] 그때 스페인 보병은 스위스 보병과 같은 편제를 따르는 독일 보병대와 맞붙었습니다. 스페인 병사들은 날랜 몸놀림과 작은 방패에 힘입어 독일군의 장창 밑으로 파고들었고, 독일군이 손쓸 틈도 없이 안전한 자리에서 그들을 찔러 댔습니다. 기병이 달려들어 들이치지 않았더라면 스페인 보병은 독일군을 모조리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보병의 결함을 알고 나면, 기병을 버텨 내고 보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보병을 새로 짤 수 있습니다. 무기의 종류를 새로 정하고 편제를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야말로 새로 갖추어 놓으면 새 군주에게 명성과 위대함을 안겨 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탈리아가 그토록 긴 세월 끝에 마침내 자기 구원자를 만나게 해야 합니다. 외세의 홍수에 시달려 온 그 모든 지방에서 그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맞아들여질지 저는 이루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복수에 목말라하며, 얼마나 굳은 신의로, 얼마나 깊은 경애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맞이하겠습니까. 어느 성문이 그 앞에서 닫히겠습니까? 어느 인민이 그에게 복종을 거부하겠습니까? 어떤 시샘이 그를 가로막겠습니까? 어느 이탈리아인이 그에게 경의를 바치지 않겠습니까? 이 야만족의 지배에는 누구나 코를 싸쥡니다. 그러니 전하의 영광스러운 가문께서는 정의로운 대업에 나설 때의 그 기백과 그 희망을 품고 이 짐을 떠맡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깃발 아래 이 조국이 고귀해지고, 그 가호 아래 페트라르카의 저 노래가 참말이 되게 하십시오.

역량이 광포한 힘에 맞서
무기를 들리니, 싸움은 길지 않으리라.
옛 용맹은
이탈리아인의 가슴에서 아직 죽지 않았으니.[6]

---

1. 통설로는 체사레 보르자(7장)를 가리킨다.

2. 원문은 iustum enim est bellum quibus necessarium, et pia arma ubi nulla nisi in armis spes est. 리비우스 《로마사》 9권 1장. 삼니움의 장군 가이우스 폰티우스가 로마와 싸우기에 앞서 한 말로, 마키아벨리는 조금 고쳐 인용했다.

3. 구약성경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떠날 때 일어난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14장), 구름 기둥이 길을 이끌고(13장), 바위에서 물이 솟고(17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다(16장).

4. 차례로 타로강 가의 포르노보 전투(1495), 알레산드리아 함락(1499), 카푸아 약탈(1501), 제노바 진압(1507), 바일라 전투(1509), 볼로냐 함락(1511), 메스트레 부근의 패전(1513)을 가리킨다.

5. 이때 스페인 보병과 맞붙은 독일 보병은 프랑스 편에서 싸운 용병(란츠크네히트)이었다.

6. 페트라르카의 칸초네 「나의 이탈리아(Italia mia)」 93~96행. 원문은 Virtù contro a furore / Prenderà l'arme, e fia el combatter corto; / Ché l'antico valore / Nell'italici cor non è ancor morto.

판권면

군주론

원제 · Il Principe

지은이 · 니콜로 마키아벨리 (Niccolò Machiavelli, 1469~1527)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저본 · 리베르 리베르(Liber Liber) 전자판(밑바탕: 루이지 피르포 엮음, 페데리코 샤보 서문·주 《Il Principe》, 토리노 에이나우디 1972). 15장 둘째 문단은 1814년 판(위키문헌 공개본)으로 보충했다. 이탈리아어 원전에서 옮겼으며, 영어 번역(W. K. 마리어트 1908, 루이지 리치 1909)은 대조에만 썼다. 편집자의 서문과 주는 옮기지 않았다.

분량 · 원문 이탈리아어 약 27,300단어 · 헌사와 26장 · 원문 129문단, 번역 129문단 · 옮긴이 주 119개

저작권 · 지은이가 1527년에 사망해 원저작물은 대한민국·미국·유럽연합 모두에서 퍼블릭도메인이다. 저본 비판본(1972)의 이탈리아 법상 보호기간(20년)도 끝났다.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개정 · 1.1판(2026년 10월). 에테르 라이브러리 총서의 공통 인명·지명 표기에 맞춰 일부 표기와 띄어쓰기를 고쳤다(예: 에스파냐 → 스페인, 트로이아 → 트로이). 본문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12